

김홍신 소설가
인생에 '명답' 만 있을 뿐
'정답' 은 없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0호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불교학계 논문 심사, 토론·전문성 결여

권오민·장재진 교수, 현행 심사 풍토 비판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제도가 생겨나며 현행 학술지의 대부분의 글은 심사를 받는다.

한국불교학계의 20여 학술지도 매년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와 논평제도는 동료 전문가 집단의 평가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논박을 넘은 대립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학계 일각에서 논문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42호에서 불교학계 논문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권오민 교수는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 의 글에서 "현행 학술지 심사는 원천적으로 토론이 봉쇄됐다. 이로 인해 심사자가 마치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훈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논지가 실리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은 새로운 논문으로 제시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글에서 자신의 논문인 '알라야식 존재증명과 경량부' 를 〈불교학보〉 70집에 게재하는 과정에서의 사례를 들었다. 권 교수는 "등재지 제도 이후 규격화된 논문에 논지마저 훼손하는 심사자의 훈계와 지시가 있었다. 게재를 위해 따른다면 그것이 무슨 논문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파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불교학계의 폐쇄적 권위의식을 버리고 논쟁을 통한 학문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교수도 '불교학계 논문심사의 문제점' 에서 소통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장 교수는 "불교학계는 다른 분야 학회와 달리 투고자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분야 다수의 인력풀을 소집해 공개토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경계는 심사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중재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불교학계가 심사의 소통 부족이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게재를 위한 심사가 강행되는 풍토로 응용·비교·융복합 등에서 더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응용·비교·융복합 등 범주에서는 인력풀이 약하기에 이를 중재할 편집위의 역할이 더욱 세밀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청문회' 등 공식 절차가 규정으로 포함되는 등 분쟁 대응방법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불교학계 학회 편집위원장은 "일정부분 공감한다. 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하고 동시에 심사자들이 사전에 기피자를 선정하는 제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뿐만 아니라 투고자의 연구 결과도 보호해야 한다. 현재 불교학계는 이런 분쟁 발생 시 편집위 내 재심의 과정이 있으며 다른 전공자들에게 묻고 있다. 심사 논증과정과 재심의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술지 심사 토론 원천 봉쇄
"심사자, 지도교수 같은 훈계"
융복합 등 인력 없어 소통 '無'

불교 학술지, 등재 탈락 이후
심사과정 갈등 확대 전망돼

한 중진학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도상 젊은 학자들이 업적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등재지에 중복게재도 피해가며 투고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후보지에 불교학술지가 대거 탈락한 이후 평가 게재와 심사과정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열린논단을 운영하는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은 "학계 전반에 논쟁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학문발전이 진행돼야 한다. 학자 개개인이 학문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공정성을 갖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측 천태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3일 개성 영통사 보광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를 봉행했다. **사진제공=금강불교신문**

南北불교 "통일보살 되자" 다짐

천태종 · 조불련, 3일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법회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개성 영통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았다.

남측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지성, 이하 조불련)은 11월 3일 개성 영통사 보광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남측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 부의장 무원 · 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과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등 70여 명이, 북측에서는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 부위원장 연남 스님과 차금철 서기장, 영통사 주지 혜명 · 평양 광법사 주지 수덕 스님,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영통사 복원은 단순한 건축불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공존 번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새로운 10년의 유대를 이어가는 특별한 원력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측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도 "북남이 힘을 합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며 "영통사가 불법이 넘쳐나는 도량이 되서 천태종도들의 성지순례도 계속 이어져 우리 모두 통일의 보살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무원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서기장은 함께 낭독한 공동발원문에서 "이 시대를 사는 남북 국민들이 통일 보살이 되는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지혜광명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기념법회 후 춘광 스님은 직접 쓴 '상락아정(常樂我淨)' 글씨를 비롯해 소형 범종, 〈마하지관〉 등을 지성 스님에게 전달했다. 무원 스님도 직접 쓴 지성 스님에게 '인화성사(人和成事)' 글씨를 지성 스님에게 선물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강남 총무원 시대 열리나

자승 스님, 3일 카페 바라밀 오픈식서 밝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강남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일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1층에서 개최한 카페 바라밀 오픈식에서 총무원 청사를 봉은사로 이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화 되면 전법회관 철거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럴 경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전법회관에 들어선 단체들이 사용하고 중앙종무기관은 강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함께 봉은사 인근의 토지 매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총본산성역화불사 총도감 지현 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추진되면 전법회관 내 단체와 불교신문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입주 할 수 있도록 해 오롯이 불교 신행과 문화 단체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는 성역화 불사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은사 예식장이 내년도 환수가 이뤄질 것이다. 이후 인근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총무원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재정 확충하려면 재정 투명화가 우선"

불교미래사회硏, '신도 보시 및 기부 인식 조사' 발표

신도 900명 대상 설문
보시금 납부 의향 66.1%,
사용처에는 의구심 제기

사찰 신도의 절반 이상이 사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보람돼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으며, 납부 의향이 없는 신도는 보시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찰 신도의 보시 및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내 사찰 13곳 신도 9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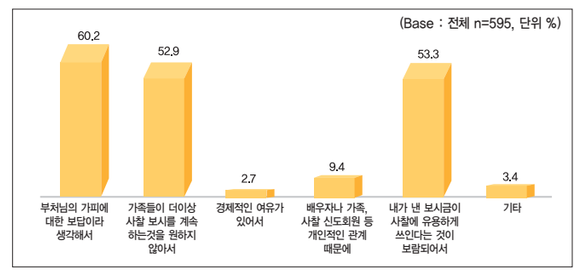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시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신도 832명 중 방법으로는 83.1%가 불전함과 보시함 기부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인등 기도비(67.9%), 신도회비(46.3%), 교무금(23.3%) 순으로 조사돼 불전함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도 계속 보시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66.1%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5.1%, '의향이 없다' 는 5.7%였다. 보시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도 10명 중 6~7명이 계속 보시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시금 납부 이유(복수응답)는 '부처님 가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 (60.2%), '내가 낸 보시금이 사찰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 보람돼' (53.3%), '가족들의 평안 및 행복을 위해' (52.9%), '배우자나 가족 사찰 신도회원 등 개인적 관계로' (9.4%),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2.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시금 납부 의향이 없다고 말한 5.7%(51명) 가운데 15.7%가 사찰서 보시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확신 못해서라고 답해 신도들이 재정 투명화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 이유로는 '가족들이 더 이상의 보시를 원하지 않아' (11.8%), '가계에 부담돼' (5.9%), '지금까지의 보시금으로 충분하다 생각해' (2.0%) 등을 들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신도 2명 중 1명은 신도 교무금이 종단과 사찰 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신도 교무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결과에 잘 나타났다.

향후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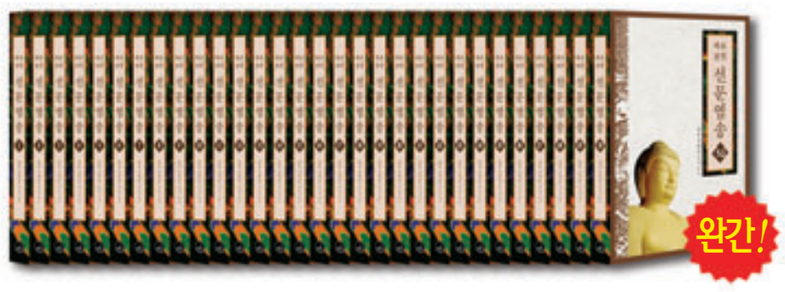
'조계종단 재정에 도움' (55.3%), '사찰 재정에 도움' (47.3%), '신도조직 활성화에 도움' (45.2%)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부 결정의 주된 동기에 대해 71.1%가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가섭스님은 "신도들이 사찰 교부금을 내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신도들은 역시 재정투명화를 이유로 꼽았다"며 "종단에서도 사찰 교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명화가 필수이자 우선 과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

예산 심의 등 원만 처리… 제재·통제 강화

조계종 중앙종회 204차 정기회 개최

11월 3일 개원해 6일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종무 행정 감사와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 심의, 종법 재개정, 종단 주요 인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지고 원만하게 처리됐다.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안이 중앙종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50억 236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83억 9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800만원(4.1%) 가량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8000만원(18.4%) 가량이 늘어났다.

종법 제개정에서는 법계법 · 총림법 · 해외특별교구법 · 승려법 · 계단법 ·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등이 상정 · 논의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과 교구 발전에 대한 종책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이뤄진 직영사찰법 개정이다. 현행 직영사찰법 6조에는 총무원장이 지정한 직영사찰에 대해 관리인을 임면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직영사찰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바뀌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관악산 연주암 직영 전환을 선언하며 직영사찰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단목적사업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 운영의 경험과 소신을 담았다"며 "이 법이 통과 되면 내년 3월 과천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은 대각회의 합의 사안을 조율 수용을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이월 결정 과정에서 대각회 소속 스님들의 반발이 있었다. 지홍 스님은 "대각회에서 3가지 사항은 대각회 권리 침해 사항"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법이 통과될 경우 대각회가 종단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번안동의안으로 제출된 총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장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규정한다. 다만 현 방장은 1회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 됐던 임회위원 구성과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선출직 임회위원을 폐지하고 당연직과 추천직으로 임회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4차 정기회를 개원했다.

중앙기관 예산 530억원 통과
종법 개정 · 종책 질의 등 활발
최다선 영담 스님 의원 제명
닷컴 · 포커스 '해종' 출입 금지
"비판에 충실하려 했다" 반박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 개정돼 종단 미등록 법인 임원 및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으로 임원 및 도제로 한정됐다. 또한 법인의 재산권과 관리 운영권을 보장하되, 종단과 합의한 경우 재산 변동에 대한 승인 및 법인 소속 사찰의 인사 등에 대해 총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재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 최다선 위원인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왜곡된 언행과 종단비하 등을 이유로 의원 제명됐다. 비공개로 진행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61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53명을 넘겨 영담 스님의 의원 제명이 가결됐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은 해종언론으로 규정돼 중앙종회 및 총무원의 출입 정지 조치가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원, 본사 주지, 총무원 등 참여하는 '해종언론 공동대책위원회' 도 11월 6일 구성됐다. 그 과정 역시 중앙종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고, 총무원과 중앙신도회는 곧바로 논평을 발표했으며, 기획실장 · 홍보특보 공동 명의의 입장문으로 신속하게 이어졌다.

홍보특보 법원 스님(대흥사)이 11월 6일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최근 종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를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마치 사실인양 왜곡 ·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해종을 넘어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로 해종언론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6일 입장문에서 "언론의 사명 중 하나인 영향력이 큰 인물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바라보기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라며 "비방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 의혹 대상의 스님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진실하게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무원의 임무를 방기하고 그 공을 중앙종회에 넘기고는, 그 결과를 받아서 마지못해 시행하는 듯한 모습은 차도살인의 꼼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원로의원 무산 오현 스님 추천
혜성 스님 대종사 전형 동의



무산 스님



혜성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또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된 청담 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도 만장일치 동의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1월 5일 열린 제204차 정기회에서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대종사 특별 전형 동의의 건을 각각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무산 오현 스님은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 11대 중앙종회의원과 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를 얻은 혜성 스님은 1956년 조계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3, 4, 5, 9,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도선사 · 호국지장사 · 개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탱화 도난은 사실… 절도 주장은 허위"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10월 30일 공식입장 발표
흥국사 주지 시절 도난 당해
탱화, 불교중앙博 이관해 보관
더 이상 명예훼손 묵과 안해



"흥국사 주지 재직 시절 탱화를 도난 맞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참회한다. 하지만 탱화를 절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단호히 맞서겠다."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이 탱화 절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일면 스님은 10월 30일 이사장실에서 이뤄진 차담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그간의 정황과 소회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흥국사 주지 재직 당시 문제의 탱화 2점을 도난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분명 저의 과오이며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여러 번 참회의 마음을 밝혔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흥국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의현 스님 3선 반대에 앞선 일로 19개월동안 임명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도난 사실을 보고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게 일면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당시 선천적 간질환과 우울증이 동반돼 심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세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보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어떠한 이유라도 성보를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 훔친 사실도 없다"면서 "탱화를 분실하는 오점을 남긴 것을 수행자로서 치욕으로 여기며 지금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데 왜 탱화를 훔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논란이 된 탱화 2점은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 위탁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일면 스님이 제시한 유물보관 증서에 따르면 봉선사에 보관된 일직사자도와 월직사자도가 10월 29일부터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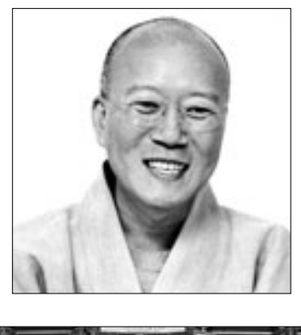
더 이상의 명예훼손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일면 스님은 "일부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되찾기를 원한다.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든 엄격히 처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일면 스님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했다. 문제의 탱화를 소지했던 비구니 스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몇 번 봤을 뿐이다. 안면 정도 있는 사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상 포교대상 수불 스님 · 염불만일회

진흥원, 11월 4일 수상자 발표… 특별상 故 각현스님
13일 마포 다보원서 시상식
수불 스님 수상금 전액 기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사진 위〉과 전국염불만일회〈사진 아래〉가 제13회 대원상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4일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대상 출가 부문 대상에는 안국선원 선원장이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재가 부문 대상에는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가 선정됐다. 출가 부문 특별상에는 2014년 입적한 故 각현 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이사장)이, 콘텐츠대상 특별상에는 페이퍼아트 작가인 박명옥 씨의 종이 조각 '사유관세음보살상(조명 겸용)' 이 선정됐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콘텐츠 대상 수상작은 선정되지 않았다.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수불 스님은 서울과 부산에 선원을 개원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 십 년간 한국 선(禪)의 대중화를 이끌며 선 수행을 통한 포교에 힘을 쏟아왔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인재 불사, 군포교 등 젊은 불교를 위한 삼보정재의 올바른 회향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故 각현 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이사장)은 1990년대 초,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개원을 시작으로 불교사회복지에 몸담아 2014년 입적할 때까지 25년간 사회복지에 헌신했다.

재가 부문 대상인 전국염불만일회는 명맥이 끊어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염불결사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로가 인정됐다. 콘텐츠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박명옥 씨의 종이조각 '사유관세음보살상' 은 관세음보살과 사찰 꽃살문 등 전통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면서 종이를 활용해 만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특별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식은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나머지 500만원은 나눔의 집에 기탁하겠다고 11월 6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분한신고 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정기총회에서 종단명칭을 선교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모든 재적승 및 선교승을 대상으로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고 기간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 및 서류심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

(2) 신고대상 : 종단내 모든 재적승려 및 선교승

(3) 제출서류
① 분한신고서 ② 수행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3장
④ 현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4) 신고방법
신고인은 신고서류 를 구비하여 재적교구 종무원에 제출하며 그 외 신고인은 총무원으로 신고합니다.

(5) 주의사항
① 신고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한신고 시행원칙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② 승적 말소란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6)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041)566-2277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태고종 총무원장 · 비대위원장 구속

11월 3일 구치소 수감… 종단 초유 사태 발생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내홍으로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고종의 양측 수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돼 종단의 향방이 미궁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월 3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대위 위원장 종연 스님을 서울구치소에 함께 구속 수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과 2월, 양측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 과정서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소 · 고발을 당한 도산 스님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도산 스님의 폭행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0월 29일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 모두 구속에 이른 것이다.

집행부 수장인 도산 총무원장 스님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구속됨에 따라 종무행정

구속 직후 부원장이 권한 대행
"종단 종무행정 공백 없을 것"
오는 12월 13일 중앙종회서
총무원장 재신임 결과 '주목'

에 차질을 빚어 종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걱정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태고종은 현재 내홍중이지만 양측 합의에 의해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 등 화합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중이어서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하지만 양측 수장의 구속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태고종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는 냉랭한 분위기를 초래했다.

익명을 요구한 태고종의 한 중진 스님은 "정말 태고종도라는 말을 신도들 앞에서 하기가 부끄럽다. 갈등과 내홍도 모자라 폭력 사건으로 양측 수장이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중앙종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재신임을 묻는 등 종무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양측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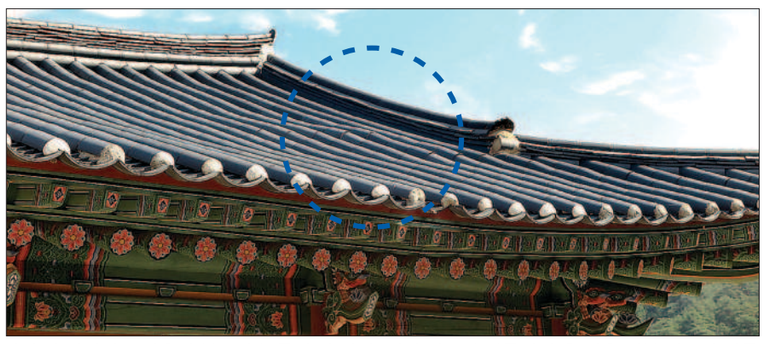
실제로 태고종은 11월 11일까지 제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12월 열리는 첫 중앙종회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상임종무위원 법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구속됨에 따라 종헌종법에 의해 부원장 호명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종단 안팎의 우려처럼 종무행정이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1월 6일 현재 22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중 3곳을 제외하고는 원만히 종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법담 스님은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선거를 마치고 12월 13일 경 중앙종회가 예정대로 개원되면 그 때 제 1호 안건이 총무원장 재신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도산 스님이 구속됐지만 계속 신임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다릴 것이나, 불신임으로 결정되면 신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체제로 돌입해 하루빨리 종단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도 1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태고종단을 존폐의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며 "하지만 함께 구속된 종연 스님은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태고종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승전 기와지붕 가운데 부분이 불룩 솟아 있다. 기와 지붕이 불룩히 솟은 것은 내부 기둥이 뒤틀리거나 습기로 팽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불교교류 상징 신계사, 훼손 심각"

조계종, 11월 3일 신계사 현황 보고… 긴급보존 추진

남북 불교도들이 함께 복원한 최초의 전통사찰인 금강산 신계사의 훼손이 심각하며 긴급보존이 진행돼야 한다는 조계종의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금강산 신계사 건축물 상태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훼손 상황 점검은 지난 10월 진행된 8주년 합동법회에 참가한 조계종의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이뤄졌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2004년 착공 이후 2007년 불사 성만 후 정밀진단을 진행 한 적이 없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법회 개최 차원에서만 방문해 훼손이 심각히 진행됐다. 불사 성만시 전해준 여분 기와도 북측이 보수에 사용하다 모두 떨어진 상태"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신계사 대부분의 건물은 기와 끝을 시멘트로 덧대어 유지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기와 끝을 유지하는 와구토가 유실돼 북측이 시멘트로 임시보수한 전각은 대웅전, 만세루, 극락전, 축성전, 산신각, 종각, 최승전이며, 측면의 풍판에 균열이 생긴 곳은 어실각, 나한전 등이다.

특히 요사채인 수승전은 기와 뿐만 아니라 지붕 내부의 나무가 팽창해 형태가 이그러진 상태다.

당초 신계사는 남북불교계의 교류 뿐만 아니라 남측의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복원 및 보수 기술을 전해 북측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도 진행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정밀진단하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수승전의 경우 이미 지붕 목재가 틀어진 상태이기에 내부에 물이 들어가 썩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의 상징인 신계사가 제 모양을 찾도록 노력해 12월 말까지는 정밀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염화미소법' 원장 선거 혁신 가능하나

조계종 중앙종회, 5일 공청회… 공감 · 우려 '반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위해 제안된 '염화미소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기반에 둔 '염화미소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염화미소법' 제안자인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염화미소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법등 스님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염화미소 선거제도는 총무원장 후보자 검증을 거쳐 3~5인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종정 스님이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종단 호법부와 사회기관의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기존 321명서 501명으로 확대된 선거인단을 통해 계 · 정 · 혜 3명의 최종 후보자군을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이후 계 · 정 · 혜의 후보 3명을 종정 스님이 최종 인가(추첨)하게 된다.

법등 스님은 "종단 신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권위자인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수반을 법력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또한 24교구본사 선거인단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선학원 · 대각회 · 전국비구니회를 참여시키는 등의 선거인단 확대로 보다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첨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종단 상황이 추첨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중앙종회가 종책 모임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종단 구조는 신중

염화미소 선거제, 간선제 확대안
금권선거 폐해 줄이는 종단 불사
궁극적으로 종도 추대제 바람직
"20%이상 득표자 추첨" 제안도

앙집권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진단하고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선거 없이 종도들의 공의를 통한 추대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화미소법에 대해 △선거인단 확대로 선거 열기 과열 △종정 스님의 행정 참여에 대한 부담 △선거인단 1위 후보와 최종 선출자가 달라 여론 이반 현상 등을 우려를 제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기반에 둔 '염화미소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후보 3인에 대해 종정 스님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염화미소가 이뤄진다. 종정 스님의 종단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며 "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가 나오면 어떤 스님이 선출되더라도 종단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문 연세대 교수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대안으로서의 추첨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총무원장 자격을 가진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1명을 선출하는 방안 △자격이 되는 스님 중 일정 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 △예비선거 후 2~3인의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염화미소 선거제와 추첨민주주의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스님은 "일정 수준(법랍 10년 이상)의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2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선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면서 "선거제도가 변화에 앞서 올바르게 운용되기 위해 법을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대전환' 실현 위해 노력"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10월 31일 발족식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0월 31일 화쟁문화아카데미 강당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준비위원장 · 상임준비위원 등을 추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비위원회를 이끌어 갈 공동준비위원장에는 김성규(변호사), 김풍기(강원대 교수),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이정환(대불청 자문위원), 이영철(콘텐츠개발연구원 원장), 박법수 (前 대불청 회장), 전준호(대불청 회장) 등이 추천돼 인준됐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불교의 대전환'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과거 2천년 전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출재가 보살들이 불탑광장에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냉철하게 탁마하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대승불교운동을 오늘날로 호출하고자 한다"면서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참여하고 함께 탁마하는 수행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동력으로 '한국불교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도반들과 함께 신대승불교운동의 깃발을 올린다"고 선언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0월 31일 화쟁문화아카데미 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환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내년 3월 창립을 목표로 두고 있는 신대승불교운동본부는 2020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신비령산 소원성취 천지탑
공든탑을세우는 도량
자비를 나누는 도량

마이산 탑사

회 주 원암혜명 스님
주 지 청파진성 스님
총 무 정해 스님
교 무 보문 스님
홍 보 진송 스님
기 획 진원 스님
대 화 주 태원 박금태 교임
공 덕 주 묘련 강순덕 교임
신도회장 순도문 이순자 보살
나누우리 봉사단장 감로수 윤복길 보살

maisantapsa

[분원]
인천분원 월천사
경기남부분원 태원사
전주분원 실상사
대구분원 혜인정사
부산사하분원 구평사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실상사 실상밴드 봉사단
이쁜손이쁜마음 어린이 봉사단
대구 혜인정사 연꽃 봉사단

[정기법회(음력)]
매월 1일 초하루 탑 사 법회
매월 3일 초삼일 실상사 법회
매월 15일 보 름 월천사 법회
매월 18일 지장재일 혜인정사 천도법회

[봉사회]
김장김치 나눔 봉사회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회
사랑의 백미나눔 봉사회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회
밑반찬 나눔 봉사회
전주교도소 교화 봉사회

종무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번지
연락처 063)433-0012
홈페이지 www.maisantapsa.co.k

일 주 문



조계사 생전예수재 법문

법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스님은 10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진을 주제로 생전예수재 법문을 했다.



설치미술전 '하루헌전' 개최

선진 대구 보현암 주지 스님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설치미술전인 제12회 '하루헌' 전을 개최했다.



진흥원 11월 화요열린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17일 오후7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초청 '11월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성광문 前전북포교사단장 동백장 수훈

성광문 前포교사단 전북지단장은 10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한국조형교육학회 우수논문상

이수경 동국대 교수는 10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2015 한국조형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봉춘 교수,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

12월 17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시상식



'2015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를 펴낸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총 4부로 구성돼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의 흥기와 조선불교의 활동을 세밀하게 다뤘다. 억불숭유과정에서도 그 이면의 불자들의 노력을 다뤘다.

불교사 전환기의 두 지성인 자초와 기화, 불교에 대한 신앙과 불교를 외호한 효령대군, 선교사상과 불유의 융합 조화론을 제시한 허응보우, 구국활동과 교단을 중흥시킨 사명유정, 배불 항론의 대표적 상소인 〈간폐석교소〉를 지은 백곡처능, 조선 후기 선문을 중흥하고 법통을 수립한 경허성우 등이 그들이다.

이봉춘 교수는 "현재의 불교는 조선시대 불교사의 '어둠'과 '우울'을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쇠락'과 '소외'의 지평을 넘어선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 불교문화대학원장 · 대학원장 ·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원효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노인 위한 도량 만들 것"

서울 조계사 신임 주지 지현 스님

서울 조계사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중심으로 성역화 불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들 사업의 실무적 중심에는 지현 스님〈사진〉이 있다. 지현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이자 총본산성역화불사 총도감에 이어 최근에는 종단 직영사찰 조계사의 주지로 임명됐다.

그런 만큼 하루 일과도 바쁘다. 조계사의 경우 아침 8시에 사중 일과가 시작된다. 이미 6시에 조계사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과 회의를 열고 하루 종무 행정 사안을 점검한다. 총무부장으로서의 일과도 9시부터 진행된다.

눈코 뜰 새 없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현 스님은 조계사를 더 나은 도심포교 도량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복안을 머리에 그리고 있다. 실제 지현 스님은 척박했던 농촌사찰인 봉화 청량사를 20년 동안 한국불교 포교의 모범사례로까지 일궜던 '포교의 달인'이다. 최초의 산사음악회부터 최근에는 사찰 첫 모유 수유실 설치, 청량사 어린이 밴드까지 스님이 시작한 포교 사업은 곧 누구나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다.

"조계사는 사중에 활기가 넘칩니다. 일일 자원봉사 인원만 150명입니다. 이들은 직원보다 먼저 나와서 하루 일과를 챙깁니다. 중고등학생들도 70~80명이 법회에 나오더군요. 포교 자원은 여느 사찰 못지 않습니다."



수유실 · 0~4세 어린이집 건립해
가족이 편히 오는 사찰로 '일신'
노년 신도 많아…노인대학 설립
"조계사 밴드 만들어 청량사와 합주"

그럼에도 조계사가 그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게 지현 스님의 주장이다. 먼저 꼽은 것이 노년 계층이다. 노년을 위한 포교 콘텐츠가 부족하는 것이다.

"조계사에는 노년 계층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들을 위한 강좌나 시설이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노년층은 법당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편하게 잠시 쉴 수 있는 법당 내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교대학은 있는 데 노인대학이 없어요. 노인대학도 개설할 생각입니다."

가족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는 봉화 청량사에서의 경험을 십분 살릴 계획이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모유 수유실이다. 가족 단위 참배객, 관광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모유 수유실은 경내 관음전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조계사에 오래 전부터 요구됐던 어린이집 설립도 구상 중이다.

"모유 수유실은 11월 중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위에 회사들이 많은 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드뭅니다. 이를 위해 0~4세를 위한 어린이집 개원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재미'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재미있게 사찰에 올 수 있도록 밴드, 영어 · 중국어 강좌 등을 개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 밴드가 결성되면 청량사 어린이 밴드와 합동 공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현 스님이 그려내고 있는 포교 아이템은 많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법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총본산 성역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 인근 회사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이루는 것도 기획 중이다.

"조계사만의 특성을 하나 하나 살릴 수 있는 불사를 할 것입니다. 인근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계사,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포교 도량으로 조계사를 만들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의 도약, 2017년 완전개원 위해 나서겠다"

태석기 동국대 일산병원장

최근 개원 10주년을 맞은 동국대 일산병원이 2017년 완전개원을 목표로 제2도약에 나선다. 10월 2일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사진〉은 개원 10주년 간담회에서 "조계종 종립병원으로의 정체성을 확고히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병원 위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먼저 공간정비위원회 마련해 2015년 말 까지 노후시설 개선계획을 할 예정이다. 2003년 준공된 이후 상위권 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평가받아온 입원동과 서비스동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 원장은 "요즘 시설은 환자의 입장에서 배치돼야 한다. 특히 일산병원은 환자 30% 이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위치한 서울 · 경기 서북부 지역에는 2018년 가톨릭대 은평병원과 이화여대 마곡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일산지역의 일산 백병원, 보험공단 일산병원, 서남의대 부속 명지병원까지 경쟁심화에 당면해 있다.



2018년부터 병원 경쟁 심화
경영 효율화 위한 노력 지속

태석기 원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산병원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 상태"라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 도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젊은 의료진, 신규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현재 가스시설 개선으로 난방효율화를 이루고, 병원 초창기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며 경영지표가 개선된 상태다.

태 원장은 "흑자전환에만 안주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현 국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현재 800병상 규모지만 1000병상은 되어야 규모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재투자를 위한 경영상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계 종립학교로서의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태 원장은 "병원에서 하는 승가복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캠페인에 불자들이 동참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분당선의 동국대 일산병원역 개통 등 종단 안팎의 역량을 모으는데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한마음 자비의 쌀'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 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한마음 자비의 쌀' 2000kg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0월 28일 김용섭 신도회장 등이 참여해 전달한 '자비의 쌀'은 서구청으로 통해 서구지역 독거 어르신들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지사 비로자나불 점안봉불식



춘천 현지사는 10월 12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점안 봉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안 봉불식을 기해 현지사는 전각 실내외 탈색 단청도 단장했다. 법회에는 자재 만현 스님과 1000여 대중이 참석했으며 헌화의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조계종 26주년 기념 법회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11월 1일 여주 백화사에서 종도스님들과 사부대중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26주년 기념 창종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아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학춤, 섹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진행됐다. 아울러, 덕산 스님과 자명 스님의 축하무대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불교조계종은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지표로 삼아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 1의 종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1인 10명 포교를 목표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3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열반송 詩碑





화암사는 10월 31일 일주문 앞서 '선시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은암 회주 정휴스님(前 불교신문사 사장 · 사진왼쪽서 다섯번째), 윤승근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도송 詩碑



20여 詩碑에 새겨진 조사들 깨달음

고성 화암사 10월 31일 '선시비' 제막식 봉행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지옥의 찌꺼기만 만들고 가네/내 뼈와 살을 저 숲 속에 버려 두어/산 짐승들 먹이가 되게 하라." (고한 희언 선사의 열반송 中에서)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들으매/온 우주가 나 자신임을 깨달았네/유월 연암산 아래 길/하릴없는 들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경허 성우 선사의 오도송 中에서)

수바위로 유명한 천년고찰 미륵도량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전국 사찰에선 처음으로 역대 선사들의 깨달음을 읊은 선시를 감상할 수 있는 '선시의 길'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선시란, 수행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체험된 세계를 언어로 형상화하고 표현한 것을 말한다. 즉 돈오(頓悟)적 직관으로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내심자증(內心自證)된 세계를 언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선적(禪的) 사유(思惟)와 상징성, 압축미 등이 돋보인다. 특히 열반송과 오도송도 이에 속한다.

화암사는 일주문서 절 입구에 이르는 2km 남짓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길 양쪽 주변에 20여개의 시비를 만들었다. 등장하는 선사들 법명만 들어도 존경심에 절로 합장이 되는 근현대의 선지식들이다.

일주문서 법당까지 2km 거리 '선시의 길' 조성
근현대 선사 13명 열반송과 오도송 시비 건립
"순례객에게 깨달음과 비움의 지혜 선사" 취지

보우 휴정 등 고려와 조선시대 선사들을 비롯해 경허 한암 효봉 경봉 성철 일타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에 족적을 남긴 13명 스님들의 깨침을 읊은 오도송과 열반송을 비석에 새겼다. 흥미로운 것은 우측통행이 상식이라면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는 현대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이룬 고승들의 오도송을, 다시 내려가는 길 오른쪽에는 고승들의 열반송 위주로 비를 세워서 사찰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깨달음과 비움의 지혜를 비롯해 명상과 사유의 즐거움까지 만끽하도록 했다.

화암사(주지 웅산)는 10월 31일 일주문 앞 특설무대서 '선시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은암 회주 정휴스님(前 불교신문사 사장), 윤승근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지 웅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주문서 법당으로 가는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올라오는 길에는 오도송의 시비를 읽으며 깨달음을 배우고, 내려가는 길에는 열반송을 보면서 내려놓고 비우는 지혜를 통해 자기 현존을 되돌아보게 하는 명상과 사색의 길을 만들고자 선시의 길을 조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승근 고성군수도 축사를 통해 "불교는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 발심과 정진을 통해 대자유를 성취하는 고귀한 종교"라며 "그런 발심과 수행의 길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찰을 오르내리면서 이 고귀한 글귀들을 가슴에 새기며 치유와 사색의 시간을 갖는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는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의 '가을'을 주제로 한 법문으로 마무리 됐다. 스님은 "떠남과 비움이 있는 가을 처럼 우리도 집착을 털어 버리고 비움으로써만이 자유스러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 주요 내빈과 참가자들은 정휴 스님의 선시비 설명을 들으며 일주문서 사찰에 이르는 선시의 길을 함께 따라 걸었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정휴 스님 법문 요약



"가을은 '체로금풍' … 내려놓음, 비움 전해줘"

벌써 10월의 마지막날입니다. 대청봉에서는 낙엽이 지고, 이 행사장 주변에만 가을의 끝자리를 볼 수 있는 단풍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오색 단풍이 거저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봄에는 새순으로 돋아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천둥과 폭풍이 지나고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타는 목마름이란 역경을 지내고 나서야 가을이 돼서 오색단풍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런 역경을 거쳐야 안으로 여물어 지고 영글어 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항상 그 밑바탕에 슬픔과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운문 선사는 가을을 '체로금풍'이라 했습니다. 가을바람에 모든 만물이 제 모습을 드러낸 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감성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많은 느낌과 의미에 큰 진폭을 갖게 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연설하더라도 이 가을만큼 우리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감동의 진폭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을은 또하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는 계절입니다. 첫째 떠남이 있고, 내려 놓음이 있고 비움이 있습니다. 이 가을 나무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가을나무가 스스로 내려놓고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스러워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세속적 자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안에 갇혀 있는 틀에서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실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처럼 먹고 배설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선 시대가 없었습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은 짐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신적 멘토와 가치가 실종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의 끝자락서 선시의 길을 걸으며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집중을 통해서 자기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사유하고 몰입하고 명상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성숙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시의 길은 짧지만 이길을 걷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찾는 내적 성숙 하시길 바랍니다.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코요히 바총'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예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오리브나무 출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북콘서트, 새로운 포교대안 될까?

일반 대중과 소통의 장으로 확대… 대중적 포교콘텐츠 생산

저자와 독자, 그리고 책과 음악의 만남으로 2010년 이후 성행해 온 '북콘서트'. 최근 2~3년 사이 불교계에도 북콘서트 바람이 불며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님들의 출판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독자들을 직접 만나며 대중적 포교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근래에 북콘서트로 큰 반응을 일으킨 대표적 스님들은 법륜 스님, 혜민 스님, 월호 스님, 정목 스님 등이다. 이미 힐링 · 명상 등 저서를 펴내며 강연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던 스님들은 토크와 음악 공연을 더한 북콘서트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펴내고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일감 스님은 "기존 형식과 다르게 책을 읽은 독자들이 직접 느낀 것을 얘기하고 공감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했다"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작업을 넘어 불교에 대한 흥미를 이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니 더욱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광출판사는 11월 25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원영 스님의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청년출가학교 멘토 스님으로 알려진 원영 스님은 저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발간을 앞두고 있다.

원영 스님의 북콘서트는 불광출판사가 기획하는 첫 북콘서트다. 그간 출판기념 특강, 저자초청 강연회 등 형식의 만남 자리를 꾸려왔으나, 친숙하고 진솔한 얘기를 녹여낸 원영 스님의 책 내용이 북콘서트 형식과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책 콘셉트에 맞춰 '너무 서둘지 않는 삶,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야'를 주제로 삼아 청년출가학교 학생들 및 독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가수 박강수, 테너 안세권, 중국 현악기 '얼후' 연주자 유기비 등 공연 및 염불수행 등 무대도 펼쳐진다.

법륜 · 혜민 스님 등 선두주자
대중 강연서 북콘서트로 이어져
음악, 토크 등 어우러져 '오감만족'
"기존 사찰문화와 접목해야"



일감 스님은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펴내고 지난 8월 21일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대현 불광출판사 마케팅부장은 "북콘서트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져 독자들이 더욱 풍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특히 스님들의 북콘서트는 스님들 책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장이다. 불교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호감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 홍보에서 벗어나 진솔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며 "신선한 소재와 이야깃거리들은 현재 인지도가 높은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북콘서트가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포교 전략으로 내세우긴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책 홍보에만 치중돼 실질적인 포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출판사 이상근 부장은 "북콘서트는 초반 판매율을 높이고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불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효과가 있다고 하기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부장은 "일반 출판시장에서 인기를 끌어온 북콘서트가 불교계로 들어와 포교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기존 불교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며 "요즘 활성화된 산사음악회에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북콘서트를 구성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사찰에선 콘텐츠 확장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최근 진행된 '오대산 문화축전'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 제시했다.

지난 10월 9일~10월 18일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펼쳐진 '오대산 문화축전'은 인형극, 산사음악회, 탑돌이 공연 등과 함께 특별행사로 '오대산 책 읽는 밤 북콘서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조계종 경승 한자리에 모이다

포교원, 10월 29일 '2015 경승초청 세미나' 개최

경찰들을 위해 일선에서 포교를 이끌고 있는 전국 경승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전국 조계종 경승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박병규 유성경찰서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은 "경찰전법단은 경승단 스님들이 법회현황과 포교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포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범했다"며 "오늘 모인 경승 스님들과 경찰 가족들이 밝은 지혜로써 사회 어둠을 거둬내고 상생의 행복정원을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또한 박병규 유성경찰서장은 "불교의 상호 공존, 평화 사상 등은 경찰 업무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며 "경찰불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행하는 결과다. 전법을 통한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경찰 및 가족 일동이 부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아울러 이날 포교원은 전북청 경승실장 원혜 스님, 경기2청 도원 스님, 대구청 중부서 대현 스님 등에 경승 포교를 위해 세운 공로를 치하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박철수 붓다코칭 대표의 '붓다코칭' 강의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포교 방법, 상담 기법,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연설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전국 조계종 경승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숙인 위한 의류지원

연꽃생협, 사찰 기도 후 물품 모집받아 노숙인 · 쪽방촌 전달

겨울맞이에 한창인 요즘, 길거리에서 겨울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 노숙인 및 쪽방촌 주거민 등을 위해 의류 · 생필품 지원에 나선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하 연꽃생협)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류 등 지원하는 '연꽃愛향기(가칭)'를 실시한다. 사찰에서 49제, 백중기도, 천도재 등 올린 후 발생하는 속옷 · 내복 등을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불청과 연꽃생협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속옷 · 내복 · 헌옷 등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아울러 기부물품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격려와 용기를 돋울 '연꽃愛향기 서포터즈(가칭)'도 모집 중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는 연꽃생협 조합원 가입이 필수다. 문의 (02)720-7798

박아름 기자

방생법회, 자살영가 천도 수륙대제 봉행

지장재일 맞아, 300여 불자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방생법회(회장 이건호)는 10월 30일 지장재일을 맞아 한강 수상법당에서 자살과 사고로 한강에 목숨을 던진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추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 박일룡 前경찰청장, 김유혁 前 금강대 총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OEDC 국가 중 자살율 1위에 동반자살,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등이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절망감은 크다"며 "불자들이 우리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보듬는 활동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방생법회 수륙대재는 뭇생명을 모두 살리자는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지장재일은 죽은 이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이 서로를 위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방생법회는 10월 30일 지장재일을 맞아 한강 수상법당에서 자살과 사고로 한강에 목숨을 던진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이건호 회장은 "한강에 투신한 이들이 매년 5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로하는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방생법회는 2014년부터 수륙재와 방생법회 등을 통해 모연한 기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불교계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경임 교수 '부석사 관음상의눈물' 출판

11월 13일 서울 '목금토미술관'서 출판기념회 열어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의 저자 김경임 교수가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서 김경임 교수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근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前 주 튀니지 대사 · 사진)는 1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목금토미술관 4층에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부석사관음상봉안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회에는 교육문화계원로모임 'JPC(회장 윤형섭 · 前 교육부장관)'가 함께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저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은 제337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부석사 불상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입증되면 국내로 반환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여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근 부석사관음상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7월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으로 환부하며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내 사찰이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부석사관음상은 원소유자가 서산 부석사로 명확하다. 김경임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도 불법 반출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관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석사관음상봉안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음상의 특별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연극인으로는 아마추어지만 삶은 베테랑”

종로노인복지관 ‘대학老愛’ 연극 ‘삼시세끼’ 준비 현장

수개월 동안 얼마나 닳도록 넘겼는지, 너덜너덜해져 테이프로 여며 둔 대본. 어느 배우의 손때가 묻어났을까? 다름 아닌 70대 어르신, ‘시니어 배우’들이 남긴 연습의 흔적이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를 일주일 앞둔 11월 5일, 개막작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대학老愛(노애)’을 찾았다. 이날은 새 대본이 배부된 날이었다. 깨끗한 대본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지난 몇 달간 손에서 놓지 않은 낡은 대본을 어루만지며, 새 대본과 함께 품에 앉았다. 자신의 대사에 표시해 둔 형광색, 빨간색 펜들이 그간의 열정과 노고를 말해주는 듯 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복지관)와 공동주최로 11월 12~13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를 개최한다. ‘다시 청춘이다’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어르신문화활성화지원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노인들의 문화예술능력 발현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홍승표 종로노인복지관 홍보담당자는 “그간 일반기관 주최 시니어 연극제나 복지관 내 연극발표회 등은 있었지만, 복지관 주최로 연합적인 연극제가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좋은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극제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을 비롯해 구로 · 동작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노인극단에서 70여 명 노인 단원들이 참여해 노년 이혼, 가족애 등을 담은 다양한 연극을 펼칠 예정이다. 극본 및 연출 경험이 없는 시니어 연극단을 위해 서울연극협회, 예술기획팀플레이, 창작집단36.5 등에서 어르신들을 도와 기획에 힘을 싣고 있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를 7일 앞둔 11월 5일,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대학노애’를 찾았다. 이날 새 대본을 받은 연극단은 예술기획팀플레이 소속 청년 배우 · 연출진들과 함께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가 11월 12~13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을 비롯해 구로 · 동작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노인극단에서 참여한다.

11월 12~13일 시니어 연극제 개최
서울지역 5개 복지관서 참여
서울연극협회 등 전문연극단 ‘합심’
“지속적 문화예술 장 거듭날 것”

이에 종로노인복지관 연극단 ‘대학老愛’는 가족의 애환을 담은 연극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극제 동안 2차례 걸쳐 연극을 펼칠 13명의 시니어 배우들은 지난 7월부터 매일 하루 2~3시간씩 복지관 4층 강당에 모여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주인공 ‘미자’ 아버지 ‘말복이’ 역을 맡은 이관(남 · 74)씨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 내 삶의 가장 큰 낙이 됐다. 호기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길거리를 어가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항상 대본을 들고 다니며 연습하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아울러 연극 ‘삼시세끼’에는 예술기획팀플레이 소속 청년배우 3명과 연출팀 3명이 함께한다.

20대 연극인들은 4개월 간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열정을 함께 꽃피우고 있었다. 탈영병 역할을 맡은 연극배우 김범수(남 · 27)씨는 “어르신들과 연기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인생의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면서 “연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사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 같은 대본을 읽어도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난 감정 연기에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12~13일 진행되는 연극제 일정은 △12일 오전 10시 종로복지관의 ‘삼시세끼’ △12일 오후 1시 동작복지관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13일 오전 11시 양재복지관의 마당놀이극 ‘원통절통’ △13일 오후 1시 종로복지관 ‘삼시세끼’ △13일 오후 2시 구로복지관의 ‘탭댄서 윤일갑이 들려주는 우리네 인생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종로노인복지관 정관 스님은 “노인들은 연극인으로서는 아마추어일지 몰라도 삶에서 만큼은 베테랑”이라며 “이번 연극제를 통해 제2의 청춘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길거리서 겨울 맞는 사람들을 위해

연꽃생협, 노숙인 등 위한 의류 · 생필품 지원 나서

옷장 속 두꺼운 옷을 꺼내며 겨울맞이에 한창인 요즘, 홑겹 옷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겨울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 노숙인 및 쪽방촌 주거민 등을 위해 의류 · 생필품 지원에 나선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와 대불청산하 연꽃생활협동조합(이하 연꽃생협)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류 등 지원하는 ‘연꽃愛향기(가칭)’를 실시한다.

사찰에서 49제, 백중기도, 천도재 등 올린 후 발생하는 속옷 · 내복 등을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불청과 연꽃생협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속옷 · 내복 · 헌옷 · 신발 · 치약 · 칫솔 · 면도기 등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아울러 기부물품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격려와 용기를 돋울 ‘연꽃愛향기 서포터즈(가칭)’도 모집 중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는 연꽃생협 조합원 가입이 필수다.

연꽃생협 측은 “선진국형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노숙인 등을 위한 기본적 식(食) · 주(住)는 제공되고 있으나 의(衣)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를 올린 후 생기는 신변잡화를 기부받아 부처님 연꽃향기가 만방에 풍기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20-7798

박아름 기자

어르신 만남장소 ‘경로당’ 지역주민에 개방

광진노인복지관, 오픈하우스 ‘문화나눔DAY’ 실시

어르신들의 만남 장소 경로당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렸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23일과 30일 ‘경로당 오픈하우스-문화나눔DAY’를 실시했다.

2차례에 걸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발길을 경로당으로 이끌었다.

23일 ‘문화나눔DAY Ⅰ’은 자양4동 제4경로당에서 열렸다. 도시철도공사 답십리기술사업소 밴드동아리 ‘영원한 친구팀’ 공연과 함께 광진초롱꽃학교 지역사회봉사단의 난타공연, 전통거울만들기 등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우성1차아파트경로당에서 30일 마련된 ‘문화나눔DAY Ⅱ’엔 인근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영화 ‘장수상회’를 관람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지역 내 경로당을 열린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경로당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한편, 광진노인복지관은 11월 4일 서울 자양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2015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도 실시했다. KT&G 복지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원스톱지원센터, 정립회관 등 광진구 사회복지관련 기관 7개소가 함께했다.

광진노인복지관 등 7개소는 오전에 김장작업을 실시한 후, 당일 오후에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1천 147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우리 민족 전통 풍습인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 재가어르신, 독거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광진구 내 사회복지기관의 연합 행사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더욱 활발히 조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23일과 30일 ‘경로당 오픈하우스-문화나눔DAY’를 실시했다.

라오스 난치병환아 향한 ‘자비의 손길’

조계종복지재단, 국립아동병원에 의료기기 · 의약품 전달

변변한 치료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저버리는 라오스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조계종이 의료 지원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쏨마니컨 국립아동병원 부원장, 쏨싸이 난치병 치료전문 의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항생제 제조기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료기기, 난치병 어린이 치료용 항생제를 전달했다. 전달품은 라오스 내에서 구입한 것과 유통이 원활치 못한 제품은 한구에서 구입 후 항공편으로 운송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소아암 병동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라오스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의료용 살균 · 소독기조차 없어 2차 감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제조기도 없는 실정”이라며 “보다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보경 스님은 싸이롬 유치원과 난치병환아 쉼터를 방문했다. 2011년 조계종복지재단이 설립한 싸이롬 유치원은 현재 라오스 정부가 자립 운영 중이며, 난치병환아 쉼터는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에서 운영 중이다.

보경 스님은 “간병공덕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며 “재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의료계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처님 자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놀이로 배우는 인성

제 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놀이로 배우는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 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방법과 쉽고 재미있게 교리를 전달할 수 있는 패널시어터, 찬불가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로 함께하는 율동지도와 활용법, 법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재교구전시 등으로 다가오는 2016년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지역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차로 나누어 개최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❶ 일시 / 장소

1차	2차
2015년 11월 21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2015년 11월 28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수원포교당 수원사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0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구시 북구 구암로 238)

❷ 대 상 : 템플스테이, 계층 법회 지도법사, 지도자와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❸ 프로그램
- 인성놀이터 :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법 / 강사 신옥진 〈재미재미 오감놀이〉
- 교리전달법 : 패널시어터 / 강사 이수민 〈패널시어터 마스터〉
-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 강사 진성철 〈크는나무이벤트 대표〉
- 교구교재전시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연수팀

❹ 참 가 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1차 11/18까지 ■ 2차 11/25까지 ■ 사전접수 이후 ~ 당일접수 6만원)
[입금계좌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고3(예비 지도자)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❺ 접 수 : 모바일(QR코드), 이메일, 전화,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지도자 강습회 게시판 참조]
E-mail : burec@daum.net / Fax : 02-738-7863

❻ 문 의 :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참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불기 2559년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 수행기간 : 불기 2559(2015)년 11월 26일 ~ 2560(2016)년 2월 22일
■ 대 상 :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 접수 및 문의 :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 운영사찰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동안거 입재식 일정 및 장소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홍법사
■ 법 문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

※ 90일 수행이력 성취 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인생의 '명답' 있을 뿐 '정답'은 없다

직할교구말사주지 연수 (주제 : 현대인의 공감코칭)

소설가 김홍신 특강

김홍신 소설가는 11월 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공감코칭'을 주제로 인문 강좌를 펼쳤다. 김 작가는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서 "한국인들의 명품 · 성형 중독도 열등의식 중 하나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장과 업적을 이뤄냈다. 역사의식을 되짚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답을 찾으려고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김홍신 소설가는… 충남공주에서 태어나 1975년 현대문학 〈물살〉로 등단했다.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건국대 석좌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사용 설명서〉〈단 한 번의 세상〉〈인간시장〉 등 있다.

밝은 곳 함께 이끌면 '지성'
한국인, 보여주는 것만 급급
열등감 벗어나 자유 찾아야
역사 바로 보며 자부심 함양
지성적 역할에 종교계 책임 있어

지식 아닌 '지성' 갖출 것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설에 '부상가'라는 남신이 '야상가'라는 여신에게 청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곧 청혼을 거절하던 야상가가 부상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면 청혼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상가는 1만년동안 정답을 찾아 헤맸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천신이 갸륵한 부상가의 정성에 정답은 '마음'이라 일러줬습니다.

본래 지성과 교양, 종교적 찬탄의 의미는 어둔 곳으로부터 함께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밝은 곳을 발견해서 홀로 걸어가면 그것은 '지식'이지 '지성'이 아닙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굴에서 문을 열고 나와 밝은 곳을 발견했다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종교의 큰 덕목입니다. 모두에게 밝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성'으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회의 리더로서, 또 종교적 지도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펭귄들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 속에 바다사자 등 천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펭귄은 용감한 한 마리가 먼저 바다로 뛰어 들어가면 군중심리 때문에 나머지 펭귄들도 함께 뛰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감한 자, 현명한 자, 지도자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펭귄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몸이 허약하고 병들어서 등 떠밀려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동물세계에서는 몸이 나약해지거나 늙고 병들면 그들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인류만이 나보다 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는 생존본능만 있을 뿐 종교와 같은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약자를 치료해줄 의사, 제약사, 또 약자를 보호할 경찰 등이 있습니다. 그 와중 종교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행복도가 143개 국가 중 118등입니다. 경제는 놀랄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행복도는 최하위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국인들이 두뇌가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팽창을 하는데, 만족은 늘 멈추거나 후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대비 만족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인물, 학력, 집안, 자동차 등 외부적인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쉽게 빠집니다. 저는 이 열등감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전 오클라호마주립대 연구팀이 약 4년 동안 침팬지에게 140여개의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팬지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할 수 있게 됐고, 침팬지가 내 뱉은 첫 말이 'Let me out(나를 놓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자유를 갈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정신적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적 가치가 필요한 것이고 스님들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정신적 문제가 흩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정신적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족사

'국격'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종교, 철학, 역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입니다.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무려 250배 경제 급성장을 이룩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리적 위치상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분단 상황 속 대륙을 통한 수출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한국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의 존재가치를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 · 사 · 철, 즉 문화예술 · 역사 · 철학입니다. 철학에는 종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작은 영토에서 큰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삼국시대 때 당나라는 우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당나라 황실신료들은 "(한국)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독립을 이뤄낼 무서운 민족이니, 하루빨리 침공을 서둘러 사내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죽이고, 계집은 군사들의 위문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황제도 이에 동의해 고구려와 백제를 침공했고, 고구려 백제의 역사서를 모두 태워버리는 한편, 고구려인만 무려 20만 명을 당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후 발해의 대조영이 나타납니다. 발해는 놀랄만한 발전을 거두어 지금의 북경 위치까지 당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북쪽 연해주 지역으로 더 진출한 형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훗날 '해동성국'이란 명칭을 얻을 만큼 번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도 고구려 부흥군과 백제 부흥군은 신라와 합세해 7년 간 전쟁을 해서 당나라 군사들을 봉천까지 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자 정신입니다.

우리는 민족사를 찾아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바로 국격입니다. 또한 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대업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적이고 따뜻한' 남북통일입니다.

지난 8월 초에 고건 前 총리, 이세준 변호사, 한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일본 시민단체 '피스보트'와 토론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피스보트'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로부터 비롯된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사과를 주장할 만큼 매우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이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평화적 민간교류의 장으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건강한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는 일본 국가였으니 위안부도 일본 여자들을 데려간 것이지 한국 여자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에서 숱한 사과가 있었는데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혼자라도 언제든 일본을 쳐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위해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대륙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숱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이 되면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일본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대외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위해 식량, 산림녹화 등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권익향상도 중요합니다. 실상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아직도 미비한 편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활발히 이끌어 내고, 남북 통일을 이뤄내는 등 과업을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급급한 삶

지구가 평지였다면 그 중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간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서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에 살림해주는 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꽃집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게 꽃을 보냈으니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꽃집에서 꽃이 오면 2cm 쯤 잘라서 꽃병에 꽂아두세요"라고 일러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에이, 이틀이면 쓰레기 될 텐데 과일이나 한 상자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꽃은 매우 행복한 선물이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쓰레기' 일 뿐이었습니다. 꽃은 시들면 치워야하지만 과일을 보내면 아주머니가 시장을 한 번 덜 가도 되니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되지 못한 일입니다. 한 순간 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면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명품 천국, 성형 천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도 열등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들에 애가 탑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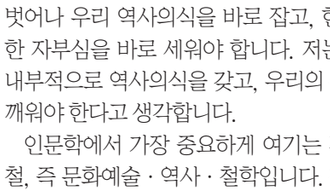
과거에 한 선배랑 선배님은 〈인간 예술〉이란 작품을, 저는 〈인간 붓다〉란 작품을 써보자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작년 1월에도 인도에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던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불가촉천민들은 풀만 겨우 먹고 자란 소들의 거름에 물을 넣고 흙을 게어 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털어내 밥을 먹습니다. 그때 벽에 붙여놓은 소똥 냄새를 맡으려다 코가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른 떼어내 물로 닦았을 텐데, 혹여 넉넉지 못한 사람으로 비출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거기서 향기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는 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거름에 남은 것은 섬유질뿐이었습니다. 그 섬유질에 흙을 개었으니 냄새가 심할리 없었습니다. 그 때 번뜩 깨달은 것이 나에게 악취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욕심을 부려야 하는데 그렇기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남들은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하니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는 악취를 거둬내려면 노력하지 않는 욕구와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시시각각 이러한 깨달음을 느끼고 살면서도 머지않아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님들의 정기적인 법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깨달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어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을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명답'이 있을 뿐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스님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꿀'을 나눠 주시는 이 땅의 가장 찬란한 꽃인 스님들이 부디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아름다운 향기를 만방에 떨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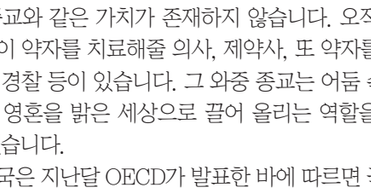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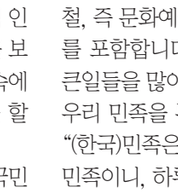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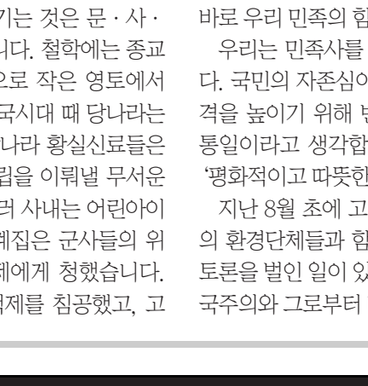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교와 미래경영 학술연찬회

"자본주의 병폐 치유약은 불교경영"

부처님 당시 불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일어선 신흥 '장자' 계급이 뒷받침됐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올바른 경제활동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불교적 경영에 대해 모색하는 학술연찬회가 개최됐다. 불광연구원은 11월 6일 서울 잠실 불광교육원에서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윤성식 고려대 교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안종상 감성경영연구소 대표 등 경영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노덕현 기자


윤성식 유필화 안종상

불교연구원 11월 6일 개최
윤리경영 외 경영이론 제시
노사 · 고객만족 분야 접속

윤성식 "불교경영만의 패러다임 있어야"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는 종교이지만 기독교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경영학이 그동안 모든 학문을 끌어들여 기업경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을 시도했듯, 마지막 남은 영역인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면 연기법과 인연법에 의해 세상이 작동한다고 보는 불교야 말로 참고할 만한 종교"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불교경영학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윤리경영이 불교교리와 맥이 닿아있지만 이것이 불교경영학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불교경영학은 오직 불교만이 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교육훈련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제시는 불교경영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불교경영학의 특색으로 △연기적 시각 하에 문제해결 △중도적 사고와 행위 △끊임없는 이론 생성과 소멸 △정념 소지한 의사결정 △기업이익 극대화가 아닌 공공가치 극대화 추구 △자비에 근거한 관계 등을 들었다.

윤 교수는 "불교는 부처님의 교단 경영이라는 성공신화를 이미 갖고 있다. 불교경영학은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학으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화 "기업문화·노사관계 고객만족에 활용"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소통의 경영 철학을 불교경영학으로 제시했다. 유 교수는 "많은 경영학자들은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를 구분 지을때 기업문화를 본다"며 "불교의 가르침은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립에 활용될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불교 내의 자유스러운 토론문화, 또 평등한 불교인간관에 기반한 노사관계,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리이타에 기반한 고객만족 등 활용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끝으로 "기업의 성과와 기업에서의 생활이 대다수 중생의 행복 또는 고통의 큰 몫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불교는 현대의 기업경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종상 "장경호 거사의 동국제강 불교경영이 선례"

안종상 감성경영연구소 대표는 여기에 대원 장경호 거사의 실제 경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안 대표는 "대원 장경호 거사는 일제시대 관권적 개입 등 악조건에서도 가마니 장사를 했다. 특히 농민들에게 제 값을 쳐주고 성실과 근면으로 임해 일본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갔다"며 "이러한 전통은 동국제강에서도 특유의 가족적 노사관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동국제강은 1993년 노조의 자발적인 증산운동에 사측의 성과급 보상에 이어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과 11년간 무교섭 전통이 생겨났다. 전체직원 15%인 200여 명이 가족사원이며 최고경영자는 한달에 두세 번씩 공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는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가 심어놓은 불이와 인화의 정신이 꽃핀 것"이라며 "불교의 생활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국보 반가사유상, 차이 아시나요?

겉보기에 단순한 83호에 고차원 주조법 쓰여

국립중앙박물관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 심포지엄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한국불교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날까?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된 두 반가사유상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30일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민병찬 연구기획부장은 국보 78호와 86호 반가사유상을 비교했다. 여기서 민 부장은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방법 연구'를 통해 83호 반가사유상의 주조기술이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83호 사질점토 활용 · 통체 제작
78호 머리 몸 연화좌 이어붙여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반가사유상은 모두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육안 관찰과 감마선 사진, 비파괴 형광분석 등에서 기술적인 면이 83호 반가사유상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랍주조법은 흙으로 불상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밀납을 입혀 조각한 뒤 점토를 덧씌우고 열을 가해 점토 밑의 밀납을 빼낸다. 여기에 청동 쇳물을 부어 식혔다가 바깥의 점토를 깨면 완성된 불상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삼국시대 대부분의 중소형 금동불이 이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됐다.

78호 반가사유상은 머리와 몸체, 왼발의 연화좌(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상 자리) 등 세 부분을 따로 만든 뒤 이어붙였지만 83호 반가사유상은 머리와 몸체를 한꺼번에 제작됐다. 또 83호 반가사유상은 78호 반가사유상보다 쇳물이 세밀하게 들어갔다.

이는 제작 초기 흙으로 불상의 형태를 만들 때 83호 반가사유상은 입자가 큰 사질점토를 내형토로 사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히 배출됐고 불상의 두께가 두꺼워 쇳물이 잘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민 병 찬 연구기획부장은 "주석이 5% 가량 함유된 청동을 재료로 한 점에서 비슷하지만 내부 공기 제거, 쇳물의 유동성 확보, 내형토를 확실하게 고정시킨 철심 등의 장치를 한 83호 반가사유상의 기술이 더욱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특별전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설악산문, 한국선종의 전통 이어와"

홍사성 주간, 4일 '설악불교의 귀원정종' 세미나서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오른쪽 사진〉은 대각사상연구원이 11월 4일 속초 신흥사에서 개최한 '설악불교의 귀원정종' 세미나에서 "설악산문은 도의 국사 이후 한국 선종의 성지로 인식돼 왔으며, 설악산은 훌륭한 선적 전통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홍 주간은 〈설악산문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도의선사가 첫 법석을 편 9세기 이후 13세기까지 설악산문에는 많은 고승들이 활동했으며 특히 선승들은 도의영탑 참배 등을 통해 진전사를 해동선종의 조종사찰로 삼았다"고 말했다.

홍 주간에 따르면 당시 고승들은 진전사를 찾아 일정기간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즐겨했다. 실상산문의 홍척국사와 봉림산문의 진경심희선사도 설악산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홍 주간은 "설악산은 수행자들이 한철 이상은 살고자 했던 수행처였음을 의미한다. 굳이 설악산을 선호한 것은 도의선사가 전래한 남종선의 근본도량이자 성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말여초 선림의 인물인 홍척, 수철, 무염, 심의화상 등을 비롯해 염거, 체징, 홍각선사 등이 활동했다. 일련 선사는 설악산 진전사로 출가한 뒤 가지산문의 고승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주간은 이러한 역사와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주간은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전통을 잇지 못하면 허망한 전설일 뿐"이라며 "전국 최고의 선원 운영, 기본선원 유치 등을 통한 전통계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악불교의 귀원정종〉 세미나는 속초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이 2014년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되며 신흥사가 조계종의 시원사찰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다. 신흥사 성립을 시작으로 신흥사 중창조인 성준스님, 신흥사 포교 활동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고판화로 하나 되는 한 중 일

중국 베이징대 11월 27~30일까지 고판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 · 중 · 일 고판화학술대회가 열린다. 중국 북경대학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중일 고판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전통판화시연회 및 고판화관련지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과 10월 한국 고판화박물관과 일본 동경 국문학연구자료관에서 열린 고판화국제학술대회의 연장선상이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원주 고판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한 · 중 · 일 학자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동아시아 고판화연구회가 주축이 돼 마련했다. 한 · 중 · 일 삼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고판화 국제 학술대회는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고판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의 '한중일 고판화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의 '조선시대 불화에 미친 불교 판화의 영향' △웡리엔시(翁連溪)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 연구원의 '중국 궁정판화의 연구' △이리구치 아쓰시(入口敦志)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의 '일본 삽화판화의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중국 수도박물관 대장경 전진기지, 중국 인쇄박물관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선학 한국고판화학회 회장은 "삼국의 고판화 전문가들이 협력해 동아시아가 세계 속에 자랑하는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를 다시 한번 꽃피웠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2014년 한국에서 열린 고판화 국제학술대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120여 학인 스님 구도열기 모아져

제27회 전국승가학인연합대회 10월 29일 화엄사에서 성료


10월 29일 화엄사에 운집한 학인 스님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우의증진 · 단합 목적 매년 개최
금강경 독송 · 법고 경연 등 진행
"학인스님 만남의 장으로 발돋움"

전국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구도열기를 내뿜었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회장 우성, 화엄사 승가대학)는 10월 29일 화엄사 일원에서 '제27회 전국 승가 학인연합회 대회(이하 학인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송광사, 중앙승가대, 통도사,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법주사, 경주 동국대 등에서 120여 학인스님이 참여했다.

학인대회는 각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의 우의를 증진하고, 단합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1회 열리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연, 금강경 독송, 법고경연에 이어 30일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학인스님들은 29일 오전부터 화엄사에 도착해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며 도반들과의 이야기꽃을 피웠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대부분의 스님들이 도착한 가운데 방사를 배정받고 개회식을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승가학인연합회 회장 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학인스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오후 1시부터는 학인스님들의 공부역량을 서로 알아보는 경연 시간이 펼쳐졌다. 염불, 법문, 서도, 역경 등 4가지 종목에 각 대학의 대표자 1명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염불과 법문은 자유주제로, 서도는 화엄경 현수품 중 한 구절을 화선지에 담아내는 것이고, 역경은 치문경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경연은 화엄사의 각황전, 화엄원, 보제루, 범음료 등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연에 이어 대웅전 앞 마당에서는 화엄사 대회의 특징인 참가자 전체의 금강경 독송이 진행됐다. 120여 학인스님들의 합송을 통해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화엄사를 참배한 많은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독송에 앞서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사회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장밋빛 환상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학인스님들이 초발심으로 수행자의 엄정한 위의를 갖추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곡스님은 인사말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보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큰 그릇으로 학인스님들이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오후 4시 각 대학에서 2인씩이 참여하는 법고 경연대회과 체육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우성 스님은 "어렵게 진행하는 학인대회가 올 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서 계속 이어서 개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체 학인들이 참여하는 만남의 축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개최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소원나무 워크샵'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과 아산면 희망나누리위원회(위원장 강국신)는 10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아동의 꿈을 키우는 '소원나무 워크샵' 을 진행했다.

2015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의제사업으로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산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산면희망나누리위원과 20여 아이들이 모여 아이들의 소원을 듣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나만의 소원나무를 만들고 축구장 관람하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수학학습히기 등 '소원나무 꾸미기 & 선포식' 을 진행했다.

대원 스님은 "아동의 소원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각사, 스리랑카 카티나 법회



광주지역 거주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카티나 법회가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11월 1일 불교회관에서 카티나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9월 취임한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를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스님 13명, 근로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남방불교 전통인 카티나 법회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름철 우기(雨期) 안거가 끝난 뒤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행사는 스님들을 법단으로 모시는 의식에 이어 삼귀의, 오계, 〈자애경〉을 팔리어로 합송, 법문 등이 스리랑카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 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남대 치의과 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치과진료봉사, 광주조은안과 안과 진료봉사, 뜸사랑봉사회의 한방진료봉사와 광주전남 포교사단의 미용봉사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화사 학부모 위한 정목 스님 초청법회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10월 25일 대웅전에서 '힐링 멘토' 로 불리는 정목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했다.

연화사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법회는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 라는 주제로 진행돼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상처받고 지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화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해 사찰신도, 지역주민 300여 명이 동참했다.

명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연꽃과 같은 정목스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편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수사 삼존불 점안법회… 11월 4일 개원

곡성 무수사(주지 혜문)는 11월 4일 개원과 함께 삼존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유근기 곡성군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불교의례, 점안의식(집전 혜안, 청림), 명선 스님 선무, 음성공양,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원한 무수사는 대지 3000평에 대웅전과 요사체 2동 등이 들어섰다.

혜문스님은 인사말에서 "무수사를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노인을 위한 봉사, 신앙체험 공간, 영 · 호남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회 후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진국이, 김국환, 인드라스님, 진시몬, 박정식, 진성, 연주가 신유식 등이 참여해 지역주민을 위한 흥겨운 공연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 대법회로 지역불교 활성화 기대"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



"순창지역은 호남지역에서도 가장 교세가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지역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 순창 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은 10월 29일 교계언론과의 만남에서 순창불교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우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창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2만 3000명 규모의 농촌지역으로 이 중 개신교회 75곳, 천주교 성당 1곳, 원불교 교당 2곳, 향교 1곳 등으로 개신교세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청암 스님은 지난 5월 순창사암연합회장에 내정됐지만 메르스 여파로 장덕사가 있는 장덕마을 출입이 통제돼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스님은 고민 끝에 11월 24일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초청해 이웃과 지역,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한마음 대법회는 황숙주 군수 등 지역기관장들과 이웃 종교지도자, 지역불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법회가 될 예정이다.

"순창지역은 노인인구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350가구에 달하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춤형 포교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전인문학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순창사암연합회는 2016년도 중점사업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 붓다의 힐링명상, 불교문화유적답사, 템플스테이,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전란희생자 위령재,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 65년 만에 복원

11월 1일 낙성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실 아픔 간직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소실된 전북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이 65년 만에 복원됐다. 완주 안심사(주지 일연)는 11월 1일 안심사 대웅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무관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백흥암 선원장 영운 스님, 대전 비구니 청림회장 효경 스님 등 스님들과 김대귀 완주 부군수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안심사 신도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테이프 절단, 경과보고, 공로패 전달, 축사, 법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심사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172㎡ 면적의 2층 중층 팔작지붕 형식으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의 삼존불과 후불탱화가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된 삼존불은 해인사 무관 스님의 집전 하에 전통방식으로 조성됐다. 대웅보전 복원은 2009년 착공한 후 건축비 40억원, 단청사업비 12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6년 동안 진행됐다. 이중 대웅보전 내부 닫집과 수미단, 삼존불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마련됐다.

일연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작전상 아군에 의해 소실된 것을 65년 만에 복원됐다. 이는 많은 이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장엄한 법당과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내기위한 발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진리를 바로알고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 무명심을 타파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법회 후에는 명상음악가 윤세계 등이 출연하는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기념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한편, 안심사 대웅보전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3일 국군 8사단 88연대 3대대의 작전 중 소각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일심화합 묘음으로 중생 제도 앞장 서자”

천태종, 10월 31일 제12회 천태예술제 개최



천태종은 선율로 화합하는 제12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삼광사 경내 5000여 대중 운집
웅장한 무대에서 교성곡 선보여
삼광사 신도회 창립46주년도 진행

아름다운 묘음 화합의 소리가 삼광사 경내를 가득 채웠다. 10월 31일 깊어가는 가을 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의 경내는 자주 빛 고운 한복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800여 명의 합창단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삼광사 뒤 백양산에는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조명에 가을의 산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합창단을 맞아 야외무대에 자리하고 앉은 5000여명의 사부대중은 힘찬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시월의 마지막 가을 밤 부산 삼광사 지관전 앞 야외무대에서 ‘제 12회 천태예술제’를 봉행했다.

예술제 1부는 교육부장 장호 스님의 사회로 △식전행사(삼광사 바라무 천수바라 시연)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기원 △인사말 △치사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 공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 설법이다”며 “올해는 개산 7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한해로 대조사님의 광대무변한 위신력을 다시 한번 기리고 소중히 간직하고픈 종도들의 바램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천명의 합창단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선사 할 수 있는 힘도 각자가 맡은 파트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존중과 협력으로 화합을 이루는데서 마들어지는 것이다”며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중이 함께 살아가면서 무지개와 같이 ‘다름이 아름답다’는 화합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는 천태예술제 오프닝 동영상을 시작으로 전국 천태합창단의 △묘법 연화의 노래 △빛과 생명의 노래△기상의 노래 △정진의 노래 △자비의 노래 △구인사 창건의 노래 △오도의 노래 △중생귀의의 노래 △천태종 창건의 노래 △장엄 불사의 노래 △열반의 노래 △상월원각대조사 찬(讚)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원력을 담은 교성곡들로 구성되어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또한 합창곡 중간 중간에서는 유강진 성우의 목소리로 성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구인사의 발전 과정이 소개됐다.

삼광사 김미덕(67)씨는 “그동안 삼광사는 다니며 설법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던 천태 사상과 내용을 음악과 함께 설명을 해주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며 “아름다운 선율은 또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더욱 기쁨 환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천태예술제에는 천태종 말사 삼개사 · 거광사 · 장흥사 · 장엄사 · 청강사 등 34개 연합 합창단이 참가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성악가와 부산페스티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하연 국악단의 합연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한편, 삼광사(주지 무원 스님)는 11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6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통해 삼광사는 이웃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 할 것을 서원했다. 하성미 기자

역대 조사 가르침 기리고 새 전법 원력 다져

부산 해운정사, 제1회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재 개최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은덕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선종본산 해운정사(주지 도무)는 11월 5일 해운정사 불심인 조사전에서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진제 스님, 원로 의장 밀운 스님, 원로 부의장 원명 스님, 명선 스님 등 원로 스님 17여 명과 내빈 국회의원 배덕광, 동명대학교 설동근 총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권기선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해운정사 최초로 열린 ‘불조 심인 전등 다례대재’는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더욱 정진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다례재는 주지 도무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종정 진제 스님의 헌화와 원로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또 헌다, 능원 스님의 발원문, 축원, 원로 의장 밀운 스님의 헌사, 내빈 축사,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진제 스님은 “태고 선사의 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경허 성우 선사에 이르러 아손(兒孫)이 번성하니,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선풍을 널리 선양하여, 한국의 선법이 만방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헌사를 통해 “그동안 스님들이 조상 다례재를 소홀히 해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각 선조님들의 정신과 뜻을 되새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뭇생명의 행복과 안녕 기원합니다”

창녕 무심사, 우포늪에서 제4회 생명사랑 수륙대재

창녕 무심사(주지 무심)는 11월 1일 창녕 이방면 장재마을과 우포늪에서 제4회 생명사랑 · 행복기원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심사는 매년 뭇 생명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재를 열고 있다.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고를 시작으로, 부산 서래암 범수 스님 외 스님들과 부산 조영선 예술단 단원들의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장재마을은 매년 11월 풍년제로 고기잡이 배타기, 고기잡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심사는 10월 25일 제2회 산신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신재에는 인근 우포정사 대영 스님과 손태환 창녕군의회장, 노흥석 이방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귀한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여 윤회와 업보에 끄달리지 말고 매사를 사랑으로 베풀라”며 “열심히 정진 기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부 산사음악회 식전에는 무심사 접근도로에 사찰을 안내하기 위한 ‘무심대장군 무심여장군’ 장승 점안식도 진행됐다. 음악회에서는 무심 스님의 법고 경연과 함께 색스폰 연주동호회의 공연과 승무 민요 가요 합창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역 단신

지역민 위한 자비의 해수관세음 입상 점안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5일 원오사 경내에서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의 증명은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법문은 통도사 법산 스님(경봉문도회 회장)으로 이어졌다.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조성과정은 이렇다. 2013년 경내 주차장 공사 중 지하수가 발견됐고 개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못이 형성됐다. 이후 5월 연못을 정비했으며 그 가운데 해수관세음보살 조성 불사를 진행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특별히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것은 이 지역이 소외계층이 많은 곳이다”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지역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원오사 불자들이 함께 자비심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셨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군불교聯, 지선 스님 초청대법회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재순)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초청해 11월 5일 부산 기장군청에서 제7회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기장불교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 20여명과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불자들은 기복을 넘어 마음 수행과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바른 불교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테라와다불교 까티나 가사 법요식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사사나)는 11월 1일 부산 ‘붓다의 길 따라’ 선원에서 ‘까티나 가사 법요식’을 봉행했다.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남방불교에서 하안거 해제 후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으로 한달 기간에만 열린다.

이날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는 상가라자 도성 스님, 아짠 빤냐와로 진용 스님을 비롯해 테라와다 상가 스님 12명이 참석했으며 불자들 100여 명이 가사를 공양했다.

진용 스님은 “법을 환희심으로 듣고 수행을 하며 어떤 경우에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거조사 나한대재… 500여 명 일심기원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9일 영산전 앞마당에서 나한대재를 개최했다. 이날 나한재에는 거조사 회주 법타 스님을 비롯해 죽림사 회주 법의 스님, 불굴사 주지 덕조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관 스님은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자는 보조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수행가풍 정립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거조사 회주 법타 스님은 “나한재는 한국불교 전통의 뿌리로 모두 함께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가길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나한재에 이어 2부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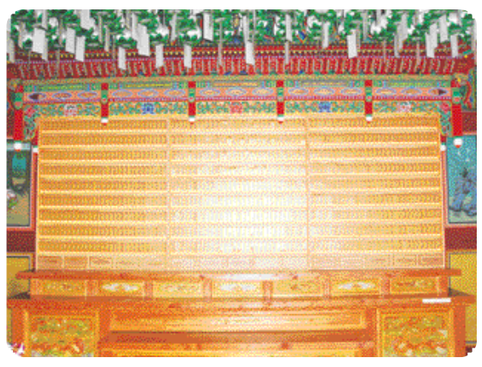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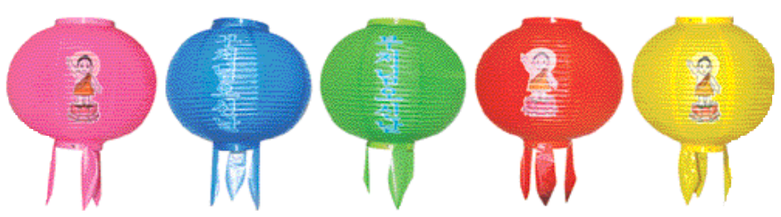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마음이 제 길 들어서면 정진은 저절로 따라와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㉕ 용마를 얻은 삼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현장법사 모시고 험한 여정 헤치고 사반산 응수간이라는 곳에 도착했네. 뱀이 똬리를 튼 산(蛇盤山) 속, 매가 날아 넘기를 근심하는 산골 깊은 물(鷹愁澗)이라.

잠시 말을 내려 땀 식히고 쉬는데 용 한 마리 나타나 현장법사를 채가려 한다. 놀랜 손오공 현장법사만 안고 피하니 용은 현장법사 대신 말을 안장 채 꿀꺽~큰 일이 났다.

그 험하고 먼 길을 탈것도 없이 어찌 간단 말이냐. 분기가 치만 손오공, 온 산골 물 뒤집으며 범인 수색, 견디지 못한 용 뛰쳐나와 손오공과 드잡이질… 그렇지만 하늘을 뒤엎은 손오공을 당할 길 있나. 꼬리말고 달아나 꼭꼭 숨어라!

이러니 수가 없다. 더더욱 화가 치민 손오공~사방의 토지신들 호출하여 닦달한다.

토지신들 여기에 용이 있게 된 사유를 아뢴다. 관세음보살님이 용을 풀어놓았다고. 경 가지러 갈 사람을 도울 용이라고. 결국 관세음보살님께 사자가 파견되고 보살님께서 달려오신다.

보살님 만난 손오공 한바탕 화풀이 푸념. 어찌하여 대자대비 화신인 당신이 못된 사기를 쳐서 내 머리에 쇠 테두리를 씌워 괴롭히느냐. 보살님이야 할 말씀 넘친다.

이미 약자가 된 손오공이 이길 길도 없다. 결국 말문제로 돌아가니 보살님이 용을 불러낸다. 결국 원인은 용이 현장법사 일행을 몰라본 탓이라 몰랐다는데 어쩔 것인가? 본디 용의 임무는 현장법사 태우고 가는 말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 관세음보살 신통력을 부리신다.

짜잔~용님이 말님이 되셨으니 정말로 명실상부한 용마(龍馬)로다. 어허~ 경사 났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된다더니 서역 먼 길 갈 튼튼한 용마를 구하였구나.

대략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들어보셨나? 마음을 원숭이라 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뜻은 말과 같다고.

마음 원숭이가 제 길로 들어섰으니 그 다음 올바른 뜻이 서기 마련이지. 여기서 용마를 얻었다 함은 인도를 향해 경을 가지러 묵묵히, 변하지 않고, 꾸준히 길을 가는 바른 뜻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머리에 금테두리 씌워진 손오공, 이제 팽개치고 달아날 길은 막혔네요. 우리 걱정도 덜었네요. 서유기 이야기하면서 손오공 성질 피우고 달아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끝나 버리잖아요? 하하. 아무튼 이제 인도까지 가는 것은 틀림없으니, 맘 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새롭게 출발한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사반산 응수간이란 곳에 이르렀네요. 앞에 설명한대로 뱀이 똬리 튼 산, 매가 근심하는 산골 깊은 물이라는 뜻이지요. 왜 매가 근심하는가는 설명이 필요하군요. 물이 하도 맑아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자기 짝이라고 착각하여 물로 뛰어든다네요. 그러니 걱정이 될 만하군요. 인도로 가는 길의 험한 자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 험한 여정 속에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기도 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말이죠.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분부 받고 중국으로 오던 길에, 죄지어 죽을 운명에 처한 용을 구해 풀어놓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바로 여기가 거기예요. 용이 응수간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용이라고 해서 별 수 있나요? 굶주리면 먹어야 하고, 지나가는 짐승들 잡아먹고 살 수 밖에요. 그러던 참에 현장법사 일행이 도착하였으니, 이거 원 떡이야 하고 달려들 수밖에요. 원래 용은 말은 좋아하던가요? 백마강의 전설에 그런 이야기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손오공이 황급히 현장법사 모시고 피하는 바람에 큰 재앙은 면했지만, 말은 용님께서 꿀꺽해버리셨네요.

'말(馬)'은 바른 정진 · 뜻 의미
깨달음 지향하는 마음과 함께해
"초발심시변정각의 대목 떠올려야"

정말 큰 일이 난거죠. 말이라는 탈 것 없이 현장법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곤란한 상황에 현장법사가 은근히 손오공 염장을 지르시네요. 넌 하늘을 뒤집어엎었다더니, 말 도둑 하나도 어찌 못한단 말이냐!

자존심에 상처까지 받은 손오공, 응수간을 온통 뒤집어엎어 버릴 기세네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뒤집어 놓으니 용도 화가 나서 달려들지요. 그런데 손오공이 어떤 인물이예요? 아니 원물(猿物)이예요? 하늘의 난다하는 신장들도 당하지 못한 존재지요. 용이 신통력이 제법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리가요. 그래서 겁먹고 도망가서는, 아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작전으로 나가네요. 이 작전에는 정말 묘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고 숨는데는, 그 몇 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더욱 화가 난 손오공이 토지신들을 집합시키네요. 여의봉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도대체 저 용의 정체가 뭐며, 어찌하여 이곳에 용이 있게 된 건지를 물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용이 관세음보살께서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도로 경 가지러 갈 사람 도우미로 예정된 것이라네요. 더더욱 속이 뒤집힐 이야기지요. 그런 녀석이 말을 잡아먹었으니 말이지요. 결국 관세음보살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현장법사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여 곤란해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께서 은밀히 현장법사 보호를 위해 파견해 두었던 금두게체라는 신이 나서서 관세음보살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급하게 달려오시죠.

관세음보살 만난 손오공, 할 말이 많습니다. 손오공 생각엔 금테두리 머리에 두른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된 것은 일종의 사기라 여겨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죠? 대자대비의 화신이라는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보살의 변명, 아니 응수를 들어볼까요? 대략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원숭이야! 너를 오행산 아래서 꺼내 준 것이 누구더냐? 그리고 당나라 성승을 도와 경을 가지러 가게 한 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야. 네가 요괴를 벗어나 올바른 길로 접어들게 만들도록 한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지.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면 따를 줄 알아야하는데, 너는 전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대로 두면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라도 씌우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정도로 돌아오지 못할게다. 그러니 그 쇠테두리 쓴 것은 네가 불러들인 네 과보요 네 팔자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렴. 그 덕분에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니 그거야말로 너의 큰 복이 아니냐? 그렇게 알아라!"

손오공? 할 말 없음? 그렇지야 않겠지요.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사기로 이런 걸 씌우는 건 아무리 날 위해서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궁시렁 궁시렁…." 이런 말들이 입속에 맴돌 겁니다. 하하. 그렇지만 이미 금테두리 써버렸으니 어쩐대요? 이미 칼자루는 상대편으로 넘어 갔거든요? 이런 때는 할 말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정도는 손오공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마음 원숭이가 적절한 통제를 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서도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 부러워해야 할 큰 복입니다! 우리들 통제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비록 강제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그 고통 받겠다고 줄줄이 나설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것만이 복이 아니지요. 그것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래요!"

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되겠군요. "그래도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겠다. 내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결과가 좀 이롭다고 하여 쉽게 내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오공의 금테두리는 단순한 자유의지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 이 경우와는 다르지요. 현장법사의 뜻에 부응하여, 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려 마음에 일종의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손오공이 주문 외우면 조여드는 금테두리 머리에 쓴 것은 역시 큰 복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관세음보살에 대한 손오공의 항의는 완전히 묵살됨! 하하, 당연한 결과지요. 이야기는 결국 말 잡아먹은 용으로 돌아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통력으로 용을 말로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용마가 나옵니다. 훌륭한 말을 용마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용이 변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용마를 얻는 이야기는 서유기 작자가 깔아놓는 회심의 숨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다면 뜻은 말에 비유됩니다. 어디로인지 달려 나가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하여 의마(意馬)라고 합니다. 합해서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마를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뜻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디로 방향도 정하지 않고 달려 나가던 뜻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뜻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한다 할까요? 이전의 뜻과는 격이 다른 뜻이, 정말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높고도 큰 뜻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마지요. 평범한 말과는 다른 말, 용이 변해서 된 말이지요! 이제 현장법사는 그 용마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꾸준히 나가는, 물러서지 않는 큰 뜻을 말로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손오공이라는 마음이 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를 뜻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근본이 되는 큰일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꾸준히 나가는 것일 뿐이요, 그것은 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것은 본디 실체가 없는 것이니…. 여기서 이미 일은 마쳐진 것이라고나 할까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 처음 마음을 내는 때가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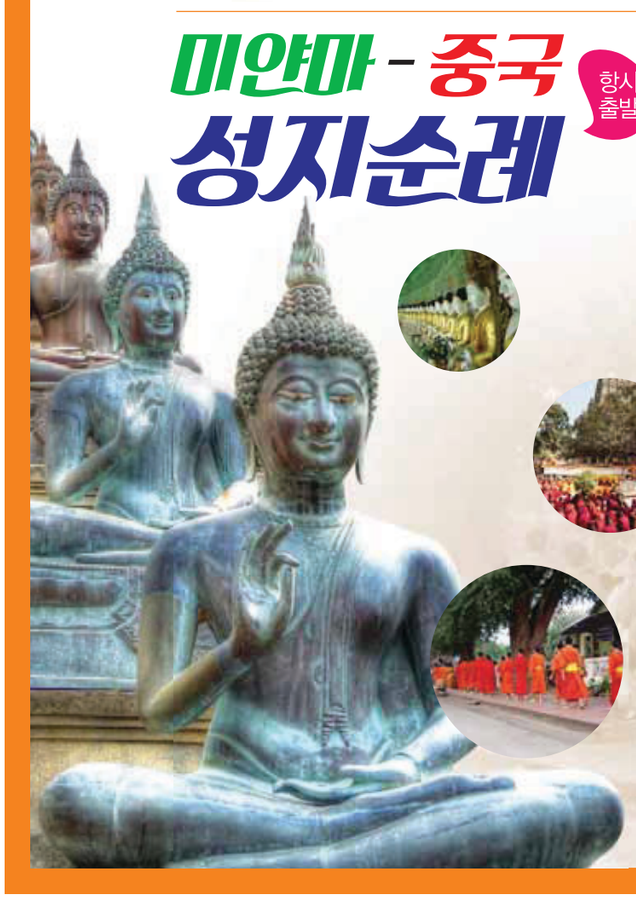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지 서유기에는 이 대목에 생뚱맞게 다음과 같은 찬탄이 붙어있네요.

"진여는 피안에 오르고, 불성을 깨달아 영산에 이르는구나"

이제 나머지 정신적인 요소인 탐욕-계율의 상징인 저팔계와 성냄-집중된 마음의 상징인 사오정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둘을 만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네요. 기대하시라~개봉박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선물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탐·진·치서 벗어나면 행복은 커진다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5〉

붓다의 답변은 세 단계로 펼쳐지고 있다(구분을 위해 본문에 임의로 번호 추가). 첫 단계는, 자기 삶에서 발생하고 직접 검증되는 경험과 무관한 것들을 진리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을 삶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험적 변화를 이로움/해로움의 기준으로써 판단하라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이로움/해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탐욕 · 분노 · 무지라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붓다가 열거하는 진리판별의 부적절한 근거들은 모두 직접경험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기대어 진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붓다는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어떤 가르침의 진리치를 판단하려면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경험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경험적 결과가 해롭고 괴로운 것이면 진리답지 못하다고 보아 외면하면 되고, 이롭고 행복한 것이면 진리답다고 보아 수용하면 된다는 것이 붓다의 조언이다.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문제풀이의 실제결과'를 기준으로 해법 · 진리의 타당성과 수준을 판정하자는 프래그머티즘의 정신은, 붓다의 관점과 분명 상통한다.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로움과 해로움, 행복과 괴로움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 문제풀이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그 기준이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증대되면 될수록 해로움과 괴로움이 커지고, 탐욕 · 분노 · 무지에서 풀려나면 날수록 이로움과 행복이 커진다는 것이 붓다의 관점이다.

경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될 수 없는 것은 진리판별의 기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경험주의 원리, 삶이라는 문제상황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험적 결과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탐 · 진 · 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해법의 진리치를 판단하라는 실존 실용주의 원리. – 붓다의 진리관은 이 두 원리를 조건으로 수립되어 있다. 집단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집단이 고안해 낸 논리와 주장의 허구 비판, 연극집단의 자기옹호 논리에 대한 비판, 상반되는 진리 주장들을 처리하는 방법, 개종의 문제, 논리의 승리와 삶의 이익의 승리 문제 등을 처리하는 붓다의 설법에는 일관되게 이러한 진리관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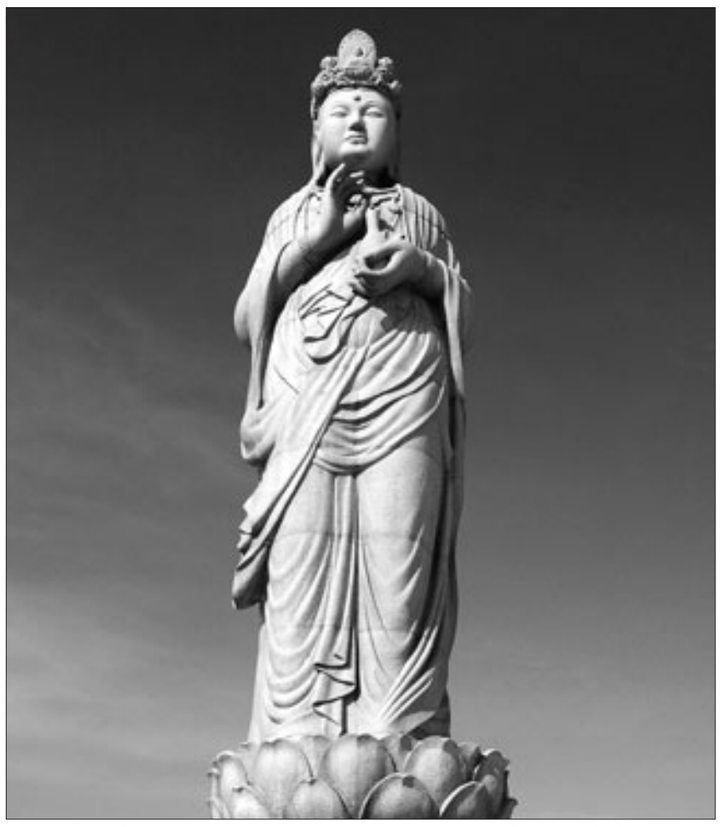
3. 자아환각과 탐욕 · 분노 · 무지

실존 왜곡과 오염의 원인들이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붓다의 통찰은 충분히 타당하다. 삶의 모든 해악적 상황은 결국 개별화 · 집단화된 탐욕과 분노 및 무지의 표현 양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붓다는 진리의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탐 · 진 · 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러한 붓다의 입장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탐욕 · 분노 · 무지의 철학적 의미를 가급적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채워지지 않은 감각적 욕망 ·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 탐욕을 좌절시키는 것들에 대한 부정충동이 분노, 사성제에 대한 몰이해가 무지라는 것이, 아마도 탐 · 진 · 치에 관한 이해의 전형일 것이다.

탐 · 진 · 치의 발생조건에 관해서는 붓다의 명확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감각능력(六根)과 대상(六境)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세 가지 느낌(즐거운 느낌 · 괴로운 느낌 · 즐거움과 괴로움에 쏠리지 않은 느낌), 그리고 인식 성립의 초기조건인 표상(nimitta, 相)이, 탐 · 진 · 치의 발생조건으로 설해진다. 육근과 육경의 만남을 조건으로 세 가지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 세 느낌이 각각 탐욕 · 분노 · 무지의 잠재적 경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다. 또한 탐욕 · 분노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조건은 '아름다운 표상' · '적의의 표상' 및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며, 무지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조건은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다. 세 가지 느낌이 탐 · 진 · 치의 잠재성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며, '아름다운 표상' · '적의의 표상' · '표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탐욕과 분노의 발생 및 증폭이 조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무지의 발생 · 증폭 조건이라는 붓다의 설법은, 그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일상적 지성과 직관으로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탐 · 진 · 치 발생연기의 철학적 의미는 단순하지도 않고 용이하게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탐 · 진 · 치의 발생조건을 밝히는 것은 곧 소멸조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붓다가 설하는 탐 · 진 · 치 연기설법도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이 탐 · 진 · 치 연기설법의 의미를 읽어내려면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하다. 밑그림을 그려 본 그림을 드러내는 기법에 비유한다면, 탐 · 진 · 치 연기설법이라는 본그림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수많은 밑그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탐 · 진 · 치를 자아환각과의 연관에서 읽어 밑그림 한 장을 그려본다.

행복 · 괴로움 판별 기준 무엇인가
탐 · 진 · 치 증대되면 괴로움 커져



낙산사 해수관음상의 모습. 붓다가 설하는 탐 · 진 · 치 연기설법은 삼독심의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1) 무지와 비연기적 이해

붓다는 무명을 '사성제(四聖諦)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사성제는, 근원무지에 묶인 고통의 삶과 그 원인조건들(苦와 集), 근원무지에서 풀려난 해탈의 삶과 그 원인조건들(滅과 道)을 함께 열거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성제 연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사성제 연기의 내용은 결국 '자아환각을 둘러싼 조건인과'로 압축된다. 불변의 본질을 지닌 독자적 자아 · 존재가 실재한다고 착각하는 무지를 '유지 · 강화 · 표현하는 조건인과'(고집연기 苦集緣起)와, 그 무지에서 '풀려나는 조건인과'(멸도연기 滅道緣起)를 밝히는 것이 사성제 연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불변자아라는 환각을 둘러싼 두 가지 조건인과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불변자아라는 무지가 발생 · 유지 · 강화되는 조건인과와 소멸하는 조건인과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근원무지의 핵심을 차지한다.

무명의 핵심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무명의 무지는 '불변자아에 대한 지적(知的) 선호'라 할 수 있다. '변치 않는 내용물을 자신의 본질로서 지닌 독자적 자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지적 경향성이, 근원무지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무명의 무지(無知, delusion)는 지식의 결핍이나 지능(知能, intellectual faculties, intelligence)의 열등이 아니다.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지능도 무지와 동반할 수 있다. 무지는 단지 '제대로 알지 못함'이라는 소극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변자아에 대한 지적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옹호와 방어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불변의 독자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이해 · 관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지적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무지는 자아환각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정교한 논리를 마련한다. 자아환각을 움켜쥔 무지는 자기방어를 위한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지의 치유가 가장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탐욕은 근본적으로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채우려는 욕망이고, 분노는 이 탐욕과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무지가 탐욕과 분노를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탐욕이 자아환각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방식이라면, 분노는 동일 목적의 부정방식이다. 무지는 이 두 가지 환각유지 방식의 원천인 동시에, 양자를 결합시키는 매개역할도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꿈에서 깨어나자

인생의 절반은 밤이다. 70년을 살 경우 35년은 밤으로 누워서 보낸 셈이다. 거기다가 철모르던 어린 시절을 빼고 나면 눈떠 생활한 시간을 지극히 짧다.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은 더더욱 줄어든다.

하여,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낀다.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와 좌절을 거듭 느끼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철이 드는 나이에 접어들면 종교적인 신앙을 필요로 한다. 세상일이 덧없고 삶의 의미가 부질없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성직자들은 쉬운 진리보다는 구름 잡는 진리를 들려준다. 혼란과 방황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기만과 횡포를 일삼아 왔는지, 유럽의 역사에서 몇 가지를 추려 여기에 옮겨 보겠다.

파리 대학의 아몰리라는 사람이 범신론적 철학관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갖은 박해를 당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제자인 학생들이 그의 학설에 따라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닌 자연의 모든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존재라며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

이들 학생 중 열 명이 교회 당국에 끌려가 1210년 화형을 당하게 된다. 불로 태워서 죽인 것이다.

또한 1410년 무렵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공공연히 팔고 있었다. 거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금생의 죄가 없어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엉터리 논리였던 것이다.

이 땅의 불교에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전생의 빚'이,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로 등장해 신도들의 돈을 거둬들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교황청에서 가짜로 만든 '콘스탄티누스왕의 토지 기부증서'는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양심을 잃은 성직자들을 대표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교황이 지배하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몇 백 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콘스탄티누스왕'이 기부한 땅의 증서라며 교회의 지배영역을 확보했던 것이다.

진리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드러나 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생활공간에 물처럼 공기처럼 널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잠이 덜 깨어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리인줄 모를 뿐이다.

생각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누구나 한결같다. 행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의 신앙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다. 영원한 자유, 걸림과 막힘이 없는 자유인에 이르기 위한 것이 신앙의 생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신앙은 할수록 시야가 트여야 한다.

사닥다리에 오르듯이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내야 한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닫힌 창문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눈감는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감긴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고, 부처님의 영험을 만들어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는 머저리 병신을 키우지 않는다. 머저리 병신에게 지혜와 자비의 숨결을 밀어 넣어 온전한 사람,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어리석은 자를 키우지 않는다
스스로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물고기 몇 마리를 비닐 봉투에 속에 넣어두었다가 강변에 나가 풀어주는 것이 방생이 아니다. 삼재풀이 따위로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드리는 불공 따위는 불공이 아닌 것이다.

죽어있는 신앙과 죽어 있는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는 법이다. 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처럼 죽어 있는 신앙을 즐기는지, 깊은 잠에서 철저히 깨어나도록 진리의 북소리를 울려주고 싶다.

진리의 바다에 실 한 오라기라도 담가 열린 진리의 빛줄기 속에서 살아가자.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꿈에서 깨고 눈만 뜨면 호랑이가 아닌 광명천지가 그대의 것이다.

꿈속에서 헤매는 따위의 방황에서 되돌아와 당신 스스로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언제 꺼져갈지 모르는, 소중한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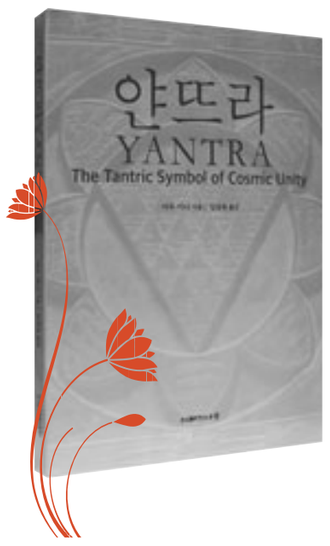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세계불교지도자 12人,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

달라이라마·자승 스님 등, 10월 29일 '불교기후변화성명서' 발표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과 함께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제한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가올 파리기후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극 해빙(海氷)과 티베트 고원지대 빙하가 녹아갈 수록 세계 불교지도자들의 애간장도 타들어간다. 편리와 산업발달을 추구하며 인간이 자행해 온 자연 파괴가 결국 인류를 위협하는 인과응보를 나을 것이란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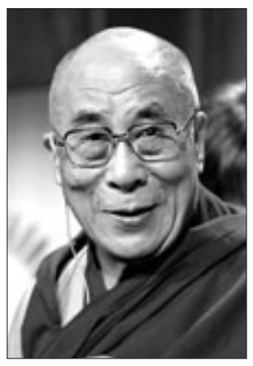
이에 세계 불교지도자들은 오는 11월 27일~12월 12일 열릴 '21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를 앞두고 불교 기후변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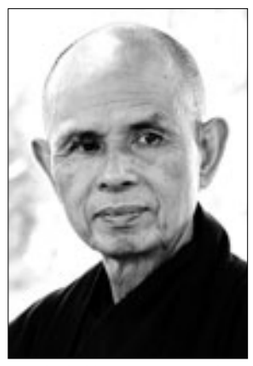
GBCCC(Buddhist Climate Change Collective, 국제불교기후변화동맹)는 10월 29일 '21차 파리기후총회 관련 세계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불교 기후변화 성명서' 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세계 고위 불교지도자 12명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UN기후변화총회에서 효력 있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성명서에는 한국 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우리의 우려는 '우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 는 붓다의 연기적 깨달음에 토대를 둔다"면서 "우리가 들이쉬는 숨,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통해 사연세계와 불가분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그 사실을 쉽게 잊는다. 통찰력 부족으로 인간과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생명유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문제 '붓다 연기관' 과 관련
화석연료 중단·재원 확장 등
파리 UN기후변화총회에 촉구
"효력 있는 협약 채택해야"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해결책이 다가올 '파리기후협상' 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실가능하다고 전망했다"면서 "화성연료 퇴출과 100%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은 국제, 저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방식을 시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4대 달라이라마(Dalai Lama)


틱 낫한(Thich Nhat Han)


자승 스님

이에 세계 불교지도자들은 파리기후총회 당사국들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조에 명시된 기후변화의 도덕적 관점을 따를 것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 및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 △국가별 기후공약에 따른 탄소배출 격차를 좁히는 정치적 의지를 보일 것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영향 대비 및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등 1천억 달러 이상 재원을 확대할 것 등 요구했다.

이와 관련 GBCCC는 "전 세계 10억명 이상 불교인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긴급히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국제적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14대 달라이라마, 틱 낫한 스님, 자승 스님, 17대 까르마파, 몽골·미얀마·스리랑카·베트남 등 불교교단 종정, 미국불교연합 의장, 프랑스불교도연합 의장, 부탄왕실의 아시 케상 왕모 왕축 공주 등 동참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세일즈포스닷컴 본사, '마음 챙김 성역' 으로 부상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 사내 경영에 명상 프로그램 등 도입

글로벌 기업의 특별한 경영 노하우 공통점을 찾는다면, '직원 스트레스 최소화' 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이 직원 만족도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최고 경영자들이 사내에 '명상' 이나 '마음챙김'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이유기도 하다.

'Business Insider' 가 11월 2일 "사내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글로벌 기업 본사가 많은 미국"이라며 "그 선두에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과 그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니오프는 미국의 최고경영자 사이에 '수행과 심신을 겸비한 독실한 불자' 이자 '명상과 마음챙김 전도사' 로 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의 두 저택 중 한 곳에는 스님이 항상 주석하고 있을 정도다.

베니오프는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치유 방법은 오직 명상과 마음 챙김뿐"이라며 "나는 이런 믿음을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가정과 회사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usiness Insider' 에 따르면 설립자의 생각은 세일즈포스닷컴 근무 환경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일즈포스닷컴 본사에는 각마다 명상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온·오프 상에서 스님과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성역' 인 셈이다.

기업경쟁력, 직원만족도에 달려
스트레스 최소화 위해 '명상' 도입
명상방 설치, 스님과 상담 등 마련

지난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자사의 '고객 관계관리 솔루션' 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초청해 '명상과 마음챙김' 을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글로벌기업 세일즈포스닷컴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사진)는 명상 및 마음 챙김 등을 사내 경영 방침에 도입해 눈길을 끈다.

4백여 기업이 참여한 초청강연회에는 지혜 연구소(Wisdom Labs)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리치 페르난데스(Rich Fernandez) 박사, 구글 공학자에서 명상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드 멍-탄(Chade-Meng Tan) 박사, 작가이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레치(Tara Brach) 박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혼 재단의 골디 혼(Goldie Hawn) 대표 등이 연단에 섰다.

오종욱 편집위원

네팔 스님, 영국 노동자 지원 나서다

석유·해양산업 침체되며 실직자 증가… 지원금 마련 등 '앞장'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Aberdeen)에서 네팔 불교계 스님이 지역 노동자들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있어 화제다.

'Energy Voice' 는 11월 2일 "북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애버딘에서 '바라운야(Varaunya) 명상센터' 를 운영하는 수잔(Sujan·사진) 스님이 애버딘 지역의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버딘 지역 석유산업과 해양산업 침체로 관련 종사자, 특히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 수잔 스님은 "일자리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와 직면한 노동자들은 지난 4월 대지진을 겪은 네팔 국민을 도왔던 고마운 분들"이라며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힘을 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잔 스님은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애버딘 지역 사회에 네팔 구호 모금을 호소했고, 이에 가장 먼저 회답한 계층이 바로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수잔 스님은 이들 노동자의 도움으로 약 7천 파운드(약 1천 260만 원)의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지역 노동자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수잔 스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나서고 싶다"며 "애버딘의 노동자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nergy Voice' 에 따르면 스님은 현재 다양한 매체를 방문하며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에 종사했던 실직 노동자의 곤궁한 삶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을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지역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 수잔 스님은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래도 이들의 시름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응원을 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버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원래는 어업과 면직업으로 유명했으나, 1970년대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럽의 기름 수도' 로 불릴 정도로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채굴속도라면 향후 10년 내 북해 원유와 가스가 고갈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은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정부와 관련 기업이 원유 생산량을 현저히 줄이며 구조 조종에 들어간 까닭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리타 그로스, 뇌졸중으로 중태

美불교계서 불교지도자로 '명망'… 의식 불명 상태

여성주의 비교종교 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리타 그로스(Rita Gross·사진) 위스콘신 오클레어대 교수가 뇌졸증 증세로 쓰러져 위독하다고 'Lion's Roar' 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리타 그로스 교수는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Continuing Care Unit' 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Lion's Roar' 는 "리타 그로스 교수의 육체적 상태는 중대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의식과 사고는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리타 그로그 교수가 여성불자를 양성하고 있는 버지니아 민돌링 로터스 가든(Mindrolling Lotus Garden)에서 수학하고 있는 바바라 리안(Barbara Ryan)씨는 "미국 티베트불교공동체는 리타 그로스의 비보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교수님의 회복과 부처님의 가피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1943년 태어난 리타 그로스 교수는 1975년 시카고대학에서 종교사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2년 뒤인 1977년 촉얌 트룽파(Chögyam Trungpa) 린포체의 사사로 불교 지도자의 길을 밟았다.

이후 위스콘신 오클레어 대학 강단에 선 리타 그로스 교수는 '여성주의 비교종교학자' 로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며 미국 불교계 주목을 받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顗)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쏨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용함(隆禧),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과법사(印鼇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상강(湘潭)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陷)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여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당신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당신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가신론강의(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려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사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 · 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연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해외독립영화제 출품, 미국TV 방영이 목표”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 제작하는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

원효 스님 사상, 현대적 구성해
70% 제작 완료, 내년 5월 공개
11월 4일 정우 스님 제작비 후원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의 스틸컷. 2016년 5월 개봉 예정이다.

“미국 방송사에서 활동하며 한국이 낳은 대사상가 원효 스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다큐 ‘원효’의 해외 독립영화제 출품, 미국TV 다큐 방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원효 스님의 원융화합과 자재무애 철학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춤추는 붓다’를 제작하고 있는 김선아 감독〈사진 왼쪽〉은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아름다운동행의 제작비 지원금 전달식에서 작은 바램을 밝혔다. ‘원효, 춤추는 붓다’는 미국에서 6년간 토크쇼와 단편영화를 제작한 김 감독이 지난 2013년 9월 제작에 들어간 다큐영화로 원효 스님의 삶과 철학을 다루고 있다.

다큐는 먼저 원효 스님이 생사의 덧없음을 알고 출가를 결심하는 데서 시작해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닫는 이야기, 요석공주와의 인연, 승복을 벗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무애행을 펼치는 과정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번역한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와 원효학의 대가인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감수를 맡아 학술적인 깊이도 더한다.

김 감독은 그동안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자리는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기금 부족의 소식을 전해듣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마련됐다. 정우 스님은 뮤지컬 맘마미아 등으로 유명한 신시뮤지컬 컴퍼니를 세우고 지속적인 문화포교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다큐 ‘원효, 춤추는 붓다’는 70% 가량이 촬영된 상태다. 2016년 5월 시사회 본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김 감독이 바라본 원효 스님은 어떤 모습일까.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이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비견된다고 평한다.

2012년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를 읽고 인생의 허무와 상실감을 극복하고 다큐 ‘원효’ 제작을 결심한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의 사상은 다른 서양철학과 달리 존재론적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다른 성인과도 같은 경지”라고 말했다.

“원효 스님의 일심, 화쟁 사상과 함께 무애행은 서양사회에서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진리와 세속이 다르지 않다는 ‘진속불이(眞俗不二)’는 현대인들에게도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김 감독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한국의 사상가를 알리는게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김 감독은 “서양에서 철학을 하면 노자에 대해 알지만 한국의 대표 사상 · 철학가인 원효 스님을 알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그동안 많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2000만원 가량이 모연돼 영화를 제작해 왔다. 이번 정우 스님의 후원으로 영화 제작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11월 세계3대 국제독립영화제인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른 프로듀싱 작품이 출품돼는데 현지에서 ‘원효’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아 감독은 1997년 미국으로 건너가 34세이던 2003년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전공했다. 김 감독은 한인방송에서 성공한 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더 포트폴리오’ 극본 · 연출 · 제작을 담당했고 2010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장편영화 ‘키스할 것을’ 등 다수의 영화를 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성산 비경 · 역사 · 불교문화유산 소개

양산시립박물관, 인구 30만 달성 기념 특별전시회

보물급 문화재 등 유물 100여점 전시
시집 〈소금강내원사시선〉 최초 공개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양산시 인구 30만 달성을 기념해 내년 1월 24일까지 영산(靈山)인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양산의 대표적인 명산(名山)인 천성산(千聖山)의 역사 · 지리적 경관, 고고 · 불교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주제에 따라 5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천성산(해발 922m)은 양산의 웅상지역과 상북면, 하북면을 연결하고 있는 산으로 예부터 원적산(圓寂山), 소금강산(小金剛山), 원효산(元曉山) 등 그 명성만큼이나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천성산’이라는 이름은 원효대사의 제자 천 명을 〈화엄경〉으로 교화해 성인으로 만들었다는데서 유래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성산의 지리적 · 역사적 위치, 삶의 터전으로서 천성산 관련 유적, 원효대사가 1,000명의 제자를 이끌어 지었다고 전하는 89개 암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원사계곡, 홍룡폭포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성산 정상부에 펼쳐진 화엄벌 등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도 함께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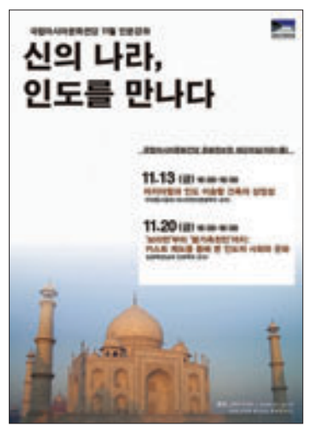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최초 공개될 〈소금강내원사시선(小金剛內院寺詩選)〉은 경봉선사(鏡峰, 1892~1982)가 내원사 주지로 주석하던 시절 천성산을 찾은 묵객들이 소금강, 즉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시들을 모은 시집이다. 천성산의 수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매우 희귀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로도 매우 귀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복제본이지만 가장 오래된 일본 고산사(高山寺) 소장 원효영정(13세기)과 원효의 일대기를 무려 14m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표현한 ‘화엄종조사회권(華嚴宗祖師繪卷)’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나라 ‘인도’를 만나러 가보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1월 13 · 20일 인문강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11월 13일과 20일 ‘신의 나라, 인도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정보원 지하 1층 대강의실에서 인문강좌를 연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13일 구하원 교수(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타지마할과 인도 이슬람 건축의 상징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타지마할(Taj Mahal)은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Shah Jahan)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었다는 무덤으로, 인도 이슬람 건축의 유래와 타지마할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조명한다.

20일에는 김경학 교수(전남대 인류학과)가 ‘브라만부터 불가촉천민까지: 카스트 제도를 통해 본 인도의 사회와 문화’ 주제 강연을 통해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고 지속되어 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또 그로 인해 인도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오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인도에 대해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번 강좌가 인도와 인도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2)601-4048

노덕현 기자

혼돈 속에도 질서가… ‘순간에서 영원으로’ 展

이중근 개인전, 11월 29일까지 대안공간 루프서 개최



만다라는 세상의 다양한 군상들이 함께 어우려져 또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보면 어지러운 그림도 자세히 보면 일정의 규칙을 통해 조화와 균형미를 보인다.

이중근 작가는 11월 29일까지 서울 서교동 대안공간 루프에서 현대의 다양한 이미지를 화려한 패턴으로 재구성한 ‘순간에서 영원으로’ 전을 개최한다.

섬유미술과 응용미술을 공부한 이중근 작가의 작품은 수공예적인 패턴 작업과 디지털사진 콜라쥬의 융합으로 이른바 순수미술과 디자인, 구상과 추상,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 개인이 2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는 이중근 작가를 대표하는 패턴 모티브의 드로잉부터 인물 사진 작업, 입체 가구와 LED 조명 작업 등이 선보인다.

이중근 작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단면이나 일상 풍경 속 다양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재배열해 패턴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만다라의 현대적 재구성으로 이 작가는 이 세계의 혼돈 속의 질서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종교를 소재로 믿음, 정진 등을 이미지로 제시했다. 감각적이고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패턴 속에 담긴 삶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화려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

◀ 이중근 作 ‘Love’
사진제공=대안공간 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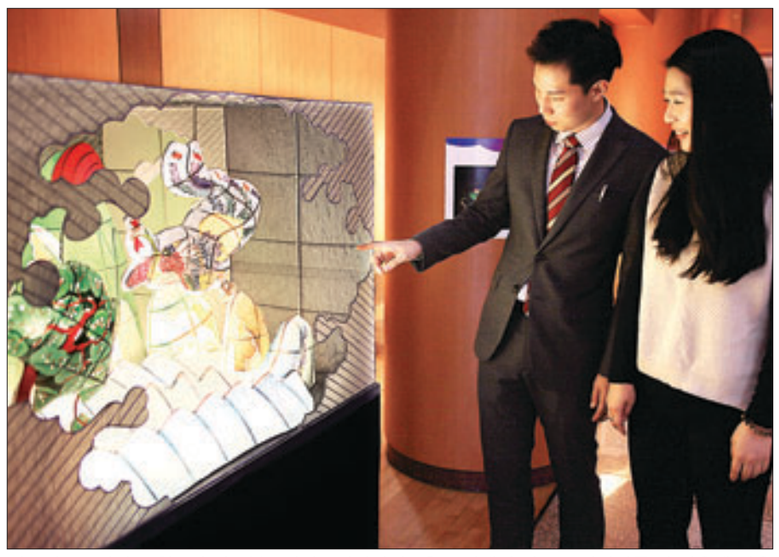
운판, 전통등으로 다시 태어나다

연등회 보존위, 12일까지 전통등 전시회 개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16회 연등회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전통등 기획전 주제는 '운판'으로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운판은 하늘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전은 2012년부터 4년간 진행해온 사물 연작(목어, 법고, 범종) 전시의 마지막이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향후 출품된 사물연작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전통등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상징으로 우리민족의 삶과 함께 했다"며 "이러한 전통을 기리는 차원에서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가 매년 성장하는 작가들의 예술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회보존회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연 가운데 젊은 남녀가 흥미롭게 전통등을 보고 있다.

반야심경 1080번 쓴 붓끝의 공덕

원명 박계준 희수 사경전…11월 19~25일 대전 갤러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붓끝으로 써내려가는 사경은 수행 중에서도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 2010년 반야심경 1080번 사경을 발원한 한 불자의 전시전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 작품 하나 하나에 담신 구도열 때문이다.

원명 박계준 씨는 11월 19일부터 25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에서 사경전을 개최한다. 4년 6개월 동안의 작품을 총망라한 이번 전시전에는 오로지 반야심경 사경의 작품만이 전시된다. 특히 관세음보살도와 함께 실린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박 씨의 정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사실, 사경은 다양한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경을 하다보면 때로는 다른 경전을 하고 싶고, 때론느 금니나 은니와 같은 화려한 사경을 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반야심경만을 백지묵서 사경으로 4년 6개월을 해왔다.

박계준 씨의 정진은 20여년 전 세등선원에서 1000일 새벽기도에서 100만배 수행으로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이미 1980년부터 왕희지 〈난정서〉 임서작품 등을 연마한 후 서예가로도 입지를 다졌지만 초심으로 사경을 해왔다.

박계준 씨는 "처음 한국사경연구원 회원으로 입문해 반야심경 1080번의 원력을 세워 희수가 되어서야 전시전을 열게 됐다"며 "그동안 반야심경에 집중해 다른 세밀한 작품을 하기에는 힘이 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외길 김경호 선생은 "사경은 법사리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라며 "보통 반야심경 1번 사경에 4시간이 걸리기에 1080번은 5000여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여기에 오로지 붓 끝에 정신을 집중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했다. (042)480-5000

노덕현 기자

"상설전으로 불교문화재 어느때나 보세요"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호림 명품 100선' 전, 2016년 2월 27일까지

국보 8점, 보물 52점을 소장하고 있는 호림박물관이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호림 명품 100선' 전을 11월 10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 서울 신사분관 2~4층에서 연다.

상설전으로 운영되는 이 전시에는 불교미술품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총 3부로 나뉘어 전시되는 전시전 중 2부 '불교미술-염원을 담다'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만들어진 불교 조각과 금속공예품, 회화, 전적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보물 제808호인 삼국시대 '금동탄생불입상', 보물 제1047호로 지정된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가 전시된다.

제1부 '상형토기_바람을 담다'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염원이 담긴 상형토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3부 '명품도자'에서는 우아한 고려청자, 자유분방한 분청사기, 절제미가 배어있는 백자가 전시되며, 뚜껑 형태의 분청사기인 '분청사기 상감 연판문개'도 전시될 예정이다.

호림박물관 관계자는 "기획전 위주로 운영하던 신사분관에 새로운 기획전시실을 마련해 상설전을 열게 됐다"며 "상설전에서는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을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41-3523

노덕현 기자



'호림 명품 100선전' 2부 '불교미술-염원을 담다' 출품작 일부모습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부패한 재벌에게 던지는 주먹 한 방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이 1,35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흥행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류승완 감독은 액션활극의 베테랑이다. 그러나 '베테랑'이 류승완 감독의 전작 영화에 비해 더 액션이 화려하거나 서사가 입체적인 것은 아니다. 외려 복고적이다. 류승완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베테랑' 액션은 희극적인 요소가 있는 성룡의 액션을 답습하고 있어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필자는 '베테랑' 흥행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관객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줄거리는 간단하다.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가오(威信)가 있는 서도철(황정민) 형사가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살인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류승완 감독은 "우리에게 이런 형사 한 명쯤 있는 거 좋잖아? 서도철 형사 같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베테랑〉을 찍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관객들이 재벌 3세에 맞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서도철 형사에게 환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벌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조태오라는 캐릭터는 어딘지 모르게 기시감이 들게 한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현 회장의 조카이자 M&M의 대표이사 최철원은 2010년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했다. 최철원은 폭행 후 맷값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고 한다.

유정환 전 몽드드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차량 4대와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유정환 대표는 추돌사고로 자신의 벤틀리가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던 아반떼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영화 속 조태오의 모습 그대로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

부처님은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오. 찬다라족의 아들인 마탕가는 개백정으로 불릴 만큼 천한 사람이었지만 최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베테랑 속 '조태호'는 현대 자본주의의 부패한 재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품에 위신 있어야 '베테랑'
〈보살내시경〉으로 경제윤리 정립
하심의 수평적 리더십 필요해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부처님은 타고난 신분에 의해 귀천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귀천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윤리가 〈보살내계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전에는 상인의 매매에 대한 윤리가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무거운 저울이나 가벼운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 '커다란 말이나 작은 말을 가지고 남을 침해하지 말라', '작은 자를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저울'이나 '자(尺)'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도 바로 저울이다. 저울은 공정성의 상징이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면서도 버젓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서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와 권력, 명성을 얻은 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듣자하니 서양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공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 명성을 얻는데다가 사회 지도층이 되고나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 '자타불이(自他不二)' 즉,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근대화를 이룩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무엇을 억지로 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뭇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몸을 두려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진리인 도와 그 성질이 비슷하다. 도를 터득한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몸을 둔다. 그의 마음은 못과 같이 고요하다. 그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는 헛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억지로 바로잡고자 애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장 능률적으로 일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인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다. 노자가 말한 물의 도(道)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과 같다. 그리고 이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유응오 작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29~2015.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비디아말라버치	불광출판사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정토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10	황제내경과생명과학	남회근	부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한국 儒佛사상에 대한 천착 끝에 일군 체험 철학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
송석구 지음
예문서원 펴냄
3만 9천원



송석구 교수의
율곡철학 강의
송석구 지음
예문서원 펴냄
2만 9천원



불교와 유교의 융섭 통해 새 철학 정립
체험으로 학문 체계화 철학의 종착역
1966년 월남전 파병서 '죽음의 문제' 사유
"직접수행 통한 가르침이 진정한 학문의 길"
율곡 사상 핵심…"행동 바르게 하는데 있어"

저자 송석구 교수〈오른쪽 사진〉는 불교와 유교의 융섭을 이루어 새로운 철학을 정립해 내고자 힘써 온 원로 학자이다. 저자는 자신의 학문 역정을 대표할 만한 저작으로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와 〈송석구 교수의 율곡철학 강의〉 등 두 책을 선정해 동시에 펴냈다.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

저자는 불교철학과 성리학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심 및 리기 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고, 그 결과 자신의 철학적 체험을 학문으로 체계화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바로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이다. 이 책은 1987년 사사연서 펴낸 〈한국의 유불사상〉의 전면 개정판이다.

저자인 송석구 교수는 철학자요 교육자이다. 그가 대학교때 매달린 삶의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등등 철학적인 것이었다.

그의 대학시절에는 그를 방황 하게끔 만든 시대적 사건이 즐비한 것도 요인이었다. 4. 19혁명과 자유당 정권의 몰락, 뒤이은 5. 16 군사혁명 등은 그를 방황과 절망으로 이끌었다. 그 시절 저자를 일으켜 세워 준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한 구절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이 구절은 허망과 상 아닌 것으로 보라는 두 개의 의미지만, 그 당시 저자는 허망이라는 단어에 더욱 천착했다. 느끼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허무, 허망, 허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허망하다고 느낄 때 허망을 딛고 일어서야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마치 땅에서 넘어진 자가 그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말이다"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의 학문적 귀결점을 불교와 유학으로 보았다. 저자는 "동양철학이 내 삶의 지향점과 일치하지만 논리적 비약과 애매성이 있었다. 동양 철학의 성인, 불교의 깨달음은 논리적 한계서 직관적으로 넘어가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니던가? 나는 서양철학적 훈련을 거쳐 종국에는 불교나 유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1966년 저자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직접 목격하며 깊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바로 월남전 파병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극복, 그것은 저자에게 삶의 다른 한 면 이었다. 저자는 책에서 "이 시절 나에게서 삶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즉 모든 행위는 변화하며 나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다. 죽음이 닥칠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또 하나의 사유체계였다. 나는 비로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철학에 눈 떴다. 월남전서 철학의 즐거움을 맛본 귀중한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박사공부를 할 때 석사 논문 주제인 서양윤리학서 성리학인 율곡철학으로 전환했다. 당시 저자가 겪은 체험 속에서 서양 철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유다.

저자는 직관의 맛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저자는 "나에게 선의 세계와 염불의 세계가 너무 간절히 다가왔다. 수행을 통해 자그마한 빛이라도 봐야 진정한 삶이지 다른 사람의 사상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결코 의미있는 삶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1977년 저자는 동국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성리학을 강의했다. 그리고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대만 국립대 철학 연구소로 유학을 갔다. 1년 동안 〈율곡철학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그런데 문제에 봉착했다. 퇴계 선생의 '사단과 칠정'에 대한 율곡 선생의 반론이었다. 퇴계선생은 사단은 '이발기수지' 이고, 칠정은 '기발리승지' 로 밝혔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이발기수지' 는 없으며, '기발리승지' 로 밝혔다. 그 근거로 율곡 선생은 '이통기국' 을 제기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간 저자는 거의 2주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생각에 골몰했다. 그리고 마침내 저자는 불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불교에서 마음은 하나지만 그것에 의해 이뤄지는 각양각색의 생각과 정은 수없이 많다. 이 마음을 일으키는 본마음이 이(理)이고, 기쁨과 슬픔 같은 개별적인 마음은 기(氣)가 아닌가? 또한 무상무주의 일심이 이통(理通)이고 일심에서 나온 번뇌와 망상 등은 기국(氣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번뇌속에 보리가 있고 망상이 가라앉으면 곧 깨달음이라는 것 말이다."라며 당시를 회고한다.

불교적 관점서 '이통기국' 을 이해하면서 저자에겐 새로운 정신적 지평이 열렸다. 송 교구는 성리학의 성즉리와 불교의 일심과 각의 사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학이든 불교든 실천수행에 의한 체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얻은 것이 없다고 믿었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도덕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이 본래 인연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실재하지 않고 마음까지도 공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도덕적 죄가 성립하지만, 불교에서는 죄가 없고 자비(慈悲)만 있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유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펴낸 것이 이 책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일심을 갖기 위해 불교적 체험에 힘을 쏟았다. 내가 일생동안 매달렸던 명제는 윤리학, 성리학, 불교로 이어오면서 체험 철학으로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내 철학의 길의 종착역은 바로 여기이다"며 "이 책은 내 체험 철학을 학문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일사불란하고 정밀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과 학문의 관심을 어느 정도 피력한 논문들을 새롭게 엮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석구 교수의 율곡 철학 강의〉

겨울밤 이불 속에서 들은 〈율곡선생전〉서 비롯된 저자와 율곡 선생과의 인연은 불교에 심취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리학과 불교를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하는 간절한 발원을 위해 저자는 다시 대학때부터 묻었던 율곡 전서를 재차 통독했다. 그중 특히 저자의 혼란된 마음을 가라 앉힐 수 있었던 것은 〈성학집요〉에 나타난 수기론이었다. 정심(正心)을 앞에 놓고 입지를 주장하고 교기질을 강조하는 면과 함께 그것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저자는 자신과 용기,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성의정심이 더욱 돋보였다. 저자는 "천리 · 천도는 곧 내 마음의 바름과 그 뜻을 참되게 하는 데 있다는 선언은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한 것이냐 하는 것은 리기론(理氣論)의 구조로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 이해는 논리적으로만 되지 않았다. 한고비 한고비마다 대종을 파악하는 체험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저자는 "율곡 성리학의 특성이 그가 정주성리학의 모방이 아니라 그 자신 성리학에 영향 주던 불교적 체계에도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할 때 한국적 성리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시사되는 바가 많다"고 덧붙였다.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론' '리기론' '심성정론' '수기적 실천론' 등이다. 서론서 저자는 율곡이 '심성정의일로' 의 지론을 성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정심을 주장함으로써 참된 '인간됨' 행위의 객관적 척도를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율곡의 '성의정심' 수기론 연구가 인간 본성을 개명시키고, 그 개명성의 근거를 밝혀줌으로써 도덕적 주체성의 상실을 회복하게 되고, 선한 행위의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는데 성공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크게 부여할 것이라는게 저자의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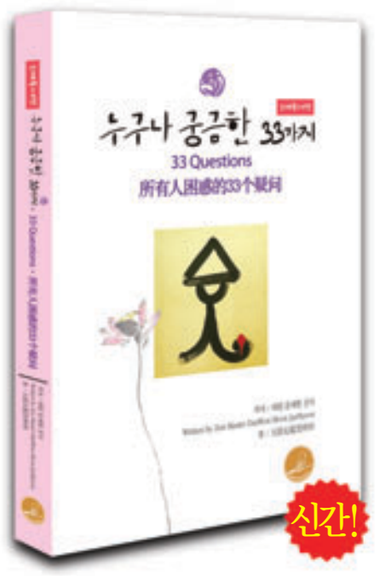
저자는 책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율곡은 인간이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천인합일' 의 이념을 실현 근거로 인생에 있어서 리(理)는 순선이나 기의 청탁수박에 의해 리의 본연이 엄폐됐으므로 우리는 '성의정심' 을 통해 이 기의 엄폐를 개명해야 한다는 데서 발견한다"며 "왜냐하면 심은 기이기 때문에 '성의정심공부' 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공부야 말로 곧 수기(修己)의 근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자는 "율곡은 성리학이 결코 이론적 지식에만 안주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라, 성리의 연구는 오히려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곡의 철학 사상 연구〉의 개정판은 〈송석구 교수의 율곡철학 강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송석구 교수는?
충남 대전서 출생했다.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대만대 철학연구소서 수학했다. 동국대 철학과 교수, 한국철학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동국대 · 동덕여자대 · 가천의과학대 총장,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와 유교〉 〈율곡의 철학사상 연구〉 〈무상을 넘어〉 〈지혜의 삶 믿음의 삶〉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한국의 유불사상〉 〈대통합〉 등 다수가 있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영중 3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모든 이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 하는 문제, 삶과 죽음, 종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깨달은 이는 실증한 체험을 통해 만인을 마음의 평화와 죽음의 속박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책이 그 이변을 앞서서 이끌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4번째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 031-534-3373 / 도서출판 문젠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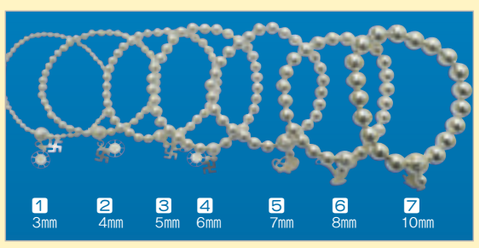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法名', 불교가 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일반화

법명 해설사전

조계종 포교원 엮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3만 5천원



출가자가 받는 승명 그리고 오계나 보살계를 수지하고 재가자들이 받는 법명은 형식이나 절차는 다르지만 모두 계(戒)를 수지할 것을 서약하면서 받는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나 초기 불교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서 있던 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종족명이나 가계(家系)의 특징을 잡아 그 사람을 부르곤 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의 이름은 각각 가계의 특징, 종족명에서 왔다.

사리풋타(사리불)의 속명은 우빠띳사(Upatissa)였다. 하지만 출가 이후에는 사리풋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리풋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면 '사리의 아들(putta)' 이라는 뜻이다.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 루빠 사리였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또 다른 상수제자 목갈라나(목건련)는 종족의 명칭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경우 땅이 넓기 때문에 종족명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분하고는 했다. 우리식으로 치면 성(姓)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제자들 중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굳이 이를 구분하고자 '마하' 등의 명칭을 붙이고는 했다. 마하가섭이나 마하가전연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아예 라후라처럼 속가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승단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율장에도 '법명' 을 부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흐름은 불교가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로 확대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불명(佛名)' 이 정착된다. 동진 시대 도안(312~385) 스님은 불명이나 법명을 넘어 아예 일불 제자임을 뜻하는 석(釋) 씨의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전까지 구족계를 받은 승려들은 자신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도안 스님은 모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이름을 잃듯이 출가하여 사문이 된 사람은 석자가 된다고 한 증일아함경 〈팔난품〉의 구절을 따 출가자는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하튼 이후 중국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명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선종의 2조 혜가는 달마에게서 받은 법명이며 3조 승찬은 혜가에게, 4조

초기불교에는 법명 부여 기록 없어
불교 중국으로 오면서 '불명' 정착
일본 '계명', 한국 '법명' 용어 사용
한국불교선 적극적으로 법명 해석

도신은 승찬에게, 5조 홍인은 도신에게, 6조 혜능은 홍인에게 각각 받은 법명이다.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법명에 대한 해설뿐 아니라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 등도 추가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고착된 '법명' 은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고 사용한다. 중국은 불명(佛名)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고 일본은 계명(戒名) 그리고 한국은 최근 들어 법명(法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나 삼국 중에서 한국은 이런 법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보통 법명을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묻는 경우가 적은데 비해 한국불교는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한다. 그래서 법명을 짓거나 받는 일은 한국불교에서는 꽤나 중요하다. 특히나 계를 받을 때마다 다른 법명을 받는 경우도 많아 법명을 짓는 방법부터 그 숫자도 무척 방대하다. 이 책은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법명을 일별하고 풀이한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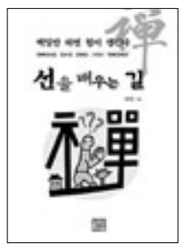
이 책에 포함된 표제어는 모두 8,382개이다. 그 양이 방대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법명은 물론 인도, 중국 승려의 법명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법화경〉 등 경전에 등장하는 용어까지도 모두 법명의 사용 가능한 예로 보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체계는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한글 발음을 우선으로 한문을 병기하였다. 또한 법명의 해설에 있어서는 바라밀 실천을 원칙으로 삼아 그 뜻을 풀어나갔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누구나 힘이 생기는 선수행의 길

선을 배우는 길

대현 지음 | 올리브나무 펴냄 | 1만 5천원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해 항복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서 무력으로 점점 섬멸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위빠간화선' 은, 처음은 적의 군대를

'위빠간화선', 간화선+위빠사나
통합한 수행 바람직하다고 주장
저자, "지도없이 손쉽게 수행 가능"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감한 저자는 묵조선과 위빠사나, 간화선이 정상으로 가는 각기 다른 길일 수 있지만 세 길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해 왔다.

저자는 "깨달음의 길은 결국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 태양처럼 밝다는 것을 실감하고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대자유함, 솟아 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대현 스님은 '고요히 비춤' 을 바탕으로 삼고, '알아차림' 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해 무명 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위빠 간화선'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 간화선' 수행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일 반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없이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대자유함을 이 책이 제시하는 '위빠 간화선' 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노라면, 그 길은 결코 멀지 않다" 며 "수행법을 1백일만 읽고 따라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대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했다. 강진 백련사서 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던 중 '위빠사나' 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다.

책속의 밑줄 긋기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는 삶은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풀어놓은 물과 같다. 이런 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없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왜곡시켜 받아들인다. 감각적 욕망은 마치 빛을 진 것과 같게 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빛을 다 갚고 빛에서 벗어난 자유인과 같게 된다.

–실답게 수행하는 방식은 그저 고요히 앉아 묵연히 참구하는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도달하는 곳이 있으니, 밖으로는 인연의 흐름에 끄달리지 않아 그 마음은 텅 비어 일체를 용납하고, 그 비춤은 오묘하여 적절하고 균등하며, 안으로는 반연하는 생각이 없고 툭 틔어 홀로 존재하되 흐릿하지 않으며, 신령스럽게 모든 의존을 끊고 편안한 자기로 머무른다. 그 편안한 곳은 감정과 무관하니 거침없이 트여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고, 아주 빼어나서 스스로 신령스러워야 한다.

"만공선사, 만해 스님께 독립자금 전달… 독립운동 관여한 증거"

만공의 구국정신

경허 · 만공 선양회 펴냄 | 옹산 스님 엮음



올해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덕사에서는 지난 9월 20일 경허 · 만공 선양회 주관으로 일제 강점기 만공 선사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그 행적을 찾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아직 가려 내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들을 발굴, 그 반열에 등록시켜 숭고한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 받았다.

이어 덕숭총림 수덕사 경허 · 만공 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前 수덕사 주지)은 만공스님에 관련된 그 간에 밝혀진 연구 자료와 언론에 기사화 된 사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제목은 〈만공의 구국 정신〉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만공 선사의 알려지지 않은 공적이 주를 이룬다.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은밀히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현재 생존해 있는 수연 스님(90)의 증언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책에 수록됐다. 옹산 스님은 "이 것은 그 시대상황으로 봐서 독립 운동에 직간접적인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로운 증언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수범 스님(견성암 선원장)의 글을 보면 "2008년 입적하신 원담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께 전해준 독립자금이 든 보따리를 수덕사서 경성까지 갖고 간 사람이 바로 나(원담 스님)였다고 했다"며 "나도 알고보면 독립 자금을 운반하는 큰 일을 한 사람이랑께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또한 수범 스님은 "만공 스님은 평소 만해가 없는 경성(서울)은 안간다고 할 정도였다고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번 책에는 몇 가지 저자의 제언도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그 하나는 독립유공자의 평가 기준과 공적 심사위원들의 사고가 객관적으로 냉철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약에 특정 종교집단서만 있던 사례라고 평가 절하된다면 이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저자는 지금까지 묻혀진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정부관계기관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것 역시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후손이 숨겨진 증거를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주지 않고 행정 편의의 임무 수행에만 급급하다면 정부 시책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게 옹산 스님의 주장이다.

책에는 이외에도 만공 선사가 어전회의에서 총독 면전에 대고 호통을 친 일화를 극찬한 기사를 비롯해 일제의 패륜적인 만행에 의거 창씨개명을 한 만공 선사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관련 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옹산 스님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해 제기된 유공자나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된 선열들의 행적을 연구하고 찾아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독립유공자 선정시 서류 심사뿐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실사해 보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책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만공대선사가 1937년 일본 총독에게 일할(一喝)한 것을 기념한 덕숭총림방장 설정 스님의 기념 휘호인 '대갈일성왜수낙담(큰 소리로 일본 총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사기를 꺾어 놓음)도 수록해 놓아 눈길을 끈다.

김주일 기자



만공대선사가 1937년 일본 총독에게 일할(一喝)한 것을 기념한 덕숭총림방장 설정 스님의 기념 휘호인 '대갈일성왜수낙담'.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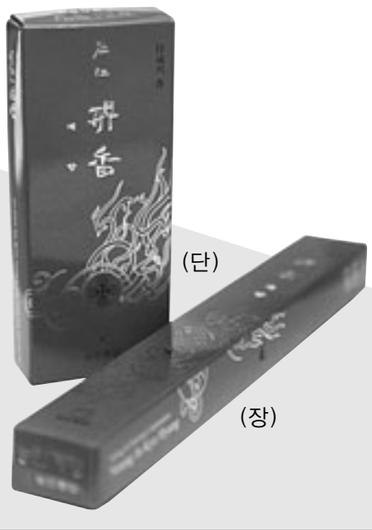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고려 고승들 한국사 원류를 다시 쓰다

16.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

한국불교의 자화상은 이른 시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승전류 불교사서는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초에 〈계림잡전〉의 저자 김대문이 펴낸 〈고승전〉이었는데, 이는 현존하지는 않는다. 9세기 후반 최치원도 여러 고승들의 비문과 전기를 짓는 등 한국불교사의 조형에 필수적인 중요한 사료를 남겼다. 고려시대에도 승전류와 불교사서가 편술되었는데, 11세기 후반 의천이 읽었다는 〈해동승전〉의 명칭이 확인되며, 여기서 다룰 각훈(?~1230)의 〈해동고승전〉과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가 나왔다. 또 13세기에 활동한 천태종 진정국사 천책이 1268년 무렵에 편찬한 〈해동법화전홍록〉4권은 법화신앙의 영험담을 수록한 책이다.

한편 근대기 송광사의 학승 금명 보정(1861~1930)의 〈조계고승전〉 '서문'에는 중국과 한국의 역대 승전 내역이 소개되어 있다. 보정은 고승전 편찬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국 남조 양의 혜교가 펴낸 〈(양)고승전〉, 보창의 〈명승전〉, 당의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도선의 〈속고승전〉, 송의 찬영이 편찬한 〈송고승전〉, 금의 세종이 쓴 어제 40권, 원대 담악의 〈육학승전〉 등 중국의 승전류를 소개하였다. 이어 한국에서도 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지만 승전류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신라 원효의 〈신승전〉과 각훈의 〈해동고승전〉 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원효의 〈신승전〉은 전하지 않으며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현존하는 대표적 불교사서인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를 통해 고려시대 불교사 인식과 당시 조형된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검토해 본다. 먼저 〈해동고승전〉은 1215년 각훈이 고려 고종의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각훈은 개경의 흥왕사와 영통사에 주석했던 화엄종 승려였고 교종의 최고위 승계인 승통의 바로 아래 수좌에 오른 고승이었다. 그는 이인로, 임춘 등 당대 일류 문사들과 교류하였고 입적하였을 때 이규보가 "법문의 대들보가 꺾였으니 후학들은 누구에 의지해 화엄의 심현 연기의 이치를 따지고 궁구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을 정도로 당시 화엄종을 대표하는 승려였다. 하지만 그의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해동고승전〉은 유통편 일부만 남아있는 잔본이지만, 불교 전래 후 당시까지 약 800여 년간의 고승들의 전기를 모아 서술한 책이다. 현존하는 유통편에는 앞에 한국의 불교 유통을 개관하는 글이 나오고 이어 삼국의 불교 공인, 구법 및 교학과 관련된 35명 고승들의 행록, 11개의 찬이 수록되어 있다. 35명의 고승 가운데 정전은 18명, 방전은 17명으로 정전에는 삼국에 불교를 전한 순도, 마라난타, 아도와 교학승 원광 등이 실려 있고 방전에는 불교의 신라 전래와 관련된 묵호자를 비롯해 서역과 중국 승려의 승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구법 승려로 알려진 각덕, 안함 등은 중국에 유학을 갔고 아리야발마, 현태 등은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난 이들이었다.

〈해동고승전〉에는 〈속(당)고승전〉, 〈송고승전〉 등 중국의 대표적 고승전류는 물론 〈국사〉, 〈수이전〉 등 신라의 고문헌, 비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기록들의 차이점을 비교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주로 고승들의 업적을 선양하고 해동불교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즉 이 책에는 전법과 교화를 통해 해동에 불법이 퍼지고 불교가 유통되면서 선행과 공덕이 쌓이고 문화가 발전했다는 호교론적 인식이 주를 이룬다.

〈해동고승전〉은 뒤에 나온 〈삼국유사〉나 〈법화영험전〉 등 불교사서에서 인용하고 있고 조선후기인 1637년에 편찬된 〈해동문헌총록〉에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널리 유통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가 1910년대에 해인사 주지 이회광에 의해 2권 1책의 사본 일부가 공개되었고 이때 필사된 책이 일본에 건너가 〈대정신수대장경〉에도 수록되었다.

〈삼국유사〉는 역사와 지리, 언어와 문학, 사상과 종교, 민속과 문화, 미술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대 한국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통로를 제공한 책이다. 한국불교사는 물론 고대 한국인의 가치관, 생활상, 문화적 양태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요긴한 기록물인 것이다. 저자 일연은 선과 교에 정통한 선승이자 학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마치 역사학자처럼 현지를 직접 발로 뛰면서 고문헌, 금석문, 고문서, 사지, 설화, 향가 등 수많은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였다.

〈삼국유사〉에는 그가 눈으로 직접 본 유물 및 유적의 실태 등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다만 일연의 주요 활동무대가 경상도였고 그가 입수한 자료의 지역적 범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라 중심의 서술이 된 점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의 호는 목암, 시호는 보각으로 선종의 승계 가운데 가장 높은 대선사를 받았다. 원효와 같은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1219년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에서 출가했는데 이곳은 821년 남종선을 처음 전래한 도의선사가 주석했던 곳이다.

일연은 1227년 선종 승과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대구 비슬산 보당암에서 참선에 매진하였다. 1236년 몽골군의 3차 침입 때는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 북쪽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서 깨우침을 얻었다. 1249년에는 남해의 정림사에 머물면서 분사대장도감에서 주도한 재조대장경 판각 사업에 3년간 참여하였으며 이후 조정에서 주관한 대장경 낙성 회향 법회를 주관하였다. 영일의 오어사, 비슬산의 인흥사와 용천사에 주석하였고 불일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1277년부터 청도 운문사에 있었는데 이때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281년에는 충렬왕의 경주 행차 때 동행하여 몽골군이 불태운 황룡사의 폐허를 목도하였고 1282년부터는 왕명으로 개경 광명사로 옮겼고 다음 해에는 이전의 국사에 해당하는 국존으로 책봉되었다. 1284년 군위의 인각사를 중수하고 구산선문 문도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1289년 입적 전까지 〈삼국유사〉 찬술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저술로는 선종의 법맥을 그린 〈조파도〉 2권, 〈중편조동오위〉 2권, 〈조정사원〉 30권, 〈선문염송사원〉 30권 등 다수가 있었다.

〈삼국유사〉 5권은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고대사에 해당하는 왕력과 기이편, 불교사에 관한 흥법편 이하로 나눌 수 있다.

왕력은 역대 왕조의 연혁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고 신이한 일들을 기록한다는 뜻의 기이편은 항목 수로는 〈삼국유사〉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이편은 고조선, 삼국과 가야, 통일신라와 후삼국까지를 다루었고 현존하는 역사서 가운데 최초로 고조선과 단군을 수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의해편, 감통편은 중국의 고승전 체제에서 영향을 받은 편목이지만 탑상편과 효선편은 여타 불교사서나 승전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삼국유사〉만의 독특한 편제였다.

흥법편은 불교 수용과 성행 양상에 대한 기술로서 고구려의 순도, 백제의 마라난타, 신라의 아도에 의한 불교 전래와 이차돈과 법흥왕의 불교 공인, 흥륜사 금당의 10성인 등 주로 신라불교의 양상을 다루었다. 탑상편은 탑과 불상 관련 사실들과 설화를 실었고 의해편에서는 원광, 양지, 혜숙, 혜공, 자장, 원효, 의상, 진표, 태현 등의 전기를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서역 구법승도 언급하였다. 신주편은 밀본, 혜통, 명랑 등 신이한 행적을 보인 밀교 승려들의 이적을 소개하였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호국불교의 영험함을 강조하였다. 감통편에서는 불교신앙과 영이한 감응을 소개하였는데, 현실의 고통을 구제하고 이로움을 주는 관음보살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피은편은 은둔하며 수행한 이들의 행적을 다룬 것으로 일연이 주로 머무른 비슬산에 숨어 지냈던 신라의 관기와 도성,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 단속사로 들어가 수행한 신충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효선편에는 각종 효행 사례와 불교의 효 관념을 제시하였다.

〈삼국유사〉는 1280년대 후반에 저술이 완료되어 1310년대에 무극에 의해 처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판본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조선초에 초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현존 판본 중에는 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5권 2책으로 중간한 중종 임신본(정덕본)이 완질본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당시 여러 곳에서 나누어 판각을 했던 관계로 같은 판본이지만 서법이나 각법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온다.

중종 임신본의 인본으로는 초기에 찍은 고려대 중앙도서관본, 완본이지만 약간의 가필이 있는 서울대본, 그리고 만송문고본, 순암수택본(일본 텐리대학 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조선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석남본, 송은본(곽영대본), 니산본(성암고서박물관), 조종업본, 범어사본, 파른본(손보기본) 등 여러 판본이 잔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한국의 역사전통을 불교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황룡사구층탑' 항목에서 불법의 위력으로 삼국이 통일되고 한 나라가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고조선' 항목에서는 단군신화를 서술하면서 환인을 불교의 제석, 환웅을 천왕으로 설명하였다.

〈삼국유사〉에는 〈해동고승전〉이 10여 군데 인용되었으며 중국과 한국의 여러 불교사서와 승전 기록을 섭렵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고대의 한국불교사를 집성하려는 원대한 목표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자료의 출전이나 근거를 밝히지 않은 항목도 반 가까이 되어 해당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고승전에 실린 신라 승려들 가운데 순경, 원표 등 몇몇 인물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신라 하대의 선종 수용에 대한 서술이 없다는 점도 이 책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삼국유사〉는 '유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정사에서 생략되거나 배제된 역사를 추가하고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되었다. 정치사와 관련된 왕력과 기이편이 책의 절반 분량을 차지하고,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를 다수 인용하면서도 이적과 영험을 담은 기록이나 내용을 다수 수록한 것은 그의 저술 목적을 잘 보여준다.

일연은 기이편 서문에서 "성인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데 있어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천명을 받고 상서를 받아서 반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어야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괴이하겠는가?"라고 하여, 고대국가 창업주들의 기이하고 상서로운 행적을 당당히 역사서술에 반영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일연은 무인정권과 대몽항쟁, 원간섭기의 극심한 혼란기를 겪으면서 고려의 민족공동체와 문화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각을 하였다. 그 결과 고려의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불교 전통을 역사서로 남기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삼국유사〉를 통해 그 이전에 지역 수호신 차원에 머물던 단군이 역사공동체의 시조라는 전국구 스타로 화려하게 부상하였고 고려는 단군을 통해 중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대등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연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설화와 영험담을 그대로 수록하여 불교신앙의 종교적 경건함을 되살렸고 무엇보다 고대 한국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가감없이 후세에 전하였다.



각훈의 '해동고승전' 불교 전래사 기술
고승 업적 찬양 · 호교론적 서술 대부분

일연의 '삼국유사' 韓 고대 실상 그려
단군, 한반도 역사 공동체 시조 '부상'
고대 한인 문화 살펴보는 사료로 활용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사진 아래). 고려시대 고승인 일연 스님(사진 위)이 기술했다. 〈삼국유사〉는 고대 한국인의 생활상과 문화, 관습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변방에 있던 단군을 한반도 역사공동체의 시조로 부상시켰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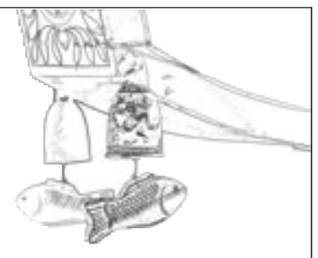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의 심성은 본래 깨끗하여 어떤 얽매임의 번뇌로도 결코 더럽힐 수 없다. 마치 허공을 더럽힐 수 없는것처럼.

- 대방등대집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 / 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건강 태극권 개인지도

남양주시 화도읍
노후 건강 관리법
치매 중풍 예방법
20년 수련
031-591-9023

인 연 명 리

명리 속성반 모집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모집 중)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744-21
- 문의 : 삼소정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 내집처럼 편안하게 숙식하며 컴퓨터 워드, 잘 하시는분 모십니다.
* 비구니스님, 여신도분, 여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명가 김명품 정담선사
사주, 작명, 힐링 템플스테이
광명선원 : 부산 051-334-8184
스님직통 : 011-488-031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514-3721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0-3346-2328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60-70대)
010-5209-74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남원 관음사)
010-5065-4800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울산)
011-875-63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청계사, 60대전)
010-3524-89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60대 전후)
010-3755-4242

조용히 수행하며 노후를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8073-115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상담 010-5801-2203 부천 상동역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치포핼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코스 : 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 : 상동 / 비용 : 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상태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흰 천에 묻은 얼룩은 눈에 띄지만 악인은 검은 옷에
먹물을 칠한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 대지도론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 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임 대
- 위치 : 안동 풍산읍 서미리
- 법당 요사채 60평, 텃밭 1,600평
- 삼존불, 탱화 등
- 선착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무, 10년간 임대 시설비 없음

010-6620-553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6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 양도:10억원 ◎ 양도: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2층 임법당, 대지 99㎡
- 1층 방2, 부엌, 창고, 욕실
- 2층 법당 삼존불
- 옥상 휴게실, 텃밭. 주차가능
- 지하철, 버스, 시장 가까운 곳
- 가액 : 1억 4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대웅전 10평, 산신각2평, 용왕각1평반, 요사채15평. 11평
- 차실8평, 종교부지176평
- 가액 : 1억 9천

010-3793-105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전남곡성, 옥과IC 5㎞, 초중고, 대학교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안산매봉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소나무속 암자, 노천약사석불,
- 血사리봉안, 선원, 별장가함
- 가액 : 3억5천(답사후절충가)

010-8224-1688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거창 수려한 경관 고찰터에 위치한 사찰
- 대지1000평, 전통법당40평 , 요사채100%, 황토40평
- 공양간30평,후원10평,대형창고, 삼성각, 365일물흐르는 용왕당, 사과 아로니아 200평
- 가액 : 8억 5천

010-6534-46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3분
- 대지 300평, 남향, 청기와, 빨간 벽돌집
- 내부 40평, 방3, 거실, 부엌, 화장실, 창고2개, 마당,반송3, 단풍, 라일락, 텃밭, 뒷뜰 넓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원주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3천(조절가능)

010-9070-93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영산 갓바위 자락
- 대지 225평, 답 289평, 도로인접
- 1층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26.47평 1층 슬라브 창고, 법당 21.22평 1층 시멘트 블럭조슬라브 12평 62평 방4개 응접실, 주방, 욕조, 화장실 0.8평
- 주불 지장보살. 탱화, 신중, 칠성, 산신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0-6534-1777
010-3511-6781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7-3379
010-4576-228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본찰 업무상 관계로

010-4541-1140
051)532-1141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중 2층 45평, 법당, 방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 / 장성읍에서 12㎞ /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부산지하철 화명역 인접 화명동 롯데마트인접
- 평수: 50평, 3층
- 법당1, 산신당1, 방2, 주방1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459-9477

친환경 삼베타올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사찰(급)임대 안내
- 위치: 김제 황산면
-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2층
- 삼존불, 탱화 등
- 수미단 원목, 호신불 300불 완비
- 화목보일러 및 에어콘설치
- 깨끗하게 관리하실분 선착순
- 가액: 보증금 일천만원 분담금 1년에 20만원 임대기간 4년, 시설비 없음

010-3900-3050

포교원 임대
- 위치 : 부산지역 2층 주차완비
- 법당 160평
- 요사방 4, 주방 1, 종무실 1
- 삼존불, 탱화 지장단 등
- 수미단원목, 에어컨설치, 최고시설 깨끗하게 관리하실분 선착순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250만원, 시설비 없음

010-7283-008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1,000평, 건평 1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7천만원

010-4519-0363
010-8181-06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5451-6056

토굴 및 임법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우암2동 (구 동사무소 150미터 앞)
- 평수: 총대지 40평 중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탱화, 영단) 슬라브 건물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정남향 위치, 텃밭도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없음(주인 직접 연락)

010-2055-336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 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양도

010-5019-538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밀양시내
- 평수: 총대지 62평. 대웅전 및 법당, 산신각, 약사전, 용왕당
- 위치 좋은 아담한 사찰로써 넓은 주차장 확보
- 스님 포교활동으로 적합함
- 가액: 1억 5천만원

010-2845-2881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 주세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4〉 정신 수행

‘지혜와 성냄’ 그 갈림길에 서서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물질을 궁극 물질로 보지 못하면 덩어리로 보게 되고 물질의 실제 모습을 보는 대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듯이, 궁극 실재로서의 정신을 보지 못하면 정신 현상을 덩어리로 보게 되고 정신 현상이 일어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고통과 해로움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실제 정신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화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각 인식과정의 마음과 마음부수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면 화내는 것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신 수행을 하면, 화가 났을 때의 인식과정과 그때 일어나는 마음, 마음부수를 보고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욕심이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행을 하면 욕심이나 어리석음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화나 욕심, 어리석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 마음부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궁극 실재로서의 정신을 식별하는 정신 수행은 정신의 인식과정과 인식과정에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을 도와서 작용하는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현상을 마음과 마음부수의 합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인 아비담마에 잘 나와 있으며 수행을 통해 확인된다.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하려면 정신이 일어나는 인식과정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인식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인식과정에서 시작하여 의문 인식과정까지 계속되는 인식과정이다. 둘째는 의문에서만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이다. 셋째는 의문 인식과정의 일종이긴 하지만 독특한 성격을 띠어 바로 분류하는 선정 인식과정이다.

이 가운데 선정 인식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신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선정 인식과정이 인식하기 쉬워서인데, 이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선정 인식과정에서는 자와나(javana, 속행)가 많이 일어나므로, 자와나 속에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할 기회가 많다. 둘째, 선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정요소를 식별하는데 초선정에서는 선정 5요소를 식별한다. 이 5요소는 선정 상태의 인식과정에 있는 마음부수를 말한다. 선정 요소를 식별하면서 이미 정신을 궁극 정신으로 식별한 것이다. 선정에는 선정 상태의 필수 마음부수인 선정 5요소 외에도 다른 마음부수들이 있는데, 정신 수행에서는 선정 상태의 인식과정에 존재하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모두 식별한다.

34가지 마음, 마음부수를 보기 전에 먼저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해 살펴보자.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정신에는 항상 대상이 있다. 또한 정신은 항상 물질적 토대를 가진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신과 정신의 토대로서의 물질, 그리고 정신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다.

의문 인식과정–욕계 유익한 마음

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 중에서 자와나에서 일어나는 욕계의 유익한 마음을 먼저 인식한다.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란 선정의 마음은 아니지만 유익한 상태의 마음이다. 유익한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이거나, 이 가운데 2~3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다.

욕계의 유익한 마음은 기쁨과 지혜와 자극 여부에 따라 8가지로 나뉜다. 8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 받지 않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 받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 받지 않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 받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 받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 받지 않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 받은 마음. 여기서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뜻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권유로 보시를 했다면 자극을 받은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 보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자극을 받지 않은 마음이다.

욕계의 유익한 마음에도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 19가지가 있다. 그래서 욕계의 유익한 마음은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 마음, 마음부수 34가지다. 지혜는 없고 기쁨만 있으면 33가지고, 기쁨이 없고 지혜만 있어도 33가지다.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32가지다.

그러면 어떨 때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앞서 말했듯이 유익한 마음은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하나 있거나 둘, 셋이 같이 있는 마음이다. 또는 현명한 주의가 있는 마음이다. 현명한 주의는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대상을 접할 때 그것을 궁금 실재인 정신이나 물질로 보거나 그것의 속성인 무상, 고, 무아, 깨끗하지 못함으로 보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현명한 주의를 갖기는 쉽지 않다. 나 역시 정신 수행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신 수행을 하면서 유일한 마음이 어떨 때 일어나고 현명한 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한 마음이 아니라 해로운 마음으로 많이 살아왔음을 알았다. 진리에 입각해서 살지 않으면 자칫 어리석은 주의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해로운 마음이 있는 인식회로가 돌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생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붙는 형용사나 수식어는 어리석은 주의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은 물질이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식어를 많이 쓴다. 오늘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해야지 한다. 그런데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개될 뿐이다. 그것을 못 보니 평가를 하는 것이다.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가 늘면 살아가면서 수식어가 떨어져 나간다.

현상 모른 채 화내면 고통
인식하면 ‘화’ 영향 알게 돼
모든 일 인과따라 전개될 뿐
과정 못 보니 ‘평가’ 하는 것

욕계 유익한 마음을 처음 관찰할 때는, 그때까지 한 수행과 연결해서 한다. 예를 들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 명상을 통해 자신이 죽는 순간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죽음이나 궁극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면 이것이 의문전향이 된다. 의문전향 후 욕계 유익한 마음의 자와나가 7번 일어난다. 이때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마음, 마음부수 34가지를 식별할 수 있다. 또는 선정이 없는 자애의 마음을 가지려고 결정을 하면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그 후 욕계 유익한 마음의 자와나가 7번 일어난다. 그때 기쁨과 지혜의 여부에 따라 마음, 마음부수가 32~34가지 있다.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잠시 해로운 마음부수에 대해 설명하겠다. 해로운 마음부수는 해로운 마음에 따라오는 마음부수다. 해로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다. 해로운 마음부수는 모두 14가지다. 이 가운데 4가지는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으로 있는 마음부수다. 욕심이 있는 마음이든 화가 있는 마음이든 어리석은 마음이든, 이 3가지 마음부수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이다. 이들 4가지는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이다.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상태다.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한다. 부끄러움 없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 없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부끄러움 없음과 두려움 없음에 대해서는 공주와 시녀의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다. 공주는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반면, 시녀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들뜸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상에 확고히 가 있지 못하고 동요하는 상태다.

나머지 10가지는 해로운 마음의 종류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마음부수다. 그래서 이름을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것들’이라고 붙인다. 10가지는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이다. 이중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이다. 이중 탐욕, 사견, 자만은 탐욕과 관계된 마음부수이고,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성냄과 관계된 마음부수이고, 해태와 혼침은 해태와 관계된 것이고, 의심은 어리석음과 관계된 것이다. 해태와 혼침은 자극 받은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마음부수다. 유익한 마음에서는 자극 받은 마음과 자극 받지 않은 마음이 마음부수가 같지만 해로운 마음에서는 자극 받은 마음이 되면 마음부수로 해태와 혼침이 추가된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는 자극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해태와 혼침이 그러한 상태다. 불건전한 5가지 덮개 가운데 있는 해태와 혼침과는 좀 다르다. 여기서 해태와 혼침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분명히 깨어 있지 않아서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해로운 마음부수를 간략히 살펴보자. 탐욕은 탐하는 마음이다. 탐욕은 끈끈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견은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이치에 어긋나는 고집을 특징으로 한다. ‘내가 있다는 견해’(유신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견해의 표본이다. 모든 잘못된 것이 유신견에서 비롯된다. 자만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다. 성냄은 화가 나는 것이다. 질투는 남이 잘된 것을 시샘하는 것이다. 인색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재물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을 싫어한다. 후회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뉘우치거나 안달복달하는 것인데, 2가지 형태가 있다. 과거에 행한 나쁜 일에 대해 나쁜 일을 했다고 후회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것이다. 해태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이고, 혼침은 마음이 둔하고 무기력한 것이다. 의심은 분명하게 결정을 못하고 회의를 하며 잘 몰라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이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은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정을 할 때 현명한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으로 갈린다. 유익한 마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의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의 인식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대상을 대할 때 현명한 주의가 아주 중요하다.

사실, 선정을 닦고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인식과정을 보고 그 영향을 알고 나면 해로운 마음은 거의 안 먹게 된다. 단지 수행을 위해 일부러 해로운 마음을 가져서 해로운 마음의 인식과정이 일어나게 할 뿐이다. 산속 공기 좋은 곳에 살던 사람이 공기가 오염된 도시에 가면 달라진 공기를 민감하게 알아채듯이, 정신수행을 통해서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부수를 분명히 식별하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를 힘들어하여 멀리 하게 된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58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신뢰가 진정한 우정을 남긴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꼭 지키겠어요

I will keep my promises to my friends.

도산 안창호(1878~1938년) 선생님은 교육에 뜻을 두고 여러 학교를 세운 교육가입니다.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교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선생님이 이만영이라는 소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소년단장을 맡고 있던 이만영에게 기부금 2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선생님은 소년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기부금을 전해준 뒤에 피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소년의 집에 갔을 때 소년은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도 독립 운동가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몸을 숨긴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친구와 약속을 하지만 쉽게 잊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중국의 성인인 맹자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무겁게 생각하고 꼭 지켜야만 합니다.

* 안창호 선생님은 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추어내지 않겠어요

I will not pick on or make fun of my friends' mistakes.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는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제나라에 살았던 관중과 포숙의 사귐처럼 단단한 우정을 가리킵니다. 관중은 제갈공명, 안영과 함께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손꼽힙니다. 관중의 성공 뒤에는 친구 포숙의 도움이 컸습니다.

관중과 포숙은 어려울 때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관중이 이익금을 더 가져갔지만 포숙은 욕심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관중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관중은 세 번 벼슬하는 동안 모두 왕에게 쫓겨나고 말았는데 이때도 포숙은 '관중이 때를 못 만나서 그렇다.' 고 위로했습니다. 관중이 전쟁에서 지고 달아났을 때도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고 말했습니다. 관중은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합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추어내는 일은 남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추지 말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이 포숙이었다면 관중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 여러분이 포숙이었다면 관중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 여러분은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준 일이 있나요?





나는 친구의 비밀을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tell a friend's secrets to other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문왕은 임금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귀가 나귀처럼 길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하나, 왕의 머리에 쓰는 복두를 고치는 복두장이뿐이었습니다. 복두장이는 왕의 귀가 너무 우스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비밀이 새어나가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자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처럼 생겼다!"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밭에서 '임금님 귀는 나귀처럼 생겼다' 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을 들킨 경문왕이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산수유를 심게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임금님 귀' 이야기와 같습니다. 딱 한 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한 이야기는 언젠가 온 교실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은 당연한 예절이고 친구에 대한 의리입니다.

* 누군가의 비밀이 교실에 퍼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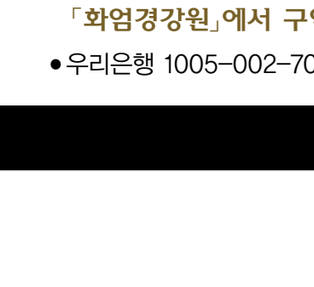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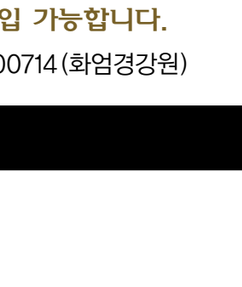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대행 스님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라!

석가모니도 늙고 죽음이 있었는데…

질문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으레 십이연기(十二緣起)가 거론되곤 합니다. 무명(無明)이 있으니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識)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 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 이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無)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몸뚱이가 살아야 살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죠. 두 친구가 하나는 스님이 되고 하나는 속인인데, 속인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님 된 친구를 불렀답니다. 천도를 잘 좀 해 달라고 떡 불렀는데 천도는 안 해 주고, 한다는 말이 "어휴!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쓱 가 버리거든요.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그런데 그게 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느니 살았느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헐고 헤지고 바래고 그랬으면,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죠.



그림 · 최주현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스님께서는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둘 아닌 도리를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답변 둘이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요,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이 되게끔,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줘도 상대방인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게 둘이 아님이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왜 악한 것도,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깐 너 하나만이,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우." 이러고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이 대가가 일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 이 큰 도리를 모른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덮여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모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개미들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보죠. 벌레 둥우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삽으로 인해 딱 터지게 되면은 그게 그냥 쫙 헤지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냥 모두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 죽게 되고 사는 놈은 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보는 거나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계를 받을 때 얘기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들 그렇게 죽는 문제들. 허청없이 그냥 밭에 가다가도 그저 이런 벌레들이 모두 꾸역꾸역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탁 쳐서 그냥 벌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헤어지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돼 버려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한 거는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걸림 없이 걷게 될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모두를 잘해야 되죠. 스님네들은 염불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마음들이 이거를 잘했다 하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빼놓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죠!

☞ 29면에서 계속

이거 해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죠. 닥치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든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잘할 때에, 때에 따라서 길을 걷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항상 그냥 무심코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죠. 그냥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자기 하나의 생각뿐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그냥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뭇 중생을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둘 아니게 생각한다면 모든 거를 다 건진다.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한 철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게 아닌데요, 한 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죽었어도 그냥 건진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할 때에 어떤 때는 종자가 덜 생기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은 조그만 데다가 식구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이 터질 거 같으니까 종자를 다섯, 하나 하나 치면 열 개 스무 개를 낳아야 될 텐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낳는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것도 실천입니다, 이게. 모두가 실천이에요.

옛날에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인제 공부하는 분들이, 선방에 계신 분들이 인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 말곤 똥그렇게 그냥 금을 그어 놓고선 "너희들, 여기 못 들어오면 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전부들 글로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간 아무 소리 없이 발로 그 그린 거를 다 지워 버리고 하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면 매여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만 옳습니까? 이쪽에도 글로 들어와야 정각을 한다 하고, 이쪽에는 그것에 매이면 정각을 못한다 하고 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틀리든지 옳든지 그냥 해 보세요. 허허허. 틀려도 별로 틀리지 않을 텐데. 이거를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놓고선 아무리 일러 달래도 일러 주질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건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것이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도 여기 와서 닿지 않는 말이 있고 여기 와서 닿는 말이 있죠. 만날 그냥 그 한 도리에서 자꾸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냐?" 하고 물으니 아주 뭐 신나게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니깐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물으니 대답을 거기서 못했더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모를 때는 아주 그게….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돼야 눈도 뜨고 귀도 뜬다. 이런 거죠. 우리가 '둘' 해도 하나고 '하나' 해도 둘입니다. 하나 하면 둘이 있는 거고 둘이 있는 거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깐 세상은 다 비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가 없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극한 상황에 몰려야 불문에 드는지

질문 스님이 되는 것은 큰 복을 받으신 것이라 우리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려야 승려가 되거나 불문에 드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자기가 과거에 배우던 업식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밟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마음이, 내 뿌리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자꾸 이렇게 몸뚱이를 리드하니까, 생각이 '아, 나는 이 도리를 공부할 수밖에는 없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근기가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가 좋아서 자꾸 공부하게 되고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들게 되고 서로가 이 마음법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모두 딴 이름이나 찾고 딴 형상을 찾으면서 기복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질문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는지요?

답변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 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 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 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 컵을 들으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에요.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이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똥그렇게 그냥 그려 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똥그렇게 그려 놓고는 침 한 번 뱉는데 떨어질락말락할 때 점 하나 찍어 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 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체험을 해 봐서 알겠지마는 아, 그런 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외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도 마시고,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지구의 장래가 궁금합니다

질문 저의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 기후, 양 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증증을 앓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 지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가지가지 이렇게 벌여서 이름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건 참선입니다. 선에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한데, 이거 공부할 때도 한군데로, 내면의 한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군데다 놓으니까 모아지죠? 한군데로 놓으면은 모아지듯이 일체 돌아가는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그 천차만별의 일들을, 그것을 이름으로 어떻게 지어서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이 일체가 모두 돌아갑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거를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모두가 움죽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움죽거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안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해 나가려면 잠시라도 찰나찰나 이렇게 안 움죽거리게 할 수 있어야만 움죽거리게 할 수 있죠. 즉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미래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일초 전 일초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세를 이게 둘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셋으로 수차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젭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모두가 앞서 입력된 건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하기도 하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뜻이, 이렇게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국회의석수 과연 늘려야 하나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의 하나로 삼고 있다. 어제까지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등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짐들은 어디가고 의원수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각자 기득권을 챙기는데 바쁘다.

의석수 문제가 나온 것은 작년 헌재(憲裁)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으니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하라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표의 등가성'이란 투표자 한명이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간의 인구 편차가 2: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쪼개야 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합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적용하여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 ~ 249석으로 발표했다. 그 세부기준은 국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명) 중 어디를 늘리고 줄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국회의석수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 정치가 부실했던 이탈리아도 최근 315석의 의석을 100석으로 축소했다. 개혁의지만 있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선거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 놓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39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도 내놓았다. 양당구조의 독과점을 종식시키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하여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석 300석은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은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려도 부족해 보인다. 비효율적이고 싸움만 일삼는 19대 국회를 보아 온 국민대다수는 오히려 국회의석을 과감히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혁파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입고 있다.

국회의석수를 300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였다.

사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석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300인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18대까지는 이 정신을 지켜서 299명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19대에 와서 여여대표 합의로 3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상한선 없이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의원수가 너무 많으면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같이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소수의 축소된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다 대부분을 위임해서 결국 독재체제로 전락한다. 북한이 그렇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정원이 687명이고 1년 중 1~2일만 활동한다. 나머지 기간은 10인 내외의 상임위원회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한다. 그것을 민주집중제라고 미화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석수는 300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조만간 통일이 되어 인구비례로 북한지역에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통일한국의 전체 8천만 인구에서 국회의석수는 300+150=450명이 된다. 미국은 인구 3억1800만 명에 하원의원이 435명이고 일본은 인구 1억2000만 명에 중의원이 480명이다. 이들에 비할 때 한국은 현재의 의원수도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은 의석수를 줄이고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다.

발언대

할로윈 데이에 대한 단상

할로윈 데이는 일종의 외국의 절기이자 명절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를 축제로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 심지어는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할 정도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는 일부에게는 일탈과 방종의 현장이 되고 있다. 또한 민족 절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외국의 절기를 따라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가치관 부재로 부작용 우려



덕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10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할로윈데이'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열광은 대단했다. 주변의 청년들만 봐도 할로윈데이에 친구들과 어디를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계획하며 들뜬 모습이었다. 젊은이들의 축제 문화에 신선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민속명절은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쏟아져 나오는 할로윈데이 부작용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SNS상에는 할로윈데이 때 발생한 폭행시비, 도난, 성추행, 쓰레기 문제 등 크고 작은 시비로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10월 31일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지역 자체가 축제의 장이 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할로윈데이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술에 취해 차를 파손하는가 하면,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외국의 축제를 들여오며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축제의 장을 함께 즐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문화는 정신을 이어가야"



홍윤식
불교민속학회 회장

할로윈은 500년 경 켈트족 문화에서 시작됐다. 한해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죽은자들이 1년간 사람 몸에 머물다 내세로 가기에 그 때 무서운 복장을 하고 죽은자의 영혼이 산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세시풍속으로 '동지'가 있다. 절기상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로 인해 생겨난 풍속이 있다. 팥죽을 먹으며 귀신을 쫓고 부적을 붙이기도 한다. 집안 어른에게 버선을 드리며 다가올 봄의 풍요를 기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양문화가 우리 사회에 급속히 침투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전통문화는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전통인 것이다. 할로윈에 귀신복장을 하고 노는 젊은이들을 봐도 동지에 헌말을 하거나 팥죽을 먹는 젊은이들을 보기는 쉽지 않다. 서양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로 이러한 전통문화, 더나아가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나라 문화부터 지킵시다

포털사이트 네티즌 의견

vjya****
우리나라 명절이 뭐가 있죠? 설, 추석, 단오 등 민속명절이 많아요. 근데 이 민속문화를 지키기도 전에 서양의 놀이 문화를 할로윈데이라고 하며 유난이네요. 미국 가서 이거 해보니 재밌나요? 우리 나라 문화부터 지킵시다!

kdud****
할로윈데이는 그날 하루 날 놓고 막놀자 라는 느낌이 강하다. 공부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재밌게 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저만큼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상권과 경제도 녹색불이 켜지니

maya****
놀던지 말던지 관심 없는데 질서 좀 지켜가며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길 더럽히는 거 너무 싫어요. 비단 이 사람들 뿐 아니라 어느 축제나 유원지 등지도 마찬가지에요. 곳곳에 흔한 쓰레기불법투기 극심합니다.

社說

불교학술지 논문심사 달라져야 한다

등재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현행 학술지 대부분은 논문을 심사해 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한국불교학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근 불교학술지의 논문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들이 잇달아 나왔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42호에서 불교학계 논문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권오민 교수는 "현행 학술지 심사는 원천적으로 토론이 봉쇄됐다. 이로 인해 심사자가 마치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훈계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논문심사자가 마치 지도교수처럼 훈계와 지시를 했다는 불만과 함께 불교학계의 폐쇄적 권위의식을 버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재진 교수는 응용 · 비교 · 융복합 등 범주에서는 불교학계의 인력풀이 약하기에 이를 중재할 편집위원회의 세밀한 역할을 주문했다. '심사청문회' 등 공식 절차가 규정으로 포함되는 등 분쟁 대응방법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교수는 "논문 심사자는 같은 연구자로서 애정 어린 충고와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은 풍토가 조성되려면 심사자나 투고자가 대척점에 놓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학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등재지 제도상 젊은 학자들이 비등재지에 중복게재를 피해하기며 논문을 투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중진학자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 후보지에 불교학술지가 대거 탈락한 이후 평가 게재와 심사과정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 전반에 논쟁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학문발전이 진행돼야 한다. 학자 개개인이 학문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공정성을 갖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올바른 논문 심사는 좋은 학술지를 만들고 불교학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교무금 높이려면 재정 투명화가 필수

사찰 신도들중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는 비율은 높지만 보시금이 과연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발표한 '사찰 신도의 보시 및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금 납부 이유도 '부처님 가피에 대한 보답'(60.2%), '사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 보람돼'(53.3%), '가족들의 평안 및 행복 위해'(52.9%), '배우자나 가족 사찰 신도회원 등 개인적 관계로'(9.4%),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시금 납부 의향이 없다고 말한 5.7%(51명) 가운데 15.7%가 사찰서 보시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확신 못해서라고 답해 신도들이 재정 투명화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신도들이 사찰 교부금을 내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신도들은 역시 재정투명화를 이유로 꼽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사찰의 보시금과 교무금은 사찰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불사도 진행하고, 신도들이 편안히 신행과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보정재는 분명 투명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신도들이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교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명화가 필수이자 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이 낸 보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명확히 알 때 신도들은 소속 사찰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칭기즈칸의 참모 야율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종용록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피냄
(낱권 판매 불가)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피냄



법사 방필석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영식(아들) 아호 찬명(받아감)
前 대통령 손녀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공식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아호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호 설명서 첨부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아호 ★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훌륭한 분 공통점이 본 이름을 그냥두고 존엄한 아호를 받아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아호
峨山 鄭周永 前 현대그룹 총수
湖巖 李秉喆 前 삼성그룹 총수
巨山 金泳三 前 대통령

아호는 人生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스승과도 같고 곧 황금열쇠와 같느니라.
아호는 신생아때부터 받아도 좋다. 아호는 인연이 닫아야 받습니다.
아호는 잘된사람이 받아 잘된것 아니요, 아호를 받아 잘된것이요.
내가 앞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잘될짓을 행하라.

♥ 남편에게 주는 아호 ♥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백성을 낳게하는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천생 인연으로 맺어진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소중히 섬겨라 아버지가 어머님을 그리해야 했듯이 아내를 그와같이 해야하느니라 그리할때 천신이 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재물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해도 조강지처를 잘 섬기지 못하면 어디서 무엇을 잘될것을 얻으려 하십니까?

신생아

작명

弟子 入門 歡迎



작명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작명 설명서 첨부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본연구소에서 작명 아호를 받은 인연으로 동자 신준원을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 주시는 영광.
사진 왼쪽부터 동자 어머니, 대사관직원, 법사 방필석.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자녀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과 아호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한 장소에 27년 경영 국가 공인 한자 1급 12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필석

언론

한국불교
불교언론 70년

直筆 통한 '불법홍포'…현대불교사의 사관

현대사회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매스 미디어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매순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대중들은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언론들도 오래 전부터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불교 언론의 태동

사실 현대의 포교에 있어 불교의 가르침을 신문과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법한 경전의 표현보다 수백 배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12월 원종(圓宗) 종무원이 잡지 〈원종〉을 펴낸 것이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일제시대 출판물에 대한 단속은 엄격했다. 국내에 발행된 잡지는 대부분이 종교잡지였다. 신문으로는 이에 앞서 1902년 일본불교 정토종이 당시 서울에 설치한 동양교보사에서 펴낸 〈동양교보〉가 최초의 종교신문으로 기록돼 있다.

해방 직후 불교계는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다.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로 1946년 3월 1일 〈신생〉이 새롭게 태어났다. 신생은 같은 해 10월 종간됐지만 당시 몇 안 되는 불교잡지 중 하나였다.

1946년 5월 1일에는 월간 〈불교신보〉가 창간됐다. 〈불교신보〉는 해방공간에서 활약한 혁신운동을 알려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50년 4월 〈동대신문〉, 1957년 종합잡지 〈녹원〉과 〈불교세계〉 등이 창간됐다.

주간 언론 창간… 전문 영역 구축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들은 크게 주간지, 방송, 인터넷이다. 주간지 부문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곳은 〈불교신문〉이다.

〈불교신문〉은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 스님을 초대 발행인으로 하고 주필에 이종익 씨, 편집국장에 안낙준 씨로 하여 1960년 1월 1일 〈대한불교〉라는 제호로 창간됐다. 이후 1961년 3월 〈대한불교신문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80년 10.27 법난 이후 강제 폐간됐으나 12월 21일자로 복간하고 현재의 〈불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1988년 9월 지령 제364호를 〈대한불교〉 지령과 합산해 1220호로 변경하면서 역사성을 공고히 해나갔다.

〈법보신문〉은 1988년 경주 불국사 조실이었던 월산 스님을 발행인으로 창간됐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종권에 의해 신문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별도의 '편집국뉴스' 를 발행하기도 했다. 2005년 '독립언론' 을 선언한 〈법보신문〉은 지난 10월 27일 '창간27주년 및 독립언론 10주년' 법회를 개최했다.

〈현대불교〉는 각계의 관심 속에 1994년 10월 15일 창간됐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의 원력이 담긴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를 사시로 출발했다. 1995년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했으며, 2000년 '붓다뉴스' 를 개통하며 불교계 최초 인터넷 실시간 뉴스를 시작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지면을 인터넷을 통해 PDF 서비스 실시하는 불교계 언론은 〈현대불교〉가 유일하다. 2003년에는 불교계 언론 중 처음으로 32면 체재로 증면하기도 했다.

부산 대각사 경우 스님이 1982년 창간한 〈불교회보〉는 현재 〈주간불교〉로 제호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

주요 종단에서도 자체 언론을 보유하며 매체 포교를 시행하고 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천태종은 〈금강신문〉을, 진각종은 〈밀교신문〉을, 총지종은 〈총지종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에서도 불교를 만나다

불교계 매체 포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방송이다. 방송 포교의 시작은 라디오로부터 시작됐다.

1910년 〈원종〉, 불교언론 시작
해방공간서도 꾸준히 매체 포교
1960~80년대 주간 신문들 창간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 첫 개설
〈불교포커스〉 등 인터넷 언론 부상
BBS · BTN 개국… 방송포교 견인

(재)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하여 2008년 BBS TV로 영상포교에 진출, 불교종합미디어로서 방송 포교를 이끌고 있다.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르마콘서트, 9시간 특별생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제2 개국을 위한 사옥 마련도 추진 중이다.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가 개국 고불식 '안녕하십니까. 불교텔레비전입니다' 를 첫 방송으로 문을 열었다. BTN의 개국은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 방송' 이라는 세계불교사의 새로운 한 획이었다. 하지만 곧 IMF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방송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긴축 운영 등을 통해 재정 내실화에 나섰던 BTN은 2008년 4월 서초구 방배동에 사옥을 마련하고 '서초 시대' 를 연다.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불교종합미디어로의 도약 △한국불교세계화에 앞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행문화 확립 △불자공동체로 웰라이프 실현 등 4대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인터넷 언론 탄생… 보도 지평 확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언론이다. 불교계 IT 환경변화도 교계 언론지형을 바꿔 놨다.

1995년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 의 경우 2005년 전면 개편을 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판인 '붓다뉴스' 를 독자들에게 서비스했다. 전자서점과 뉴스를 기반으로 한 '부다피아' 는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에 대한 정보검색 및 동영상 · 오디오 법문 · 강의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여기에 〈대중불교〉등 20여 불교잡지 보기, 7만여 장의 사찰 · 문화재 사진, 인물사진 서비스, 고서 열람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사이버 갤러리 운영과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신행 및 수행 상담, E-book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1999년 창립한 불교정보센터는 2002년 〈불교포커스〉를 출범했고, 〈불교신문〉 · 〈법보신문〉 등 주요 주간지들도 잇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간지들의 홈페이지 오픈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 활성화로 2007년 이후 현재 불교계에는 〈불교닷컴〉 · 〈미디어붓다〉 · 〈불교플러스〉 등의 언론들도 연이어 만들어졌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보기, 다시보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교TV는 지난해 보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BTN NEWS' 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의 불교 언론들은 모바일용 홈페이지 역시 제작 ·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불교 언론 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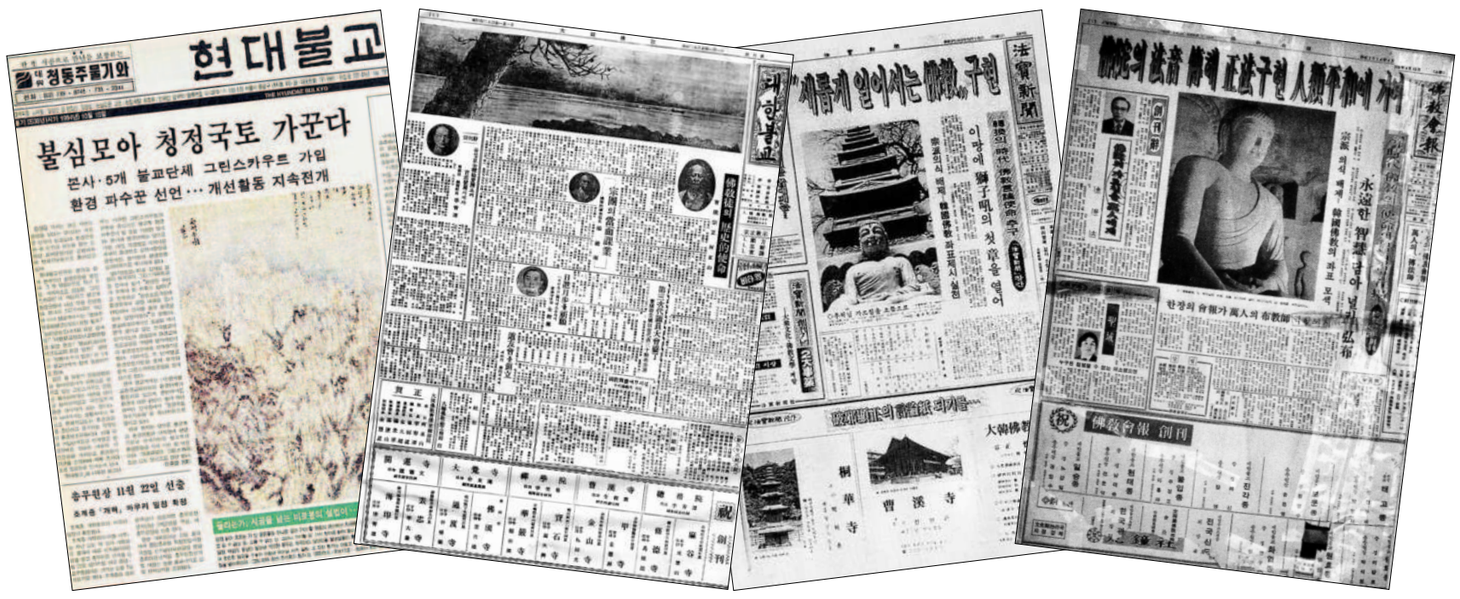
스마트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불교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숙제도 적지 않다. 인터넷 언론의 출범은 기존 불교계 주간 언론이 하지 못한 아이템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중심으로 언론 구조가 개편되면서 정작 중요한 신행 · 포교, 문화, 학술 등은 소홀해진 경향이 크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둔감해 뉴미디어 부문이 개발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신문〉의 사장을 역임한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는 본지 20주년 특별 기고는 곱씹어 볼만 하다.

그는 본지 기고에서 "불교언론은 대체로 종단 배경의 포교목적을 가진 기관지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포교는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자성과 참회를 수반할 때 중생구제의 원력에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불교언론은 불교의 예언자적 사명과 향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언론은 인류의 보편윤리에 반하는 탐욕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경고하고 그 재앙을 알리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십성 기사와 추잡한 종권다툼을 대서특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비판 기능이 아니며, 영험이나 공덕을 신화화하고, 선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포교역할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대가 인구하는 불교적 지혜를 보시하고 현세적 불국토를 건설하는 불사를 앞서 이끄는 것이 불교언론의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주요 주간언론 창간호. 사진 왼쪽부터 〈현대불교〉,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법보신문〉, 〈불교회보(주간불교 전신)〉. 주간지는 불교 전문 언론으로 한국 현대 불교사를 기록했던 사료이자 매체 포교의 중심에 있다.



1990년 5월 1일 BBS 불교방송 개국 기념 법회. 한국 최초 불교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한 BBS는 2008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종합미디어로서 면모를 다지고 있다.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의 개국 모습.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국 개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순간이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BTN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 실천회. ■ 세종대왕 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분, 공양주 하실분
지역사회에서 큰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대불정능엄신주
각종경전 독송방법 지도.
■ 동참하시는 분에게 소불을 드립니다.
■ 창업 개업 하실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드립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통계
통계로 본 한국불교 70년

도전·변화 속 성장… 이젠 내실화 힘쓸 때

통계는 한 집단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불교에 대한 통계는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해방 이후에는 정부가 집계했다. 정확한 종교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5년부터 10년마다 시행된 정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이다. 마지막 인구 센서스 조사는 2005년에 이뤄졌다. 최근에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1년부터 매년 대국민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복 70년, 한국불교는 어떤 성장세를 보였고 신도들의 신행 척도는 어느 정도 일까. 1946년 남조선과도정부가 펴낸 〈조선통계연감〉부터 1966년 문교부가 발간한 〈종교통계요람〉, 통계청의 '인구센서스(1985~2005)', 문화관광부가 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2008,2011)〉,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1984~2014)〉, 불교사회연구소의 2014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살펴봤다.

불교, 양적 성장을 이루다

조선총독부의 1943년 통계 자료가 수록된 〈조선통계연감〉에 따르면 해방 당시 한국불교의 신도 수는 약 58만 명이며, 사찰과 포교소 수는 1466곳, 스님 수는 1217명으로 집계된다. 당시 기독교는 신도는 32만 명으로 불교보다 적었지만 교회는 4700곳, 목사·신부는 3705명으로 불교보다 많았다. 이는 외국인 선교사의 유입과 이를 통한 교세 확장이 일제 강점기 말부터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서 1980년대 들어 불교 인구, 사찰, 스님의 수는 빠르게 증가한다. 사찰의 경우 1966년 2717곳에서 1985년 8892곳, 2008년 21,935곳, 2011년 26,791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님의 수도 1960년대 1만여 명 수준에서 1985년 23,976명, 2008년 41,362명, 2011년 49,408명으로 늘어났다.

고도 성장이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불교에 유입되는 재화가 늘어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종단의 증가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불교 종단은 265곳으로 3년전 조사보다도 증가했다. 불교를 기반한 재단·사단법인도 207곳에 달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 통계이지 미파악된 종단·법인 수도 상당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종단이 늘어난 것은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는 것과 밀접하다. 종교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무렵 66개의 신생종단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위 '유사 조계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불교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1943년 588,210명이었던 불교 신도는 1966년 938,093명, 1985년 8,059,624명, 2005년 10,726,46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종교 인구 분포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 속에 이면의 드리워진 그늘을 볼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종교 인구에 따르면 불교는 경상권, 제주권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의 가장 많은 본사가 몰려 있는 전라도 지역과 한국 인구의 1/3이 모여 사는 서울·경기 지역도 개신교의 교세가 압도적이다. 취약지역,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 포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지난 2월 12일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인구의 변동 추이의 예후는 좋지 않다. 10~30대의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의 경우 2014년 현재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다.

부모-자식간 종교 일치율은 현재 불교가 부친 일치 67%, 모친 일치 82%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와 천주교도 종교 일치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 성장 이후 종교 관심 높아
불교 신도·사찰 수 비약적 증가
2000년대 정체… 젊은층 줄어
불교 인구 경상남북도 편중돼
법회·수행 빈도 적어 대책 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 일치율은 부모의 영향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종교의 세대 전승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4년 현재 한국종교는 가족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불교인의 가족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불교인 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세대 간 전승을 통한 인구 확장성은 전 연령이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쪽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가족의 종교'로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족신행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젊은 불자의 이탈을 막는 불교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명호 한양대 강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고산문화재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2030년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 제하의 논문에서 "총 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규모의 종교인구가 줄어 미래의 포교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가족 내 세대 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행·수행 약한 불교, 대책 필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요구받는 것은 '양보다 질', 즉 내실화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신행의 척도인 '종교행사 참석도'에 있어 불교 신도 대부분은 '1년에 1~6회 사찰에 간다(70.3%)'고 응답했다. 매주 사찰에 가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평소 수행에 대한 질문에도 하지 않거나(46.3%) 적당히 하고(44.4%) 있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8.7%정도였다. 경전도 읽지 않았다. 52%의 불교신도들은 경전을 읽지 않고 있으며, 7.9%만이 경전을 '잘 읽고 있다'고 답했다.

종단에 대한 소속감 역시 약했다. 응답자의 34%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12.6%만이 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불자들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낮고, 자기 종교에 대한 소속감이 희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불교 포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불광사 불광연구원이 지난 4월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 연찬회에서 이뤄진 주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찬회에서 현재 불교 상황에 대해 윤승용 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인이 시주하거나 절에 가는 것은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종교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크게 뒤지는 등 내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삶에 불교가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우리 사회는 아직 개발 신화와 성장 신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 삶의 방식은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 종교, 특히 불교는 대중들의 삶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불교 상장례 문화의 정립과 전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례식을 어떤 형태로 치르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 68%가 불교식, 27%가 유교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식 문상의례, 불교식 상차림, 불교식 장례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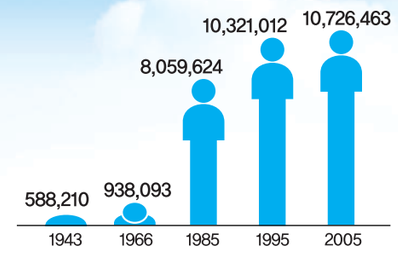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포교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신행의 질이 낮아진다는 점"이라며 "'불자신행점검표' 등을 활용해 불교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신행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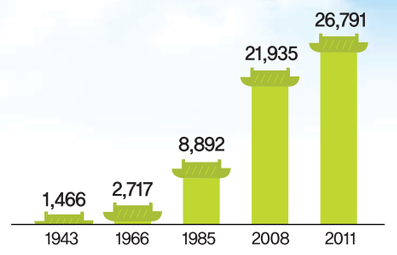
1945~2015 한국불교 주요 지표

1. 기초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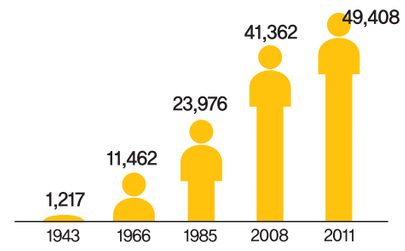
〈표1〉 종교 전반 신뢰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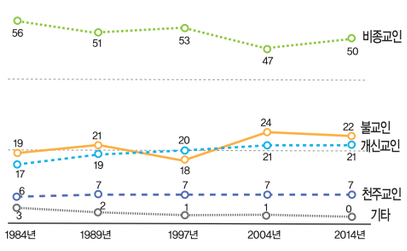
〈표2〉 사찰 및 포교당 (단위: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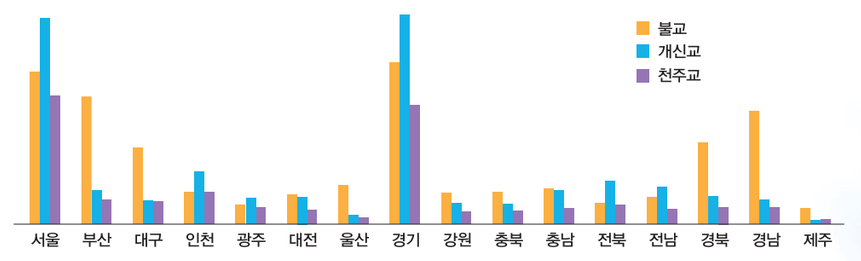
〈표3〉 수행자 (단위:명)



〈표5〉 종교인 분포현황 198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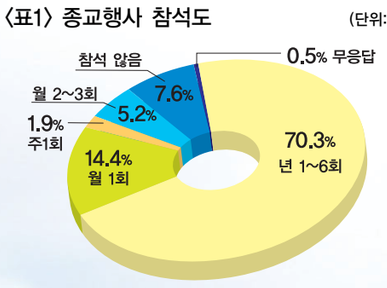


〈표4〉 행정구역별 각 종교 인구 (2005,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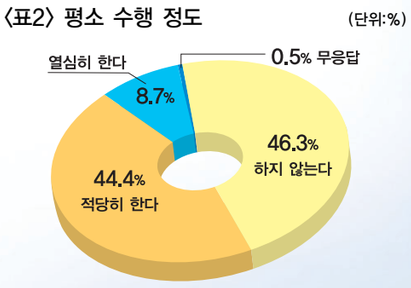


2.신앙생활 (2014년 불교사회연구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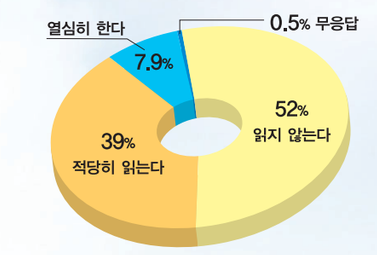
〈표1〉 종교행사 참석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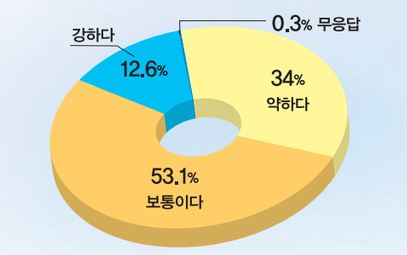
〈표2〉 평소 수행 정도 (단위:%)



〈표3〉 경전 읽는 정도 (단위:%)



〈표5〉 소속 종단에 대한 소속감 (단위:%)



기적의 파스요법 저자 –
남산큰스님
건강 친견
신행 상담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10년만에 다시 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친견 | 파스 한 장으로 모든 질병 예방법, 편하게 사는 법
비만관리의 100% 성공비결, 내병은 왜 낫지 않는가?
나무 망치로 건강관리법, 파스요법 전수
신행상담 | 자식·부부·사업·조상·부동산·창업·취직·승진
친견일정
서울 ▶ 2015.11.19(목)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6 동광빌딩
(신촌역 8번출구에서 30m 직진한후 좌측길로 100m전방 더착한커피숍 5층)
부산 ▶ 2015.11.20(금)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29
(지하철 1호선 장전역 3번출구 앞)
대구 ▶ 2015.11.21(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37-4 지하1층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지하1층)
예약전화 080-300-9928 ※사전예약 하신분만 친견이 가능합니다.
약력
이천의과대학교 의학박사
(現)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석좌 교수
(現)중국 요녕성 중의약대학교 객원 교수
(現)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객원 교수
(現)이투콘 의과대학교 교수
(現)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저서
〈남산스님의 고추파스 치료법〉
〈천주를 확 떠다 군살 싹 빼고〉
〈오다가다 만난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불교산책〉
〈핵심 반야경〉
〈중국을 모르니까 당하고 들어오지〉
〈돌은 안연 옛는 법〉
〈남산스님의 수족온욕법〉
〈남산스님의 약손요법〉
〈혼자서 질병 치료법〉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치료법〉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남산스님의 침사요법〉
〈남산스님의 테이핑요법〉
〈남산스님의 신비한 오기파요법〉
〈남산스님의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부처님에는 중생도 부처로 보이고 중생눈에는 부처도 중생으로 보인다〉 등 다수
MBC 화제집중 / 놀라운 세상
SBS 호기심천국 / 모닝와이드
포교하기에 어려운 스님들께 특수비법전수

JJUN Heating System Modul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아픈 중생은 곧 나의 부처님…

안성이 부산불교 보현회 회장



안성이 회장은 … 1952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안 회장은 1982년 7월 부산불교 보현회를 창립하고 1997년 보현 홍법 청년회와 보현 축구 봉사회를 창립했다. 자원봉사와 불교 자비행 실천으로 1996년 진해 해군 법당에서 자랑스런 불자상, 2001년에는 부산 불교 신협 감사장 이후 부산 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상, 부산 불교 포교사단 공로패, 부산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상, 대한 불교 조계종 불교 여성 개발원 제1회 108인 선정, 부산불교신도회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다.

장애아동 목욕봉사, 결핵 환우 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장애우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군장병 위문과 법회 개최 등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안성이 부산불교 보현회 회장(64)이다. 안 회장은 자비나눔을 화두로 남은 인생의 서원을 세웠다. 이런 안 회장을 11월 2일 부산 좌천동 보현정사에서 만났다.

불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

안성이 회장의 어린 시절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다. 일찍이 안 회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안 회장의 어머니는 8남매를 홀로 키웠다. 안 회장의 어머니를 지탱한 것은 불심이었다. 안 회장이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어머니의 기와불사에서였다. 13세 때 어머니를 따라 처음 따라 절을 찾은 안성이 회장은 마음의 고향을 찾은 듯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어려웠던 시절, 절에서 얻은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 안 회장이 발심하게 된 계기가 1979년 일어났다.

“결혼 후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동네 길을 가는데 7세 가량 된 어린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친아버지가 다리를 비틀었다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가 술을 가져오라며 그런 것이었죠. 아이 엄마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안 회장은 아이를 업고 꼬박 7주 동안 병원을 다녔다.

“몸의 상처와 함께 아이의 마음에 친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정말 컸을 거예요.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힘들 때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아이가 퇴원하는 날 아이 엄마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됐죠.”

아이를 돕고 난 뒤 안 회장은 삶의 철학이 생겼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을 직접 느끼며 이들을 돕는게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뜻 같이하는 도반들 모여 보현회 창립

이후 안 회장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부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자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열악했을 때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에서 도반들은 큰 도움이 됐다.

“친구들과 함께 천마재활원, 성우원 등 장애아동 재활시설을 찾아다녔습니다. 5명 가량이 함께 가 40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죠.”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안 회장은 사찰에 함께 다니던 한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항상 콩나물을 판 돈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던 분이셨거든요. 안보이시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집을 수소문해 찾아간 안 회장은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시신경이 손상돼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남기고 간 갓난아이까지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고기 잡는 그물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영양상태도 안좋으신데 과로까지 하니 시신경이 회복 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안 회장은 도반들과 함께 쌀을 전달하고 할머니를 위한 탁발도 진행했다. 안 회장은 3일간의 탁발 동안 많은 쌀과 기금이 모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당시 노력으로 할머니의 영양식을 제공하고 6개월 간 간호로 할머니를 치료했다.

“그 때 당시 20만원이 모였어요. 지금 돈의 가치로 치면 200만원이 넘죠. 저희 친정 어머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10만원을 내시고 도반들과 탁발 등을 통해 10만원을 더 모았습니다. 그 때 혼자서 돕는 것보다 단체를 하나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8남매와 도반들을 모아 13명으로 ‘부산불교보현회’의 첫 모임을 만들게 됐다.

순간의 발심이 30년 자비나눔으로

1979년 불우아동 도우며 첫발
8남매와 이웃 5명 설득해 시작
1982년 보현회 창립으로 폭 넓혀
현재 각지의 300여 봉사자 이끌어

불심으로 개인의 고통도 승화

희귀혈액질환으로 시한부 선고
봉정암 기도서 부처님 가피받아
봉사활동 반대하던 남편도 동참
인재불사 서원도…“학교 후원 진행”

부산 보현정사 기반, 300여 명이 활동

1982년 7월 보현회가 창립된 이후 점차 많은 불자들이 활동에 동참하게 됐고 60여명으로 증가했다. 처음 가정법회 위주로 진행되던 보현회 법회도 포교당에서의 법회로 진행됐다.

“법당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교신협에 법당이 있었는데 그 법당을 사용하기 위해 200여명으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17년간 불교신협 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2012년 부산 좌천동에 보현정사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보현회는 3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목욕 봉사를 비롯해 독거어르신 돕기, 결핵아동 돕기, 고아원 지원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및 교복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려 환자들이 떠돌다 마지막으로 가는 마산국립결핵병원에서 22년째 활동 중입니다. 여기서 병원 법당 관해사를 맡고 계시든 정관 스님의 경우 자신도 1m 앞도 보지 못하는 약시임에도 환자들을 거둬들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셨어요. 봉사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더욱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보현회는 매년 겨울이면 환자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나선다. 240여명의 환자를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생필품을 전달한다. 위문공연까지 진행해 매년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보현회 내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18년 째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열고 함께 축구 등을 하고 있다.

“천마재활원, 성우원, 평화의 집 등에는 많은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여 그대로 놔두면 안되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장애아동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현회의 나눔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년 추운 겨울 설날 전 보현회 회원들은 떡국떡을 마련한다. 복지관에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팔아서 소년소녀 가장들의 교복비 등으로 사용한다.

“종립 학교에서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현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모두 정해져 있는 나눔활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떡국 떡을 판 금액으로 아이들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교복을 어쩔 수 없이 물려 입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 가운데 안성이 회장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포교다. 불교가 주는 참 가르침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생을 바로 잡아 주는 진리가 되어 바른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군포교를 갈 때와 장애우를 위한 대회를 할 때, 그리고 대중공양을 갈 때에는 직접 손으로 만든 합장주를 가져갑니다. 500개 혹은 천개씩 매년 만드는 개수는 엄청나죠. 그들에게 불교를 강요 하지는 않습니다. 합장주를 나눠주며 보현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회장은 “나중에 커서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그곳이 불교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면 한번이라도 부처님을 떠올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 노력 덕분 일까. 현재 보현회에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는 청소년기 안 회장을 만나 나눔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많다.

“한번은 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군법사님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생각이 났다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 봉정암서 기도하고 완치

안성이 회장은 39세이던 1990년 죽을 고비를 넘겼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거제 멸치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은 계절에 따라
멸치, 멍게, 굴, 대구,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문 즉시 택배로 신선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주문 환영
바자회 용 멸치, 특상품 취급

※ 가격은 수산물이라 시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1박스 1.5kg

● 종류 : 참멸치, 볶음용 멸치, 다신멸치
청어멸치는 2월경 부터 취급 (택배는 멸치 5박스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쫀득쫀득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경희수산(주) 대표 (두손모음)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나눔과 회향은 내 삶의 전부”


부산불교보현회는 30년 넘게 군포교 활동도 진행한다. 감사패를 들고 있는 오른쪽이 안성이 회장


결손가정 전세금 및 병원비를 보조하고 있는 안성이 보현회 회장(사진 왼쪽)의 모습


마산국립결핵병원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보현회 활동 모습. 맨 오른쪽이 안성이 회장


제18회 장애우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보현회는 장애아동을 위한 축제도 열고 있다.

“남편의 건강검진 차 함께 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당장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무릎이 부서질 정도로 아팠지만 단순한 생활 습관 질환이니 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금도 병명을 모른다고 했다. 안 회장은 몸 내부에서 피가 새고 멈추지 않는다고 진단 받았다.

“2주 넘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원인 불명이라고 하더군요.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제 봉사활동을 지지하지 않던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마음을 냈어요.”

이후 남편은 안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불교와 나눔 활동에 관련한 일은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준다고 선언 했다.

“보현회는 가족 회원이 많습니다. 한 사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 가족 전체가 모두 나서서 동참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여기고 있습니다.”

안 회장의 남편은 안 회장이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자 전세버스를 빌려 함께 기도할 이들을 모집해 봉정암에 갔다.

“당시 70세가 넘은 노보살님들과 장애인들도 있었어요. 모두 처음 봉정암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길도 험했지만 신심하나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저도 끝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안 회장은 봉정암에서 기도를 하고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스님께서 ‘아프십니까?’ 하시더니 기도를 같이 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픈거예요. 덕분에 봉정암에서 내려 올 때는 제일 먼저 내려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부처님의 가피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도 몸에서는 출혈이 있지만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았으니 남은 인생 더욱 보살행 실천에 앞장 서라는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안 회장은 그 이후부터 봉정암에 지속적으로 순례를 가고 있다. 2010년에는 10보 1배로 봉정암에 가기도 했다.

“살려주신 뜻을 생각합니다. 초심이지요. 5년 동안 다녀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불교의 숙제 인재불사에 앞장서

보현회 활동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 안성이 회장은 인재불사를 꼽았다. 안 회장은 보현회 초창기 어린이를 위한 법회와 불교학교를 주도하며 3년 동안 어린이를 지도해왔다. 하지만 법당이 없던 당시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고 어린이 법회가 사라지고 말았다.

“어릴 때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현회 활동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이 어린이 법회가 중단 된 것입니다. 인재 불사는 불교의 숙제입니다. 인도처럼 성지만 남고 불자는 없는 곳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화려한 법당을 세우기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 불사입니다.”

앞으로 안성이 회장은 지금까지 해온 봉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재불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숙제에 대한 답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전했다.

“종립학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쏟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금정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밀양에 있는 홍제중학교 까지 그들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이유는 오직 전법이죠. 그리고 스님들을 찾아가 인재불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건물 불사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인재불사보다 우선시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회장은 “기독교의 공격적인 포교를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포교 해본 경험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안 회장은 “불자들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재불사는 저도 노력을 기울이며 관심을 가장 많이 갖지만 혼자서는 결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 가정 한 자녀 법당보내기 운동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현정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어린이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안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 거사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도 아픈 중생을 찾아가는 안성이 회장은 말한다. “그들이 부처님입니다. 아픈 중생이 바로 저의 부처님입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올림픽서 울려퍼진 목탁 소리

어린 시절 한때는 운동선수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듯 나 역시 태극마크가 가슴 속의 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인생의 기로에서 꿈은 꿈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출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승려로서 태릉선수촌 불교법당의 지도법사 소임을 맡음으로 가슴 속의 미진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다.

운동선수라는, 그들과 같은 꿈을 꾸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선수촌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감회가 남다르다. 태릉선수촌 불교법당 지도법사를 하며 재밌었던 일화가 있다. 때는 2012년 8월의 여름날이었다. 선수촌 불교법당 지도법사 스님들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그때 개인적으로 무엇으로 선수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응원을 하면 좋을지 이런 저런 궁리를 했다. 결국 금메달색과 같은 가짜 금돈과 목탁을 준비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의 보상은 메달이기에 만나는 선수들 모두에게 금메달을 기원하는 금돈과 염주를 건네고자 한 것이었다.

런던에서 드디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향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올림픽 선수촌과 경기장은 온통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문제는 우리도 구경거리가 됐다는 점이었다. 경기장의 수많은 세계인들은 한국 승려의 모습에 신기해했다.

그들로 따지만 가톨릭 수사나 신부가 올림픽 경기장에 응원도구를 주렁주렁 가지고 온 셈이니 그럴 만도 했다. 아마 ‘동양에서는 저렇게 종교인들도 일반대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나 보다’ 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경기장에 앉기도 전에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밀려왔다. 어쩔수 있겠는가. 응할 수 밖에… 함께 간 스님들은 모두 흔쾌히 사진촬영 요청에 응해주기도 했다.

처음 간 응원경기는 한국 여자하키 선수단이 시합이었다. 이미 경기장 안은 1만여 명이 넘는 유럽인들로 꽉 차 있었다. 우렁찬 응원소리 속에 한국선수단을 위한 응원소리는 미미했다. 응원단의 수도 적었거니와 한국 여자하키팀이 이미 4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목탁을 꺼내 들었다. 작은 대한민국 응원단의 응원소리에 맞춰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짝짝짝짝짝”

장단을 맞추어 치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청량하면서 클 줄이야. 평소에 법회를 진행하며 목탁소리를 당연하게만 여겼던 나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고, 경기장 전체가 놀랐다. 그 작은 목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1만 여 명이 들어차 있는 경기장 전체를 앞도하였던 것이다.


그림 · 박구원

목탁 소리의 영험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도자들의 응원에 신기함을 보였던 세계인들이 한국 여자하키팀을 같이 응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목탁소리는 한국응원단을 회통하고 주변을 돌고 돌아 경기장 전체를 회통하여 결국엔 모든 관중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게 하였다. 여기에 파도타기 응원도 일어났다.

경기장 전체가 목탁소리에 맞추어 ‘대~한~민~국’ 을 외치자 한국선수단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 경기 중 비가 쏟아져도 투혼을 발휘했다. 마침내 한국팀은 3대 1의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가 끝난 뒤 한국선수단은 우리 응원단의 앞으로 와 손을 흔들며 환한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였다. 나도 목탁으로 ‘대~한~민~국’ , 화답을 보냈다. 전법과정에서는 수많은 설법보다 한 번의 목탁울림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대행 스님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라!

석가모니도 늙고 죽음이 있었는데…

질문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으레 십이연기(十二緣起)가 거론되곤 합니다. 무명(無明)이 있으니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識)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 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 이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無)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몸뚱이가 살아야 살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죠. 두 친구가 하나는 스님이 되고 하나는 속인인데, 속인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님 된 친구를 불렀답니다. 천도를 잘 좀 해 달라고 떡 불렀는데 천도는 안 해 주고, 한다는 말이 "어휴!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쓱 가 버리거든요.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그런데 그게 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느니 살았느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헐고 헤지고 바래고 그랬으면,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죠.



그림 · 최주현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스님께서는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둘 아닌 도리를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둘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답변 둘이 아닌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요,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이 되게끔,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줘도 상대방인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게 둘이 아님이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왜 악한 것도,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깐 너 하나만이,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우." 이러고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이 대가가 일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 이 큰 도리를 모른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덮여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모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개미들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보죠. 벌레 둥우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삽으로 인해 딱 터지게 되면은 그게 그냥 쫙 헤지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냥 모두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 죽게 되고 사는 놈은 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보는 거나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계를 받을 때 얘기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들 그렇게 죽는 문제들. 허청없이 그냥 밭에 가다가도 그저 이런 벌레들이 모두 꾸역꾸역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탁 쳐서 그냥 벌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헤어지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돼 버려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한 거는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걸림 없이 걷게 될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모두를 잘해야 되죠. 스님네들은 염불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마음들이 이거를 잘했다 하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빼놓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여함이죠!

☞ 29면에서 계속

이거 해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죠. 닥치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든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잘할 때에, 때에 따라서 길을 걷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항상 그냥 무심코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죠. 그냥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자기 하나의 생각뿐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그냥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뭇 중생을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둘 아니게 생각한다면 모든 거를 다 건진다.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한 철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게 아닌데요, 한 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죽었어도 그냥 건진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할 때에 어떤 때는 종자가 덜 생기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은 조그만 데다가 식구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이 터질 거 같으니까 종자를 다섯, 하나 하나 치면 열 개 스무 개를 낳아야 될 텐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낳는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것도 실천입니다, 이게. 모두가 실천이에요.

옛날에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인제 공부하는 분들이, 선방에 계신 분들이 인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 말곤 똥그렇게 그냥 금을 그어 놓고선 "너희들, 여기 못 들어오면 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전부들 글로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간 아무 소리 없이 발로 그 그린 거를 다 지워 버리고 하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면 매여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만 옳습니까? 이쪽에도 글로 들어와야 정각을 한다 하고, 이쪽에는 그것에 매이면 정각을 못한다 하고 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틀리든지 옳든지 그냥 해 보세요. 허허허. 틀려도 별로 틀리지 않을 텐데. 이거를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놓고선 아무리 일러 달래도 일러 주질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건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것이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도 여기 와서 닿지 않는 말이 있고 여기 와서 닿는 말이 있죠. 만날 그냥 그 한 도리에서 자꾸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냐?" 하고 물으니 아주 뭐 신나게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니깐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물으니 대답을 거기서 못했더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모를 때는 아주 그게….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돼야 눈도 뜨고 귀도 뜬다. 이런 거죠. 우리가 '둘' 해도 하나고 '하나' 해도 둘입니다. 하나 하면 둘이 있는 거고 둘이 있는 거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깐 세상은 다 비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가 없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극한 상황에 몰려야 불문에 드는지

질문 스님이 되는 것은 큰 복을 받으신 것이라 우리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려야 승려가 되거나 불문에 드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자기가 과거에 배우던 업식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밟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마음이, 내 뿌리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자꾸 이렇게 몸뚱이를 리드하니까, 생각이 '아, 나는 이 도리를 공부할 수밖에는 없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근기가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가 좋아서 자꾸 공부하게 되고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들게 되고 서로가 이 마음법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모두 딴 이름이나 찾고 딴 형상을 찾으면서 기복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질문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는지요?

답변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 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 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 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 컵을 들으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에요.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이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똥그렇게 그냥 그려 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똥그렇게 그려 놓고는 침 한 번 뱉는데 떨어질락말락할 때 점 하나 찍어 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 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자기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 천체로서는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체험을 해 봐서 알겠지마는 아, 그런 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외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도 마시고,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지구의 장래가 궁금합니다

질문 저의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 기후, 양 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증증을 앓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 지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가지가지 이렇게 벌여서 이름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건 참선입니다. 선에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한데, 이거 공부할 때도 한군데로, 내면의 한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군데다 놓으니까 모아지죠? 한군데로 놓으면은 모아지듯이 일체 돌아가는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그 천차만별의 일들을, 그것을 이름으로 어떻게 지어서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이 일체가 모두 돌아갑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거를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모두가 움죽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움죽거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안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해 나가려면 잠시라도 찰나찰나 이렇게 안 움죽거리게 할 수 있어야만 움죽거리게 할 수 있죠. 즉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미래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일초 전 일초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세를 이게 둘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셋으로 수차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젭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모두가 앞서 입력된 건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하기도 하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뜻이, 이렇게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